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08. **8** Vol. 200

부록 부산문화회관 8월 공연캘린더





Giuseppe Verdi OPERA

AIDA



- >> 예술총감독 / 이 소 영
- >> 예 술 고 문 / Paolo Baiocco
- >> 지 회 / Ottavio Marino
- >> 연 출 / Carlo Antonio de Lucia
- >> 아 이 다 / Roxana Brihan, Irina krikunova, 배 수 진
- >> 라 다 메 스 / Piero Giuliacci, 이 정 원, 김 지 호
- >> 암 네 리 스 / Katja Lytting, Larissa Demidova, 박 소 연
- >> 아모나스로 / 고성현, 박대용, 김종화
- >> 람 피 스 / Andras Palerdi, 안균형, 김태경
- >> 레 / 김요한, 문동환, 김정대
- >> 무 녀 장 / 옥혜나, 강연희, 한송이, 윤지영
- >> 전 령 / 이정환, 김정권

2008. 9. 3(수) ~ 7(일) 오후 7시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 부산광역시 부산 MBC 부산일보사

협찬 | KOMACO HiBi ORANGE SAMSUNG 르노삼성자동차 해피랜드 Levi's® kids

| 공연안내 및 예매 | 1544-9373 솔오페라단 (051) 740-5750 | 공연안내 | 부산문화회관 (051) 625-8130

| 예 매 처 | ▶ 인터파크 1544-1555 ▶ 티켓링크 1588-7390 ▶ 옥션티켓 1566-1369 ▶ 부산은행 전지점

| 입 장 권 | ▶ VIP석 150,000 ▶ R석 130,000 ▶ S석 100,000 ▶ A석 80,000 ▶ B석 50,000 ▶ C석 30,000



G. Verdi AIDA



2008년 가을을 화려하게 장식할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

금세기 최고의 드라마틱 테너로 이미 400회 이상 아이다의 라다메스役に 출연한 **피에로 줄리아치**, 빈 국립극장의 아이다 주역가수 소프라노 **록산나 브리반**, 러시아 출신으로 유럽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소프라노 **이리나 크리쿠노바** 등 유럽을 대표하는 성악가들이 대거 출연하며, 한국인 테너 최초로 라 스칼라 극장의 주역 테너로 데뷔하여 유럽인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어 갈채를 한몸에 받은 테너 **이정원**과 한국을 대표하는 바리톤 **고성현** 등 그야말로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세계적인 성악가들의 무대가 펼쳐진다. 유럽의 젊은 거장 **오타비오 마리노**의 지휘와 섬세한 무대의 마술사 **안토니오 데 루치아**의 연출로 깊은 감동을 더하는 광대한 서사시의 막이 이제 시작된다.

STAFF • CAST



단장/예술총감독
이 소 영



예술고문
Paolo Baiocco



지 휘
Ottavio Marino



연 출
Carlo Antonio de Lucia



음악감독
이 소 영



음악감독
홍 지 혜



안무
신 정 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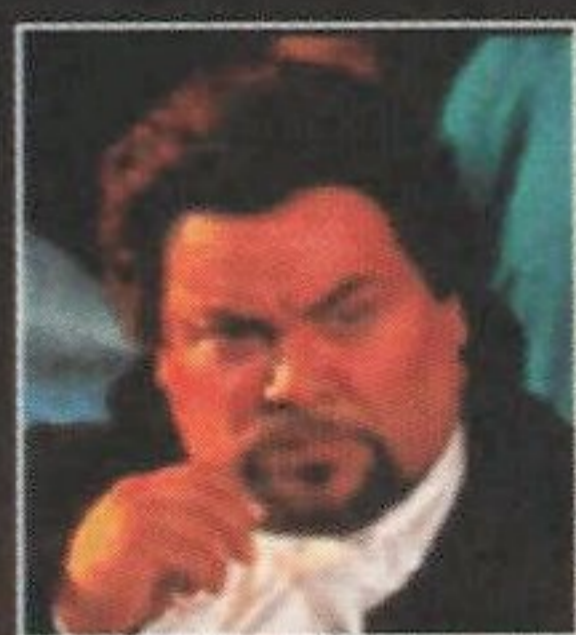
아이다
Roxana Briban



아이다
Irina Krikunova



아이다
배 수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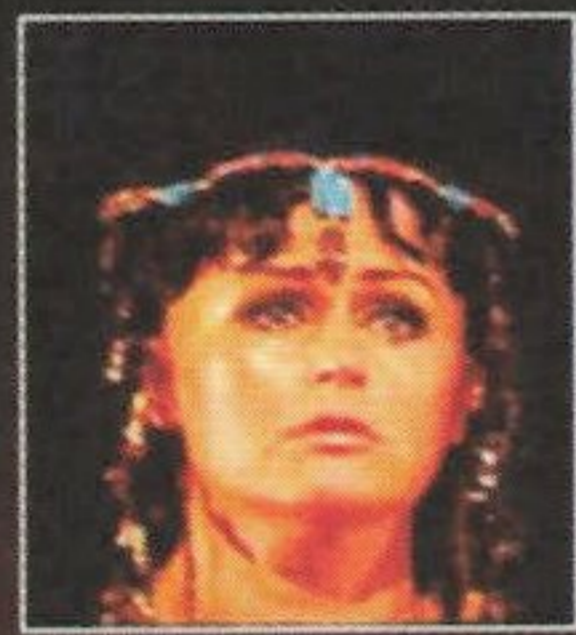
라다메스
Piero Giuliacci



라다메스
이 정 원



라다메스
김 지 호



암네리스
Katja Lytting



암네리스
Larissa Demidova



암네리스
박 소 연



아모나스로
고 성 현



아모나스로
박 대 용



아모나스로
김 종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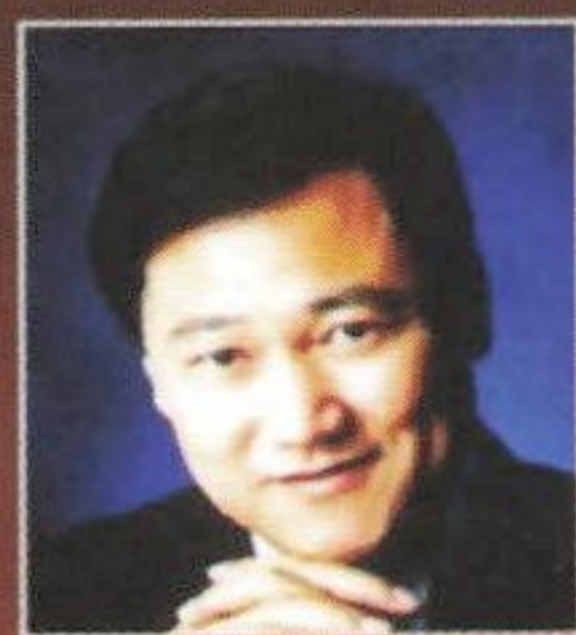
람피스
Andras Paler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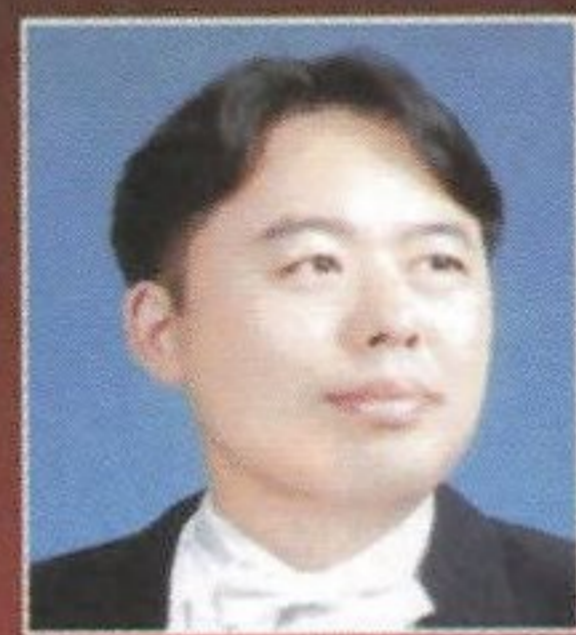
람피스
안 균 형



람피스
김 태 경



레
김 요 한



레
문 동 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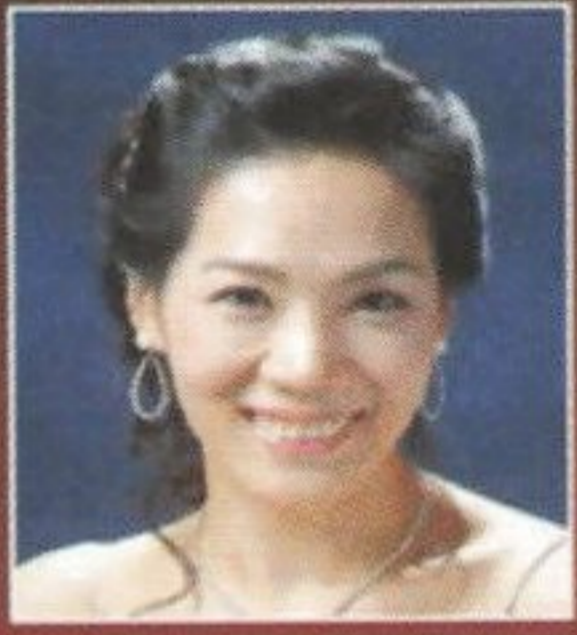
레
김 정 대



무녀장
옥 혜 나



무녀장
강 연 희



무녀장
한 승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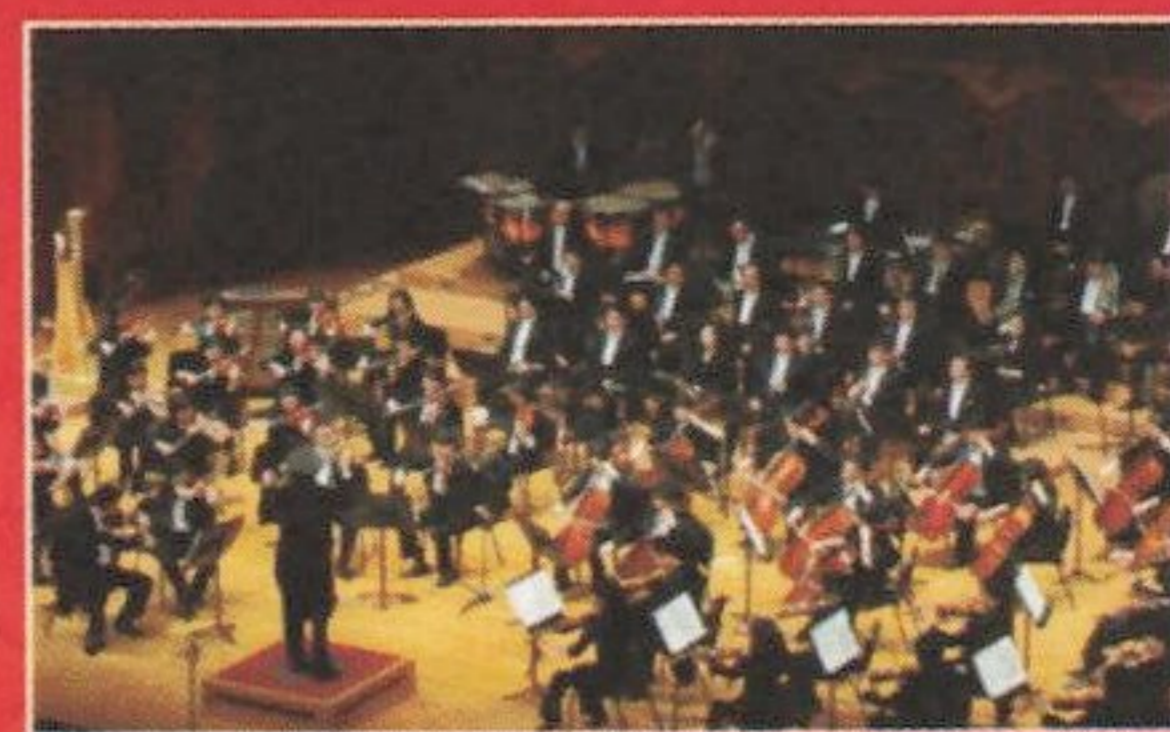


전령
이 정 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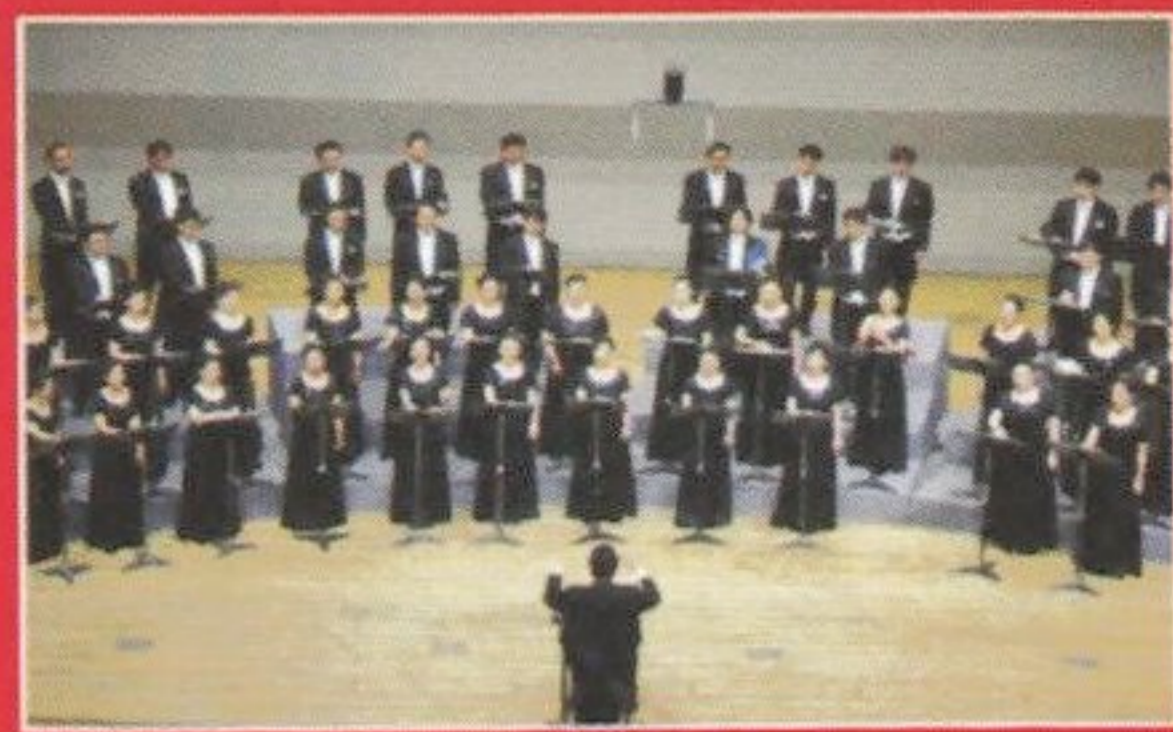


전령
김 정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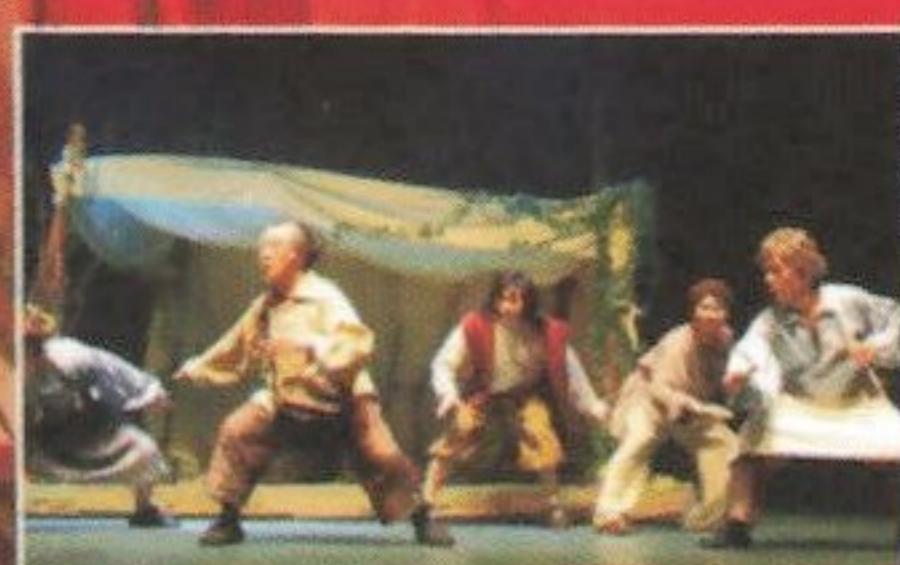
현란한 무용, 수많은 출연진이 빛어내는 화려한 무대로
관중들을 매료시키며 오늘날 가장 완벽하고 아름답다는
찬사를 받는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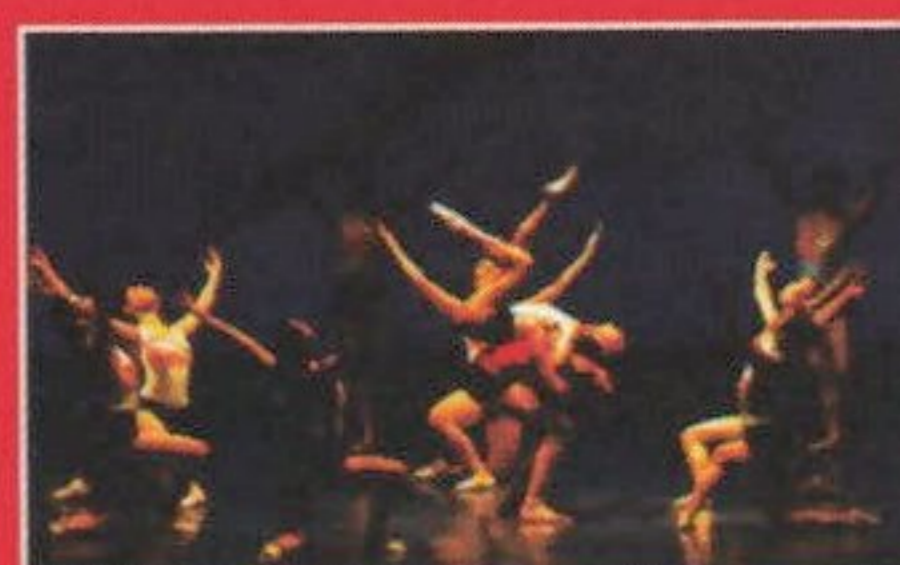
부산시립교향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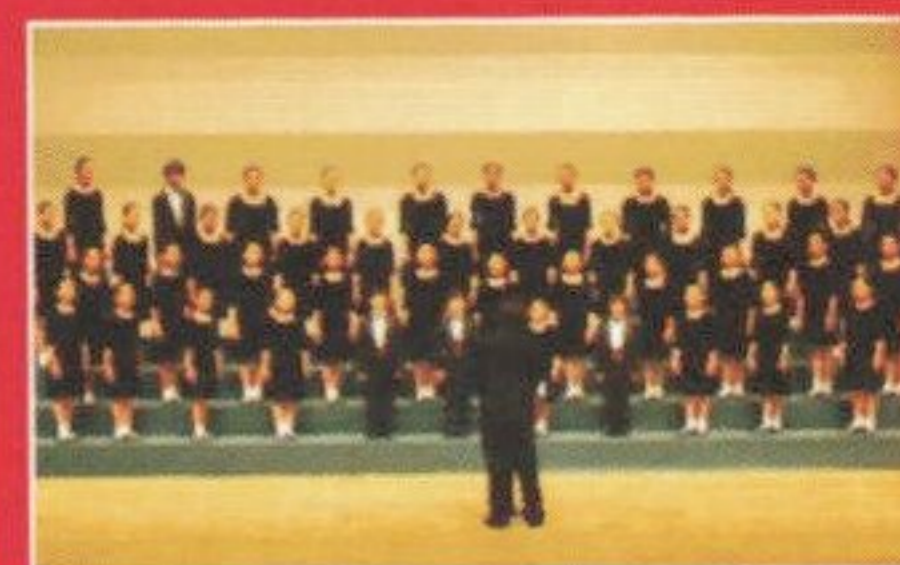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극단



신정희 발레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2008. 팔빙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



지휘 : 박호성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 연주곡목

- ▶ 여는 무대 타악 퍼포먼스 뮤지컬 하이라이트 '야단법석'
 - 한여름에 시원하게 듣는 '오케스트라 아시아를 위한 뱃노래'
 - 어린이 윤연수의 창작동요와 국악관현악
 - 대중가수 이승기의 가요와 국악관현악
 - 하재봉 & 김지영의 정통 아르헨티나 탱고와 국악관현악
 - 탭윙 탭댄스 컴퍼니의 탭댄스와 국악관현악
 - 타악 퍼포먼스 그룹 '야단법석'과 함께하는 국악관현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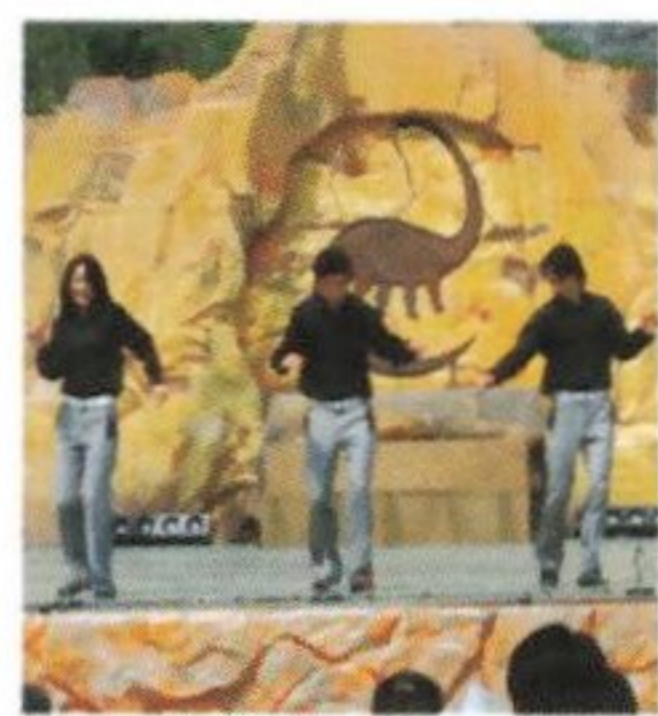
2008. **8.26(화) 20: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이승기
가수



다다(하재봉), 포이즌애플(김지영)
탱고



탭윙 탭댄스 컴퍼니
탭댄스



야단법석
타악퍼포먼스



윤연수
동요

공동주최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

입장권 R석 3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30% 할인(R석, S석에 한해 1인 4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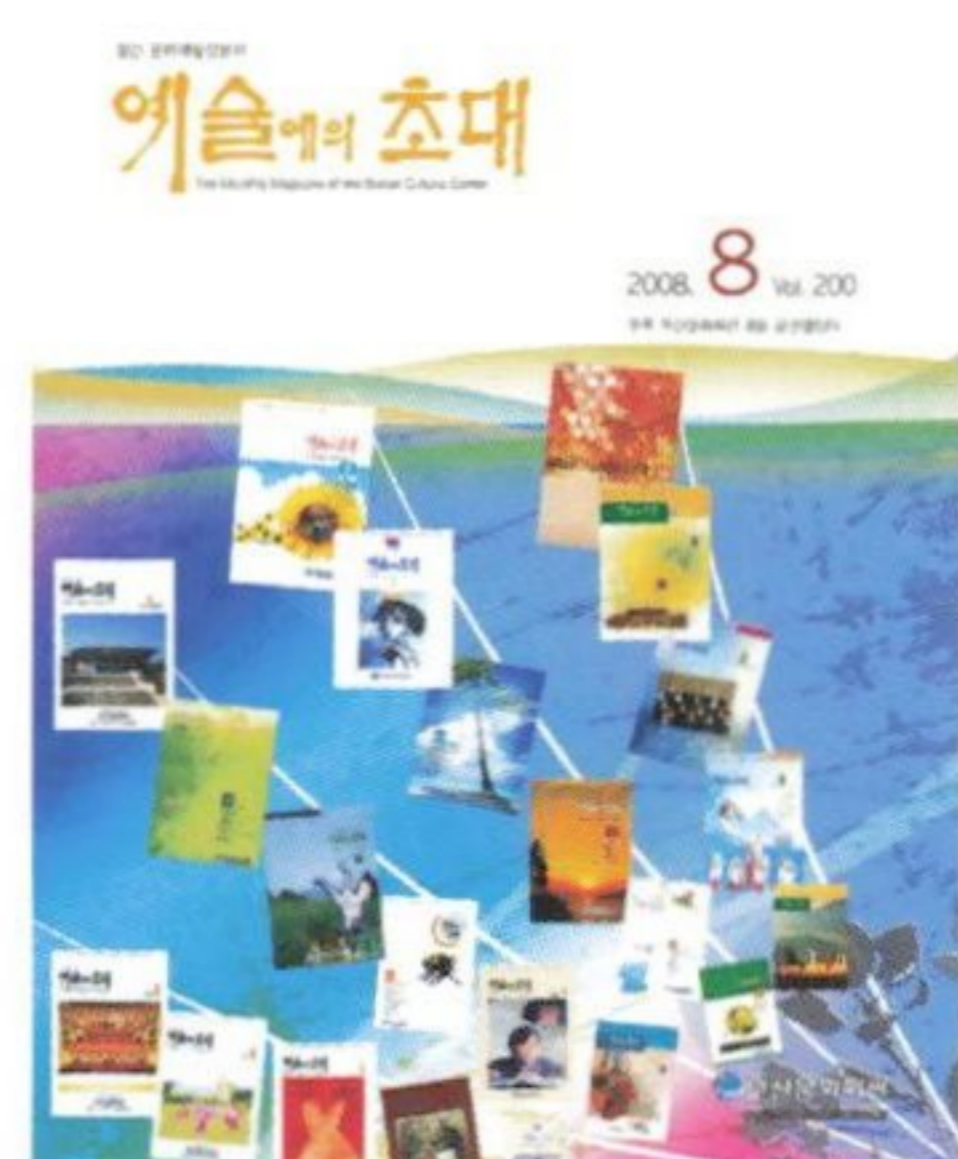
※ 단체 30명이상 관람(예약시) 20% 할인(R석, S석에 한함)

예매처 부산은행 전지점 ticketlink www.ticketlink.co.kr
콜센터 1588-7890

문의 부산문화회관 (051)625-8130 www.bsculture.busan.kr
부산시립예술단홍보부 (051)607-607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051)607-6110 www.bsgugag.com



커버스토리	08	통권 200호 맞은 예술에의 초대
프리뷰	12	
반갑습니다	22	부산도시공사 사장 오홍석
아름다운 시, 아름다운 노래	24	산바람 강바람 _ 김상훈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26	유럽 박물관의 밤 행사 _ 이연기
생활속의 판화이야기	28	중국을 보는 또 하나의 창 '차오메이 목판화' _ 채경혜
그곳에 가면	30	SF영화 모형박물관 MOVIE IN THE BOX
우리는 문화 가족	32	부산환경공단 '얼씨구 문화종교'
황윤기의 월드뮤직여행	33	안데스의 전통 악기들 _ 황윤기
프로그램 가이드	34	
나의 애청음반	46	비발디 '사계' _ 이동신
새로나온 책	47	
부산문화회관소식	48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테마여행	50	
100자 토크	52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53	



발행처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TEL. 625-8130 / FAX. 607-6079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회관길1 (대연 4동 848-4)
발행인 정우연 **편집인** 박원철 **편집장** 백경옥
발행일 2008년 7월 25일
인쇄처 한국디자인진흥원

표지설명
 1992년 1월호를 시작으로 부산의 다양한 공연 정보를 전해준 부산문화회관 공연정보지 예술에의 초대가 2008년 8월호로 통권 200호를 맞았다.



August 2008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Sunday	Monday	Tuesday
8/31	9/1	9/2
중 뜨거운 한여름밤의 이열치열 음악회 '타로(打路) TARO 4.5' 16:00, 20:00 2만원 · 1만원/새울전통타악진흥회 부산지회 (583-7958, 016-557-6058)	중 Chen, Jer-Huei, 김승환 퍼커션 피아노 듀오 음악회 19:30 균일 1만원/C&G아카데미(010-2442-7585)	
3	4	5
10	11	12
17	18	19
소 한행래 제자 음악회 17:00 무료/한행래(016-555-0368)		대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 연주회 '금난새와 함께 하는 클래식은 내친구' 11:00, 16:00 균일 1만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24	25	26
대 국립발레단 초청공연-특별게스트 발레리노 김용걸 '지젤' 16:00 10만원 · 7만원 · 5만원 · 4만원 · 3만원 부산문화회관(625-8130), 예술기획(0505-700-9798)		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기획연주회 '팔방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 20:00 3만원 · 2만원 · 1만원/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6110),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중 양상불 아이리스 인 부산 희망음악회 '...하면 되고' 19:30 2만원 · 1만원/아트뱅크 코리아(442-1941)

전시실

- 제 34회 부산미술대전 초대작가전 -대전시실
8월 4일(월)~8월 10일(일)
부산미술협회(632-2400)
- 제 25회 부산광역시 수석연합회전 -대전시실
8월 13일(수)~8월 15일(금)
문의 : 이해성(011-579-1131)
- 제4회 부경서도대전-대 · 중전시실
8월 17일(일)~8월 20일(수)
문의 : 조상래(516-5678, 011-9501-8181)
※ 8월 17일 오후 3:00 개막
- 부산비엔날레 개최기념
아시아 수채화 대전-대 · 중전시실
8월 23일(토)~9월 2일(화)
문의 : 정인성(262-6562, 017-842-6422)
- 2008 부산비엔날레 아시아 현대 미술 네트워크 전-대 · 중전시실
9월 5일(금)~9월 19일(금)
문의 :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888-6696)

국제회의장

- 제 4회 부경서도 대전 시상식
8월 17일 오후 3:00
문의 : 조상래(516-5678)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p>9/3</p> <p>대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 기획공연 부산문화회관 · 솔오페라단 공동제작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 19:30 15만원 · 13만원 · 10만원 · 8만원 · 5만원 · 3만원 부산문화회관(625-8130), 솔오페라단(740-5750)</p> <p>중 청소년 협연의 밤 19:30 초대/선기획(758-6410)</p>	<p>9/4</p> <p>대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 기획공연 부산문화회관 · 솔오페라단 공동제작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 19:30 15만원 · 13만원 · 10만원 · 8만원 · 5만원 · 3만원 부산문화회관(625-8130), 솔오페라단(740-5750)</p>	<p>1</p>	<p>2</p>
<p>6</p>	<p>7</p> <p>소 김효진 피아노 독주회 15:00 균일 1만원/신선엽(010-7120-3042)</p>	<p>8</p>	<p>9</p>
<p>13</p>	<p>14</p>	<p>15</p>	<p>16</p> <p>소 토요일상설무대-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 연주회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p>
<p>20</p> <p>대 아코르 청소년 오케스트라 제 6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황지연(016-854-8966)</p>	<p>21</p>	<p>22</p> <p>중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08 한여름 밤의 춤 작품전' 19:30 균일 5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6118, 6120)</p>	<p>23</p> <p>대 국립발레단 초청공연-특별게스트 발레리노 김용걸 '지젤' 19:30 10만원 · 7만원 · 5만원 · 4만원 · 3만원 부산문화회관(625-8130), 예술기획(0505-700-9798)</p> <p>중 인디고 서원 '몸의 학교' 20:00 균일 5만원(청소년은 초대)/인디고 서원(628-2897)</p> <p>소 토요일상설무대-부산새울전통타악진흥회 연주회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p>
<p>27</p>	<p>28</p> <p>중 남산놀이마당 전통 연희로 그려본 우리민족 이야기 II '잡씨무처기(雜氏無處記)' 19:30 2만원 · 1만5천원/남산놀이마당(516-4434)</p>	<p>29</p> <p>중 남산놀이마당 전통 연희로 그려본 우리민족 이야기 II '잡씨무처기(雜氏無處記)' 19:30 2만원 · 1만5천원/남산놀이마당(516-4434)</p> <p>소 이윤혜의 춤 19:30 초대/이윤혜(016-818-7920)</p>	<p>30</p> <p>중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극단 '위자료' 16:00 무료/부산시립극단(607-6136)</p>

● 표 공연은 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사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공연안내는 <http://www.bsCulture.busan.kr>을 Click하세요.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부산시민들과 함께 한 **예술에의 초대** 200번째 만남

아름다운 시, 아름다운 음악



16년 7개월 함께해온 시민들 문화 생활가이드

1992년 1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부산문화계에 다양한 공연 정보를 제공해온 월간 '예술에의 초대'가 2008년 8월호로 통권 200호를 맞았다.

창간 당시 32페이지, 총 3,000부를 발행했던 '예술에의 초대'는 그동안 페이지가 52~80페이지로 증면되고, 올해 3월호부터는 판형이 커지면서 독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와 읽을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예술에의 초대는 부산 문화계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지난 16년 7개월 동안 예술에의 초대 한권으로 부산의 공연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예술에의 초대는 그동안 공연, 전시, 문화행사 등 부산지역의 다양한 문화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문화의 다양성과 지역문화를 짚어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획연재기사도 게재해 독자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다.

그 동안 주요 기획으로는 우리가 전승 보존해야 할 부산의 무형문화재를 소개하는 '우리의 얼을 찾아서(1994년)', 부산 문단에서 활동하다 작곡한 문인들의 삶을 회고한 '부산을 살다간 문인(1996년)', 세계 유명 오페라를 소개한 탁계석의 '오페라 산책(2000년)', 세계의 생생한 축제의 현장으로 안내하는 '세계문화예술현장(2000년)', 시인 최영철의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본 '최영철의 문화읽기(2001년)', 전국의 민속 현장이야기를 담아낸 '주경업의 민속기행(2002년)', 세계 각국의 미술관으로 떠난 '책속의 미술관(2003년)', 부산을 배경으로 한 다양한 창작 작품을 소개하는 '작품속의 부산, 부산이야기(2004년)', 부산의 음악 1세대들을 통해 본 부산 음악이야기 '부산 음악을 일군 사람들(2005년)', 부산의 열악한 영

화 제작 현장에서 만난 가슴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 김희진 감독의 '부산, 영화를 꿈꾸는 사람들(2005)', 시인의 눈으로 바라본 아름다운 미술의 세계 '김형술 시인의 그림에세이(2006)', 그리고 현재 연재되고 있는 '아름다운 시, 아름다운 노래',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황윤기의 월드뮤직여행', '생활속의 판화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의 기획기사로 독자들을 아름다운 문화의 세계로 이끌어 준다.

한편 지난 7월 15일 '예술에의 초대' 200호를 앞두고 그동안 예술에의 초대 주 독자층이었던 정기회원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념음악회를 열고 200호 발행을 축하하는 무대를 가졌다. 이번 무대에서는 김상훈 시인, 강은교 시인의 시낭송을 시작으로 부산시립교향악단 레이디스필양상블과 함께 한 테너 박인수의 가곡, 고충진의 클래식 기타 연주, 퓨전 국악그룹 희나래의 퓨전 국악,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들려주는 싱그러운 동요 등이 영상과 어우러져 큰 박수를 받았다.

예술에의 초대 지면을 통해 만나는 원로 음악인 제갈삼을 비롯해 부산예총 최상운 회장, 이인숙 부산박물관장, 음악평론가 광근수, 아동문학가 강기홍 등이 참가한 이날 음악회에는 부산 문화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예술에의 초대 지난 표지 전시회가 함께 열려 추억을 선사하기도 했다. 음악회는 830명에 이르는 정기회원 가족들이 참가, 대성황을 이루었다.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알찬 내용을 채워온 지 어언 200회에 이른 것을 축하하며, 최근에 이르러 더욱 다양한 필진의 다양한 내용이 주목되는 가운데, 김상훈 시인의 한국가곡에 얽힌 이야기는 옥구슬과도 같은 귀중한 자료라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더 큰 발전을 기대합니다.

제갈삼 (前 부산대학교 교수)

부산문화회관이 올해로 개관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월간 문화예술정보지인 **예술에의 초대** 발행도 200호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는 지난 20년에 걸친 부산 시민들의 꾸준한 문화사랑을 여전히 증명해주는 일입니다. 부산문화회관 입구에 걸려있는 '이 곳을 찾는 당신은 아름답습니다'란 문구가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풍성하게 문화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당신들이 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인숙 (부산박물관장)

예술정보지가 통권 200호를 기록하는 일이 그리 흔하지 않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예술에의 초대**는 큰 박수를 받아야 한다. 이 잡지의 200권 속에는 생생한 부산문화의 족적이 담겨져 있다. 1992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부산문화의 역사가 담겼다는 의미이다. 이 잡지를 통해서 소개된 다양한 문화인사들의 프로필은 부산의 인물문화사로 매김 되고, 전문가들에 의해서 서술된 기획기사들은 살아 움직이는 문화 트렌드의 현황을 알려주는 길라잡이였다. <영화음악 이야기>, <쉽게 듣는 클래식> 등 연재물로 독자들을 만나왔던 나로서도 이 잡지와 함께했던 지난 시간들은 참으로 소중한 인연이고 감사한 일이었다.

곽근수 (음악평론가)

예술에의 초대 200호 발간 소식을 듣고 보니 1984년도에 부산에서 첫 작곡 발표회를 가졌던 생각이 납니다. 예술이라는 꽃씨를 잘 가꾸어서 꽃을 피우는 든든한 버팀목이 된 **예술에의 초대**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황의중 (부산대학교 예술대학장)

부산의 문화센터 역할을 하는 부산문화회관의 공연종합정보지인 **예술에의 초대** 200호를 축하합니다. 저와 부산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지난 200호 동안 **예술에의 초대** 덕을 톡톡히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공연을 소개할 수 있는 매체가 일간지 신문뿐이었던 90년대 초반을 생각한다면 예술의 초대는 그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여 명실상부한 부산공연정보의 센터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역할을 부탁드리면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임병원 (바이올리니스트, 경성대 교수)

문화 정보지가 부족한 부산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예술에의 초대**가 벌써 200호가 되었다고 하니 그 동안 책 발간에 애쓰시는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매달 문화회관의 공연일정에서부터 시내 갤러리의 전시일정을 제일 먼저 알려주셔서 부산의 전시, 공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물론 여러 관련인들에게도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내용이 알차고 좋은 정보들로 가득 찬 **예술에의 초대**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김영태 (타워갤러리 관장)

예술에의 초대는 문화 불모지 부산에 내려진 단비. 이제 제 200호를 맞은 **예술에의 초대**여. 예술을 풍요롭게 만들고 보기만봐도 즐거운 '노란 문화 비타민'으로 거듭나라. 팍! 팍!

김수진 (부산일보 문화부 기자)

2 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매일 매일 새로운 기사를 찾고, 데드라인에 맞춰 결과물을 내놓아야 하는 하루살이 인생이라 **예술에의 초대**가 부럽기도 하네요. 앞으로도 신선한 소식을 듬뿍듬뿍 담아내는 공연계의 오아시스가 되라, 파박^^

임은정 (국제신문 문화부 기자)

초 대라는 말은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찾아 올 누군가를 위해 자리를 마련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사람에게 대한 애정입니다. '200번의 초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오래, 더 많은 초대가 이어질 것이란 것도 압니다. 초대가 있기에 가는 것이 아니라, 초대해주는 그 마음이 있기에 우린 한자리에 모입니다. 초대란 이름으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초대 받아 보았기에 초대하는 일도 배웠습니다. 이제 그대와 나는 손님이자 주인이며 무언의 동반자입니다.

김희진 (영화감독)

예 술에의 초대는 부산문화의 산증인이며 버팀목입니다. 시민과 독자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알찬 정보지로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하리라 믿으며 200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박현주 (동보서적 <책소식> 편집장)

문 저 통권 200호를 내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문화예술정보지로서 16년간 부산의 문화를 지켜온 것에 감사드립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정보지로서 언제나 부산의 문화예술을 이끌어가는 예술인들과 그들을 아끼는 많은 분들에게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널리 알려주시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2,000호도 기대하겠습니다.

이정남 (극단 맥 대표, 연출가)

문 화의 불모지라는 비아냥이 듣기 싫어 오늘도 나는 고전(古典)으로 통하는 내고장 문화회관을 찾는다. 접근이 좀 힘들다고, 모두들... 그러나 닿고보면 전망 좋고, 수목과 초록이 좋고, 은은하게 흐르는 FM 음악은 어느듯 포근한 사색의 길로 달음 친다.

예술로 가는, 책으로 만나는 예술은 항상 신선. 기다려지는 **예술에의 초대**는 불모지 비아냥 떨치기 16년, 200호는 이제 위대함의 초석을 다졌다.

김중옥 (금정구 구서2동)

예 술에의 초대를 받고 얼마나 많은 이의 삶의 질이 달라졌을까? 어렵게 생각하던 문화 예술로의 접근이, 다양한 정보가 담긴 유익한 책 한권으로 해결되었으니, 저 또한 이 한권의 책으로 '나에게로의 초대'가 더욱 더 여유로워지고 풍족해졌으므로 오늘도 주위 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예술에의 초대**를 받으시고 마음의 부자되세요!"

장우연 (부산대학교병원보 기자, 부산대학교병원 간호사)

예 술에의 초대 2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부산의 모든 공연 소식을 알 수 있는 예술의 초대는 공연을 사랑하는 부산 관객들에게 든든한 소식지인 것 같습니다. 16년이 넘는 시간을 부산의 문화도시 만들기에 크게 일조하신 건데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테마여행, 독자참여마당, 각종 문화 동호회소식, 공연일정, 공연소개, 다양한 분야를 세밀하게 다루는 모습에 항상 박수를 보냅니다.

발행호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부산문화 만들기에 대한 책임감이 더 커질테지만, 언제나 응원의 목소리 보내는 시민들을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더 좋은 소식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전태우 (바다무대 운영자)

국립발레단 초청 공연-특별게스트 발레리노 김용걸

지젤 Giselle

- 2008년 8월 23일(토) 오후 7:30, 24일(일) 오후 4:0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섬세한 카리스마, 중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 듯 가벼운 도약으로 허공을 가르며 보는 이의 호흡을 일순간 정지시키는 마력의 소유자, 힘찬 움직임과 섬세한 연기로 관객의 마음을 뒤흔드는 발레리노 김용걸과의 만남은 생각만으로도 설렌다.

2008년 여름,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발레리노 김용걸이 지난해 백조의 호수에 이어 '지젤'로 다시 고향 부산의 팬들을 찾아온다.

1841년 초연된 '지젤'은 당시 파리오페라극장의 발레마스터였던 장 코라이가 대부분을 안무하고 솔로 부분은 쥘 페로가 안무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보는 '지젤'의 모습은 1860년 이후 러시아로 건너가서부터이다. '지젤'은 시골처녀 지젤이 평범한 시골청년으로 가장한 귀족 알브레히트와 사랑에 빠지지만 상대로부터 배신당한 충격으로 죽은 후에도 사랑을 위해 헌신한다는 내용의 낭만 발레이다. '지젤'은 발레리나에게 무용가로서의 기량과 함께 배우로서의 연기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흔히 발레의 햄릿으로 불리기도 한다. 세계 모든 발레리나들이 '백조의 호수' 오데트와 함께 가장 선망한다는 배역 '지젤'은 청순하고 순박한 시골 소녀에서 사랑의 배신에 광란의 춤을 추며 자결하는 비련의 여인으로, 겉으론 싸늘한 영혼이지만 마음속엔 승고한 사랑을 간직한 윌리(처녀들의 영혼)로 시시각각 이미지 변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누구나 탐을 내는 매력이 넘치는 배역이다. 초연당시 솔로 부분을 안무한 쥘 페로는 런던 공연 때 직접 알브레히트를 맡기도 했다. 역사적으로 명성을 날린 알브레히트는 니진스키, 안톤 돌린, 세르쥬 리파, 누레예프, 안 소니 도웰 등을 들 수 있다.

국립발레단에서는 1989년 지젤을 국내 초연한 후 1999년 10년 만에 새로운 '지젤'을 올렸는데 김지영-김용걸, 배우윤-이원국, 김주원-김창기 등 쟁쟁한 세 커플이 주역으로 교체 출연하며 사랑-배신의 애증, 온 몸으로 말하는 연기와 감동의 무대로 찬사를 받은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1998년 국립발레단에 입단한 뒤 2006년 무용계의 아카데미상이라 불리는 '브누아 드 라 당스'를 수상한 발레리나 김주원과 한국인 최초로 모스크바 국제 무용 콩쿠르 남자 동상수상, 파리 국제무용 콩쿠르 1위를 수상하고 동양인 최초 파리오페라 발레단 솔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걸이 출현한다..

1962년 국립극장 산하단체로 시작되어 2000년 이래 재단법인으로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립발레단은 다양한 레퍼토리와 관객을 먼저 생각하는 공연을 통해 대중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감과 동시에 세계적 수준의 발레단으로 진입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 안무/장 코랄리, 쥘 페로 Jean Coralli, Jules Perrot
- 음악/아돌프 아당 Adolphe Adam
- 예술감독/최태지 Tae - ji Choi
- 무대, 의상 디자인/바체슬라브 오쿠네프 Viacheslav Okunev
- 소요시간/1막 60분 · 휴식 20분 · 2막 60분



국립발레단 수석 김주원

국내 무용수 중 가장 아름다운 '지젤 라인'을 갖고 있는 발레리나 무대를 압도하는 타고난 카리스마와 작품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현재 최고의 위치에 올라있는 인기절정의 스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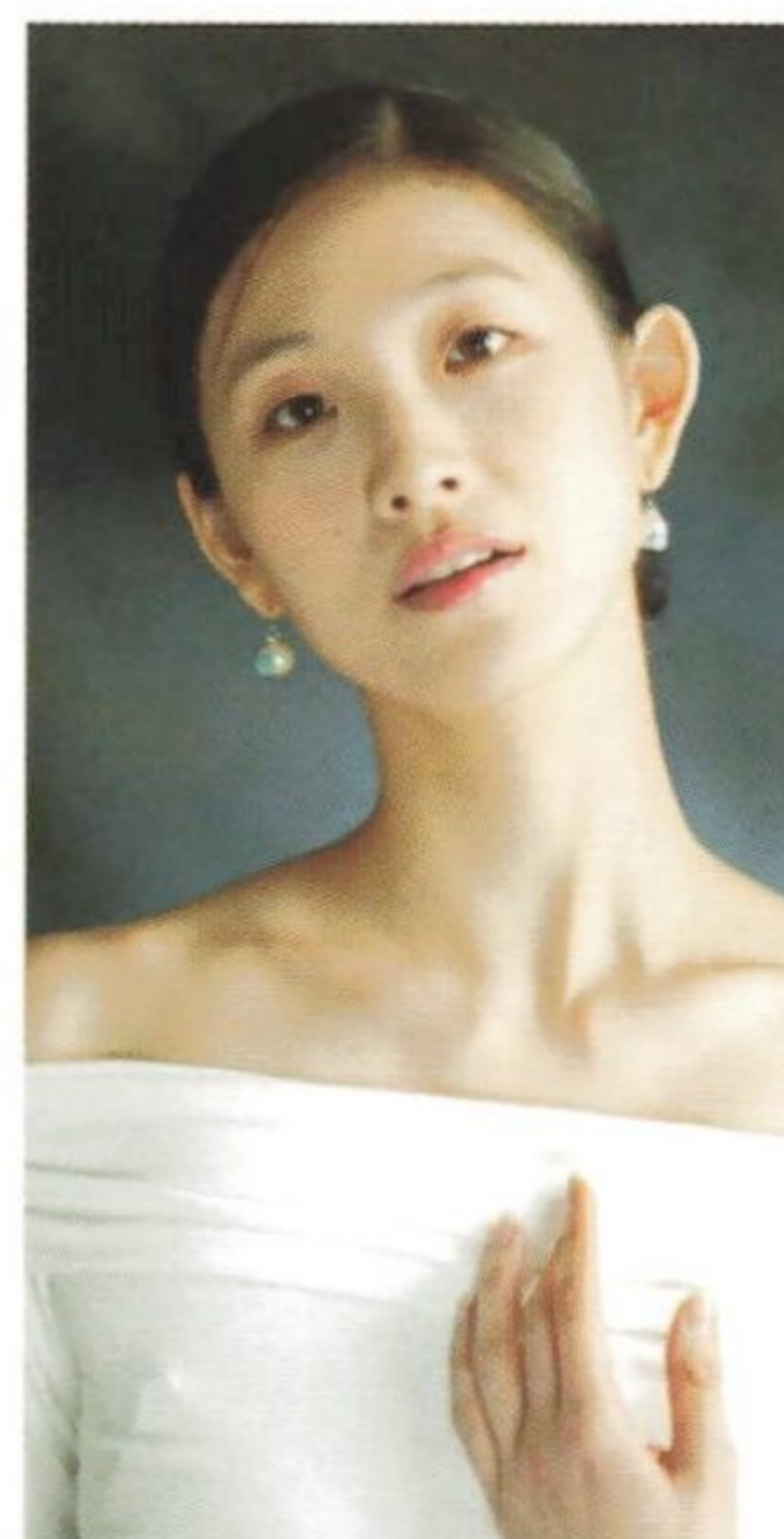
프랑스 파리오페라발레단 솔리스트 김용걸

동양인 최초 파리오페라발레단 솔리스트

힘찬 움직임과 섬세한 연기로 관객의 마음을 뒤흔드는 발레리노



- 부산예술고등학교 졸업(1991)
- 성균관대학교 무용학과 졸업(1995)
- 국립발레단 주역 역임(1999)
- 프랑스 파리오페라발레단 입단(2000)
- 프랑스 파리오페라발레단 드미 솔리스트 승급(2003)
- 프랑스 파리오페라발레단 솔리스트 승급(2005)
- 제 4회 아시아 태평양 콩쿠르 Senior Category 1위 (1993), 동아콩쿠르 1위(1994)
- 한국인 최초 모스크바 국제콩쿠르 남자 동상(1997)
- 한국발레협회 'New Face Prize' (1997)
- 프랑스 파리국제발레 콩쿠르 듀엣 부분 1위 with 김지영
- 최연소 문화훈장 '화관장'



- 국립발레단 입단(1998)
- 한국발레협회상신인상(한국발레협회 주최)(2000)
- 러시아 모스크바 국제발레콩쿠르 여자 동상(2001)
- 문화관광부 장관상(2001)
- 한국발레협회상 프리마 발레리나상(2002)
- 문화관광부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수상(2004)
- Benois de la Dance(브누아 드 라 당스) 최고여성무용가상 수상(2006)



지젤 관람포인트

카를로타 그릿지를 마리 탈리오니와 비견될, 역사에 남는 발레리나로 만들어준 작품 '지젤'은 초연부터 발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으로 칭송받아 왔다.

초연 때의 안무본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초연이 어땠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인간 처녀로서의 순진무구함과 인간성을 지닌 1막과 죽은 정령으로서의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요구하는 2막의 구성은 어떤 발레단에서도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막에서 보여주는 사랑에 빠진 순진한 처녀에서 배신당한 아픔, 죽음까지의 감정변화를 보여줘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모습과 죽은 상태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는 정령 윌리로서의 상반된 2막의 분리된 표현은 발레리나의 깊이를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젤의 변화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아돌프 아당의 음악 분위기가 특히 뛰어나다.

1막에서 불만한 춤은 알프레히트와 지젤의 파드되, 수확축제의 왕과 여왕으로 뽑힌 농부 한쌍이 추는 페전트 파드되를 들 수 있다. 2막의 중간은 발레단마다 큰 차이가 없지만 시작 장면과 마지막 장면은 각기 아이디어를 발휘해 상당히 특색이 있다. 첫 장면은 윌리의 여왕 미르타의 솔로로 시작하거나, 숲속에서 눈을 빛내고 있는 윌리들의 모습, 혹은 피아노줄을 이용해 윌리들이 공중을 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무덤이 돌아가면서 사라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지젤이 땅속으로 꺼지거나 공중으로 떠버리는 것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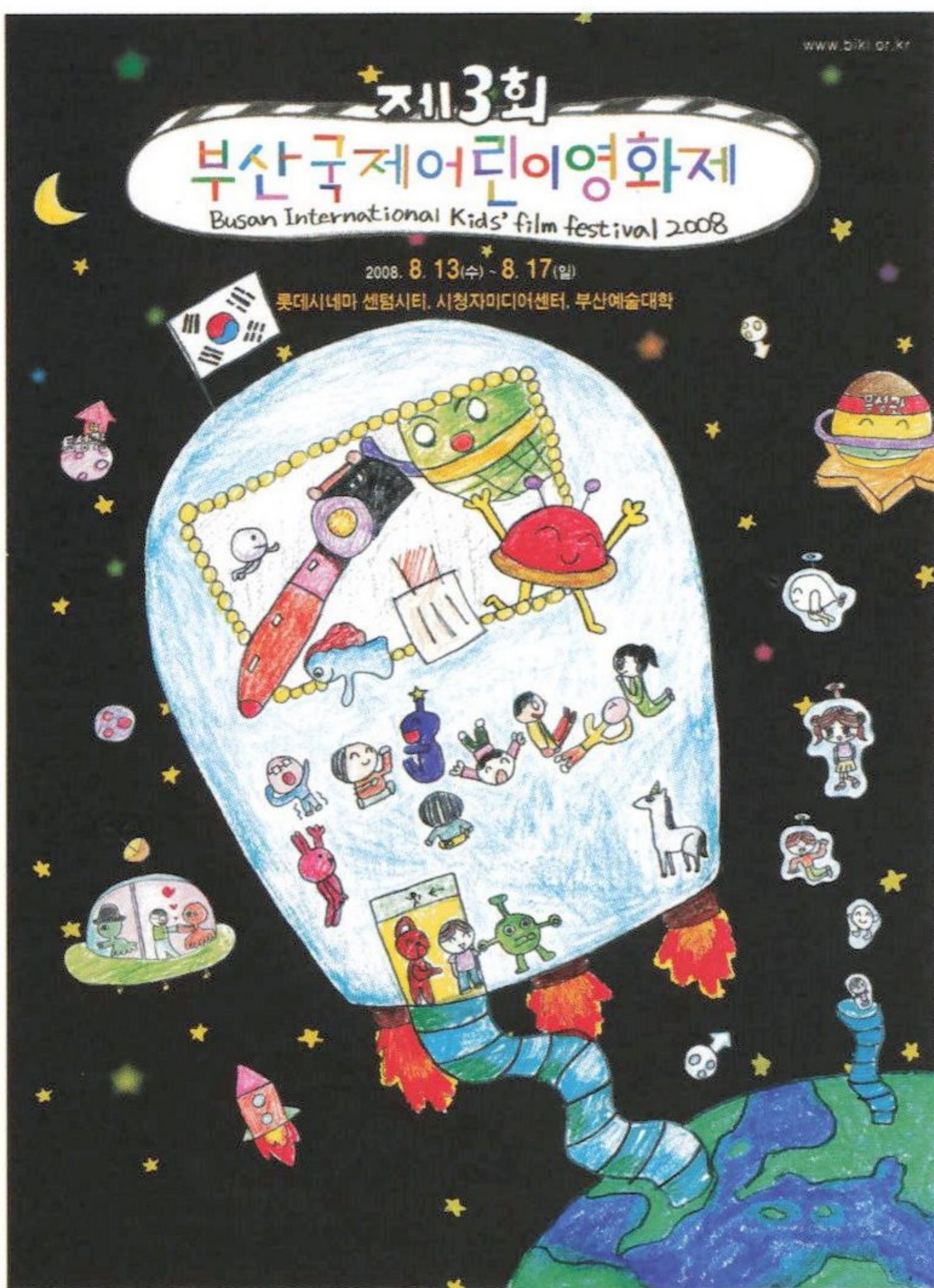
세계 모든 발레리나들이 '백조의 호수' 오데트와 함께 가장 선망한다는 배역 '지젤'은 청순하고 순박한 시골 소녀에서 사랑의 배신에 광란의 춤을 추며 자결하는 비련의 여인으로, 또 걸으면 싸늘한 영혼이지만 마음속엔 숭고한 사랑을 간직한 윌리로 시시각각 이미지 변화를 해야 하는 매력넘치는 역할이다. 국립발레단에서는 1989년 지젤을 국내 초연한 후 1999년 10년만에 새로운 '지젤'을 올렸었는데 김지영-김용걸, 배우윤-이원국, 김주원-김창기 등 쟁쟁한 세 커플이 교체 출연하여 사랑-배신의 애증, 온 몸으로 말하는 연기감동이란 찬사를 받으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입장료 VIP석 100,000원 · R석 70,000원 · S석 50,000원 · A석 40,000원 · B석 3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7월 31일까지 예약자에 한해 30% 할인, 8월 1일부터 20% 할인)
문의 부산문화회관(607-6058),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예술기획(0505-700-9798)

어린이, 영화로 꿈꾸다

제3회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개막

- 8월 13일(수)-17일(일)
- 씨네파크,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시청자미디어센터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어린이 영화축제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가 세 번째 출항의 닻을 올린다.

세계 각 국가의 어린이 영화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고 어린이들에게 좀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 열리는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는 오는 8월 13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7일까지 5일간의 장정에 들어간다. '어린이, 영화로 꿈꾸다'는 타이틀로 열리는 이번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 네덜란드, 덴마크, 러시아, 벨기에, 스웨덴, 싱가포르, 이란, 이스라엘, 일본,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 세계 14개국 초청작 110여편이 상영된다.

8월 13일 저녁 7시 씨네파크에서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개막작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장편영화 '홍길동전'이 상영된다. 이번에 상영되는 '홍길동전'은 1976년 제작된 '홍길동전'의 복원판으로, 올해 초 일본에서 16mm 판본이 발견되면서 상영되는 의미깊은 작품이다. 폐막작으로는 올해 영화제에서 관객들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과 어린이들이 직접 메가폰을 잡은 어린이 제작영화부문 수상작이 상영될 예정이다.

이번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는 비키 장편영화, 가족시네마, 특별전, 단편 및 애니메이션, 레디~액션 등 5개 섹션으로 나뉘어 상영된다. 특별전에서는 러시아 전래동화, 헝가리 전래동화, 일본미디어센터 수상작, 이란 단편 등 동구 애니메이션 특별전으로 꾸며진다. 특히 이번 영화제에서는 상영작의 상영시간을 70분 이하로 구성, 오랜시간 집중하지 못하는 어린이 관객들이 시간적 부담없이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영화제 기간동안에는 어린이 영화캠프, 영화읽기 'Film&Fun', 비키 영화놀이터 등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을 구성해 어린이들에게 신나고 흥미로운 영상매체 체험의 기회도 제공한다.

입장료 균일 4,000원(Film & Fun 티켓은 1,000원, 4인기준 가족티켓 12,000원, 15인 이상 30% 할인)
문의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743-7651, www.biki.or.kr)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친구

■ 8월 19일 화요일 오전 11:00, 오후 4:0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자 금난새의 재미있는 해설로 매 공연마다 매진을 기록하고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특별기획연주회 '클래식은 내 친구' 2008년 무대가 8월 19일 화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4시 두 차례 부산문화회관에서 펼쳐진다.

창의력 넘치는 아이디어와 재치 있는 언변으로 국내 최초의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를 시작한 금난새는 지휘자, CEO 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금난새는 현재 경희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후학 양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예술감독으로 취임하여 경기도 문화활성화에 힘 쏟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청소년음악회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꼽히는 프로코피에프 '피터와 늑대 작품 67' 과 브리튼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 작품 34' 를 들려 준다.

프로코피에프 '피터와 늑대 작품 67' 은 1936년 봄, 모스크바의 어린이 극장을 방문한 프로코피에프가 극장측으로부터 동화를 소재로 한 교향곡 작곡을 부탁받고 즉흥적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떠올려 대본을 쓴 뒤, 4일 만에 완성한 곡이다. 용감한 소년 피터는 현악 5부 합주로 묘사하고, 작은새는 플루트, 오리는 오보에, 고양이 는 클라리넷, 완고한 할아버지는 바순, 늑대는 3대의 호른, 늑대 잡는 사냥꾼의 총소리는 팀파니와 큰북으로 묘사하는 등 악기의 독특한 음색과 등장인물의 특징을 재치 있게 연결시켜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음악을 듣는 즐거움을 선사해왔다. 피터와 늑대는 특히 부산연극제 <최우수 여자 연기상>을 두 차례 수상한 바 있는 부산시립극단 배우 이현주가 나레이션을 맡아 음악의 재미를 더해준다. 총 연주 시간은 25분.

브리튼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 작품 34(퍼셀 주제에 의한 변주곡과 푸가)' 는 영국 정부가 교육용으로 관현악 해설 영화를 제작하면서 브리튼에게 작곡을 의뢰하여 탄생하게 되었

다. 오늘날에 와서는 일반 연주 무대에서도 자주 연주되는 세계적인 명곡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음악을 연주하는 사이사이 지휘자 또는 해설자가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을 하나씩 소개해감으로써 연주의 말미에 이르면 청중들은 관현악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인 소양을 갖추게 된다. 부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퍼셀의 곡에서 주제를 빌어 쓰고 있는데, 당당하고 기품 있는 퍼셀 특유의 개성이 느껴지는 주제에 이어서 목관악기, 금관악기, 현악기, 타악기가 그룹별로, 혹은 솔로로 변주부를 연주해 보인 후 마지막으로 다시 퍼셀의 화려한 푸가의 클라이맥스로 맺어진다. 총 연주시간은 19분.

입장료 균일 1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인 4매 2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08 한여름 밤의 춤 작품전

- 8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부산시립무용단원의 창작 열정이 담긴 '한여름 밤의 춤 작품전' 2008년 무대가 8월 22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올해는 윤은하(단원), 김진영(부수석), 이현주(단원)가 그동안 간직해온 자신의 작품세계를 다양한 춤 언어로 그려낸다.

첫 무대는 윤은하 단원의 '門 열어라, 꽃아'로 연다. 한 인간이 자아 정체성에 눈 떠가는 과정을 춤으로 그린 '門 열어라, 꽃아'는 <꽃아, 아침마다 開花하는 꽃아/네가 좋기는 제일 좋아도/물 낮바닥에 얼굴이나 비취는/헤엄도 모르는 아이와 같이/나는 네 닫힌 문에 기대 섰을 뿐이다/門 열어라 꽃아, 門 열어라 꽃아/벼

락과 해일만이 길일지라도/門 열어라 꽃아, 門 열어라 꽃아(이하 생략)>라는 서정주 시인의 '꽃밭의 독백'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이다.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이현숙, 박광호, 성현우, 윤은하가 출연하고 음악은 국악챔버오케스트라 '여운' 단원 강주미가 맡았다. 제 58회 정기공연 <천생연분> 주역으로 출연해 큰 인기를 모은 윤은하는 2005 한여름 밤 춤 작품전에서 '아홉고개'를 선보여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윤은하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2호 진주검무 전수자로 우리 춤의 전승에도 힘쓰고 있다.

두 번째 무대의 주인공은 부수석 단원 김진영. 김진영은 젊어서는 몸을 팔고 늙어서는 꽃을 파는 한 여인의 삶을 통해 인간애를 그린 '한송이 꽃'으로 부산무용애호가들과 만난다.

설영성의 대본을 바탕으로 이성원이 연출한 '한송이 꽃'은 안무자인 김진영이 한 여인의 삶을 무대위에서 표현하고 부산시립극단 단원 정행심이 특별출연한다. 김진영은 그동안 마당춤판 '흥부 vs 놀부', '선녀와 나무꾼', 제58회 정기공연 '천생연분' 등 부산시립무용단의 주요 작품에 주역으로 출연, 개성 넘치는 무대를 선보여 왔다. 김진영은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전수자로 우리 춤의 전승에도 힘쓰고 있다.

마지막 무대는 이현주의 '부르터나다-그네 위의 여자'가 장식한다. 부르터나다는 '감추어져 있던 일이 드러나다'는 뜻의 순우리말이다. 장현정이 대본, 조완준이 연출한 '부르터나다-그네 위의 여자'는 삭막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자화상을 춤 언어로 표현했다. 부산시립무용단 정진희(수석), 안주희, 이현주, 김공주, 박상용, 강모세, 허태성, 최의옥, 이현주가 출연한다. 지난해 한여름 밤의 춤 작품전에서 '다소다'를 선보인 바 있는 이현주는 창작무용 '절로부는...', '선묘화'를 안무, 출연한 바 있다.

· 무용감독/홍기태(예술감독 겸 수석안무자)

입장료 균일 5,000원
문의 부산시립무용단(607-6118, 612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기획 연주회

2008 팔빙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

- 8월 26일 화요일 오후 8:0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한여름밤의 무더위를 흥겨운 국악선율로 날려버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기획 연주회 '2008 팔빙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가 8월 26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수석지휘자 박호성이 매년 여름 펼치는 국내 최고의 크로스오버 무대인 '팔빙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는 국악의 경계를 넘어 전통과 창작, 거기에 타 장르와 어우러지는 멋진 무대로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이번 무대는 최고 인기 가수 이승기의 대중가요와 신명나는 타악 퍼포먼스, 그리고 정열적인 정통아르헨티나 탱고까지 다양한 춤과 노래가 어우러진 특별한 무대로, 한여름밤 시민들과 시원한 만남을 갖는다.

여는 무대로는 타악퍼포먼스 뮤지컬 '야단법석' 하이라이트 공연이 펼쳐진다. '야단법석'은 춤과 마임, 타악이 어우러지는 복합 퍼포먼스로, 사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법고, 목어, 요령, 죽비, 발우 등을 악기로 이용해 전통 풍물 장단과 빠른 템포의 현대적 리듬을 동시에 표현한 작품이다.

첫 곡인 박범훈 곡 '오케스트라를 위한 뱃노래'는 경기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에 애창되고 있는 단가를 주제로 하여 작곡된 곡이다. 5음계(라, 도, 레, 미, 솔) 구성으로 명랑한 굿거리 장단을 사용하여 새로운 아시아 민족음악이 힘찬 뜻을 울리며 나아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이어서는 국악과 어린이의 고운 소리가 어우러지는 창작동요와 국악관현악 무대가 펼쳐진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소년소녀 합창단 단원 윤연수가 출연해 통일여행, 어린이나라를 들려준다. 부흥초등학교 6학년인 윤연수는 부산교육청 주최 예능경연대회 금



상(2006년, 2007년), 경향신문 콩쿠르 1등상을 수상한 바 있다.

1부 마지막 무대는 대중가요와 국악관현악이 만나는 무대로, 요즘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가수 이승기가 출연한다. 이승기는 이번 무대에서 그의 히트곡 내 여자라니까, 추억속의 그대, 착한 거짓말을 국악관현악의 연주로 들려준다.

국악의 신명과 춤의 열정이 어우러지는 2부 무대에서는 정통 아르헨티나 탱고와 탭댄스, 타악퍼포먼스가 펼쳐진다. 국악관현악과 탱고의 만남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다다&포이즌 애플의 정통아르헨티나 탱고와 국악관현악'에서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연주하는 아르헨티나 탱고의 명곡 'Lacumparsita'에 맞춰 하재봉(다다), 김지영(포이즌 애플)의 열정적이면서도 감미로운 탱고 무대가 펼쳐진다. 한국아르헨티나탱고협회 이사, 아트탱고 대표로 있는 하재봉은 동서대학교 매스컴학부 교수로 있으면서 시인, 소설가, 문화평론가, 영화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다. 하재봉과 호흡을 맞추는 김지영은 아트 탱고 강사로 활동중이다.

이어서는ダイナ미한 선율과 율동적인 발놀림이 시선을 사로잡는 탭댄스와 국악관현악 무대가 선보인다. 이번 무대에서는 탭윙 탭댄스 컴퍼니가 출연해 Washington Square, Fly me to the moon 등 우리 귀에 친숙한 연주곡으로 화려한 탭댄스의 세계로 안내한다. 지난 2000년 8월 창단한 탭윙 탭댄스 컴퍼니는 아시안위크 초청공연(2000년), 부산연극제 초청공연(2002년), 아시아단편영화제 개막식 초청공연(2002년), 부산국제영화제 축하공연(2003년), 부산바다축제 개막식 초청공연(2004년), 고성 세계공룡엑스포 초청공연(2006년)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마지막으로는 타악퍼포먼스그룹 '야단법석'과 함께하는 국악관현악 '신모듬' 연주가 펼쳐진다. 국악관현악 '신모듬'은 사물놀이의 다채로운 장단변화를 국악관현악의 풍성한 가락과 결합시킨 곡으로, 첫 무대를 열었던 타악퍼포먼스 그룹 '야단법석'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함께 대미를 장식한다.



박호성
(수석지휘자)



이승기
(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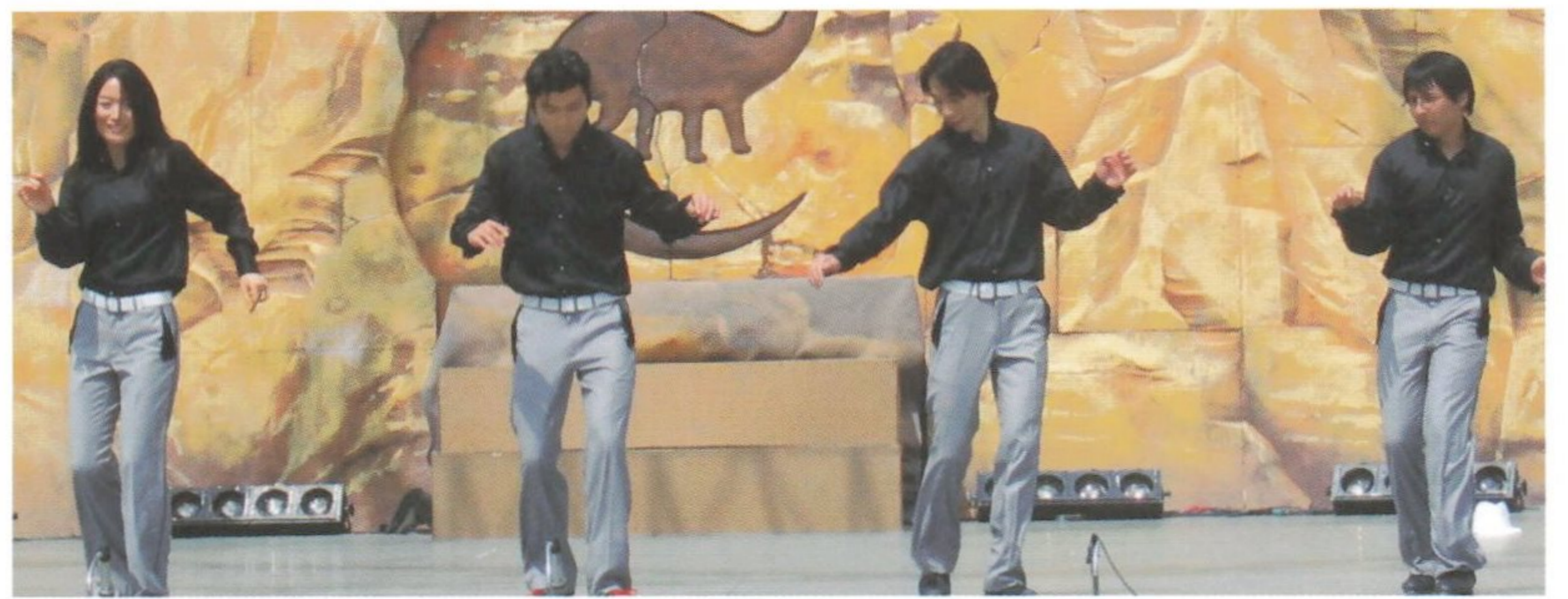
타악 퍼포먼스그룹 야단법석



윤연수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원)



다다(하재봉&
포이즌애플(김지영))



탭윙 탭댄스 컴퍼니

입장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 A석 1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R석 30% 할인됩니다. 미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 기획공연 부산문화회관과 솔오페라단 오페라 공동제작

베르디오페라 **AIDA**

2008년 9월 3일로 개관 20주년을 맞는 부산문화회관이 개관 20주년을 기념해 솔오페라단과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를 제작, 부산음악애호가들에게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개관 20주년을 축하하고 지난 20년간의 활동을 되돌아보는 축제의 장으로 부산시립예술단과 세계적인 수준의 솔리스트들이 대거 참여하는 특별한 무대이다.

유럽 음악계의 젊은 지휘의 거장 Ottavio Marino, 유럽정상급 오페라 연출가 Antonio De Lucia, 유럽과 국내를 대표하는 최정상급 성악가들이 이번 작품들을 위해 부산을 찾는다.

아이다(Aida)는 1869년 11월 수에즈 운하의 개통을 기념하기 위해 탄생된 4막의 그랜드오페라이다. 프랑스 이집트 고고학자인 오귀스트 마리에트가 쓴 시나리오를 기초로, 카미유 뒤로클이 프랑스어로 대본을 작성하였고, 이것을 근거로 안토니오 기슬란초니가 이탈리아어 대본을 작성하였다. 의뢰를 받았을 당시 베르디는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해 두 번이나 고사했지만 대본을 읽고, 작곡하기로 결심하였다고 전해진다. 1871년 12월 24일 카이로의 Khedivial Opera House에서 초연되었

고 유럽에서는 1872년 2월 8일 밀라노의 라 스칼라 극장에서 초연되었다.

고대 이집트를 배경으로 이집트의 무장 라다메스(Radames)와 포로인 에티오피아의 공주 아이다와의 슬픈 사랑을 다룬 아이다는 장중하고 화려한 음악과 호화롭고 장대한 무대장치 등 오페라 중에서도 백미로 꼽힐 만큼 유명한 대작이다. 방대한 규모 때문에 쉽게 제작 엄두를 내지 못하는 작품으로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을 기념해 부산에서 처음으로 제작되어 관심이 크다.

아이다에 참여하는 인원은 에티오피아의 공주 아이다(소프라노), 이집트 왕(베이스), 암네리스 공주, 왕의 딸(메조소프라노), 라다메스, 호위병 장군(테너), 아모나스로, 에티오피아의 왕(바리톤), 람피스 제사장(베이스) 등 주요출연진과 승녀들, 무녀들, 병사들, 관리들, 에티오피아인들, 노예와 죄수 등 무대에 오르는 엑스트라가 100여명에 이른다. 음악은 직접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연주하고 시립합창단(47명), 시립극단(20명), 시립소년소녀합창단(46명)과 신정희 발레단 등이 함께 20주년을 축하하는 역사적인 공연에 참가한다.

오페라 연습은 6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 조연급들은 6월 24일부터 부터 주 2회 연습에 들어갔고 8월 18일~27일까지 국제회의장에서 매일 연습하고 전체 총 리허설은 8월 29일부터 사흘간 진행된다.

특히 '아이다'는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화려한 캐스팅으로 많은 음악애호가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유럽정상급 오페라 지휘자 Ottavio Marino가 부산시립교향악단을 직접 지휘한다. Ottavio Marino는 이탈리아 피사 베르디극장 국제 지휘 콩쿠르에서 100명 중 1위를 수상하여 베르디 극장 시즌 오페라 '카르멘'으로 데뷔하였다. 그 동안 '시몬



보카네그라' '루치아' '라 트라비아타' '카르멘' '투란도트' '피가로의 결혼' '돈 카를로' '토스카' '나부코' 등을 지휘한 Ottavio Marino는 2005년 '가면무도회(이소영 연출)'로 한국 무대 첫 공연을 가진 이래 2005년 '파우스트' 성남아트센터기념 오페라 지휘, 2006년 예술의 전당에서 '돈 조반니(이소영 연출)'를 지휘하여 대단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연출은 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로 있는 Carlo Antonio De Lucia가 맡았다. 라 스칼라극장 음악아카데미 교수를 역임한 Carlo Antonio De Lucia는 이태리 코모 오페라 페스티벌, 바리오페라 페스티벌 총감독 등을 역임하며 이태리를 비롯한 전 유럽과 북미, 일본 등에서 연출가로 활동해왔다.

아이다 역에는 루마니아 출신 소프라노 록산나 브리반과 러시아 로스토프 온 돈 국립극장 주역가수 이리나 크리쿠노바가 열연한다. 록산나 브리반은 2000년 국제 부카레스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에서 백작부인역으로 데뷔했다. 2003년 비제의 카르멘 미카엘라 역으로 비엔나 국립오페라에서 처음 오른 그녀는 2010년까지 오스트리아 빈의 무대에서 돈조반니의 '돈나 엘비라', 라보엠에서 '미미', 피가로의 결혼에서 '백작부인', 나비부인의 '초초상'으로 많은 공연들이 계약되어 있다. 이리나 크리쿠노바는 차이코프스키의 예프게니 오네긴(타티아나), 차이코프스키의 '스페이드의 여왕(나짜)', 립스키-코르사코프의 '황제의 신부(마르파)', 비제의 '카르멘(미카엘라)', 베르디 '라 트라비아타(비올렛타)' 등에 출연하면서 성악가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암네리스역에는 로마극장 주역가수 Katja Lytting과 Larisa Demidova가 열연한다. Katja Lytting은 필라델피아의 루치아노 파바로티 콩쿠르에서 우승해서 필라델피아에서 '루이자 밀러'로 데뷔하였다. 카티아 리팅은 수많은 오라토리오와 베르디 레퀴엠을 비롯한 콘서트 성악가로서도 뛰어난 활약을 보이고 있는 가창력이 아주 뛰어난 메조 소프라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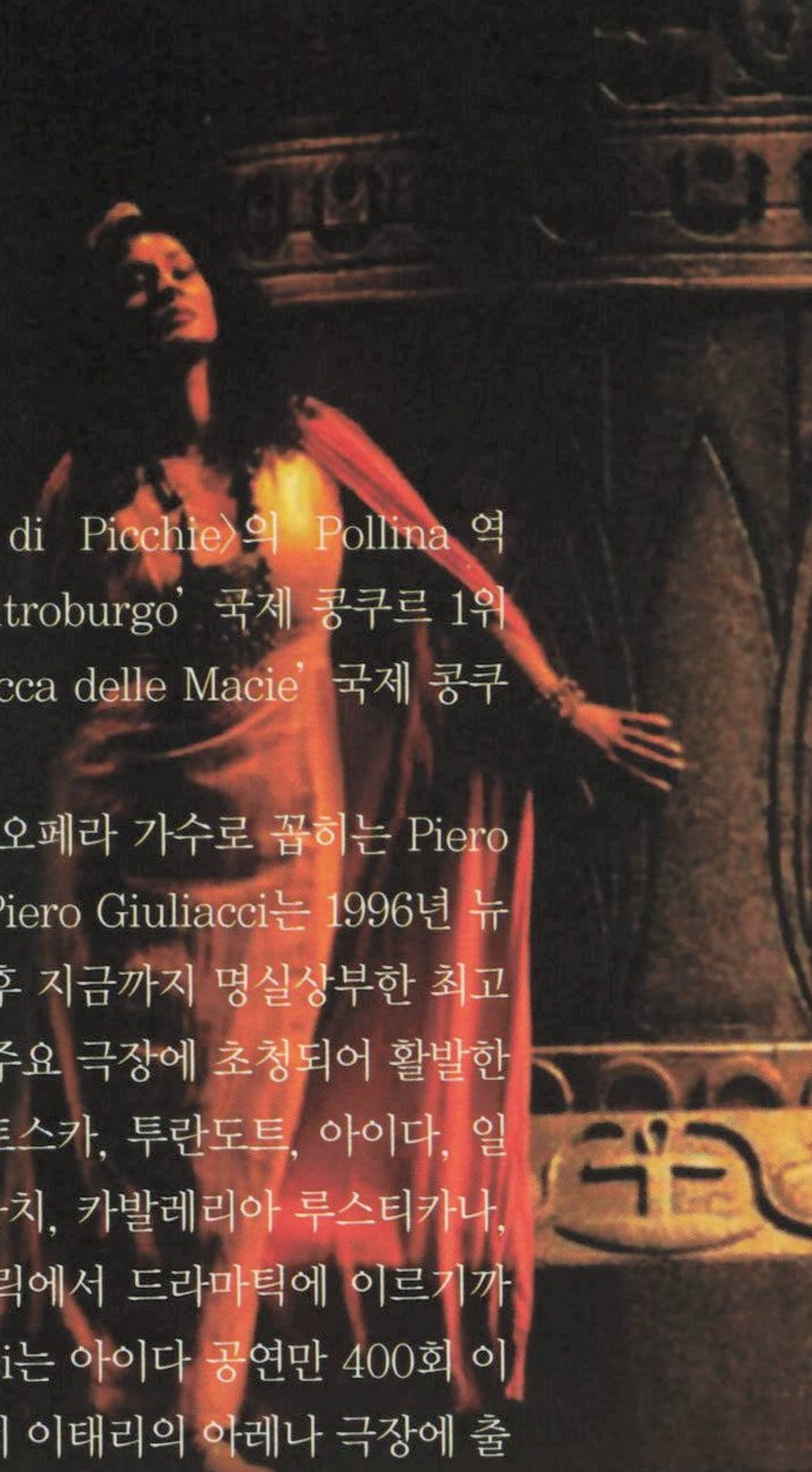
러시아 무소르그스키 국립음악원 최고 성적 졸업한 Larisa Demidova은 국립음악원 시절 이미 Ekaterinburg 오페라 극

장에서 차이코프스키의 <Dahme di Picchie>의 Pollina 역으로 데뷔했다. 러시아의 'San Pitroburgo' 국제 콩쿠르 1위 'Maria Canaglia' 'Gayarre' 'Rocca delle Macie'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하였다.

라다메스는 세계최고의 베르디 오페라 가수로 꼽히는 Piero Giuliacci와 이정원이 열연한다. Piero Giuliacci는 1996년 뉴욕 푸치니 협회 콩쿨에서 우승한 후 지금까지 명실상부한 최고의 베르디 오페라 가수로 세계의 주요 극장에 초청되어 활발한 연주 활동을 하고 있다. 라보엠, 토스카, 투란도트, 아이다, 일트로바토레,안드레 쉐니아, 팔리아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나비부인 등 그의 레퍼토리는 리릭에서 드라마틱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폭넓다. Piero Giuliacci는 아이다 공연만 400회 이상 출연하였으며 이미 2010년 까지 이태리의 아레나 극장에 출연계약이 끝난 상태이다. 서양은 물론 동경, 북경, 상하이등 동서양을 넘나들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그의 한국 첫공연에 음악 애호가들은 벌써 주목하고 있다.

프랑코 코렐리 국제 성악 콩쿠르, 마리아 칼라스 국제 성악 콩쿠르 테너 부분 1위 등 화려한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이정원은 2001~2002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오페라 하우스 '투란도트'에서 클라프 역으로 공연하여 관객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정원은 라 스칼라와 주역 가수로 2008년 오페라 '맥베드'에 한국인 최초로 캐스팅 되었다.

아모나소르는 세계정상급 바리톤 고성현이 맡는다. 한양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고성현은 푸치니, 밀라노, 슈트트가르트 국제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하고 그동안 500여회 이상 오페라 무대에서 활약해 왔다.



입 장 료 VIP석 15만원 · R석 13만원 · S석 10만원 · A석 8만원 · B석 5만원 · C석 3만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공동주최 부산광역시, 부산MBC, 부산일보사

공동제작 부산문화회관, 솔 오페라단



부산도시공사 사장 오홍석

문화가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도시 부산 건설

“세계적인 도시는 그냥 만들지는 것이 아닙니다. 외형적인 성장과 함께 정신적인 성장이 함께 따라야 하고 무엇보다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 자부심을 느끼는 그 도시 구성원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30여 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지난 5월 부산의 대표적인 공기업인 부산도시공사 신임 사장으로 취임한 오홍석 사장(56).

부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79년 행정고시 22회로 공직에 투신한 오홍석 사장은 부산시에서 문화관광국장, 교통국장, 환경국장, 경제진흥국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1992년 부산문화회관 3대 관장으로 재임하면서 개관 초기 부산문화회관의 발전을 이끈 오홍석 사장은 예술인들의 조력자로 쾌적한 공연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구성했다. 찾아가는 예술단을 비롯하여 토요일 상설무대, 어린이 놀이방, 음악자료실 등 현재 진행 중인 부산문화회관의 주요 사업들이 오홍석 사장 재임 중 시작되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부산문화회관장 재임 당시를 기억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아직도 많다.

오홍석 사장 취임 후 부산도시공사는 조금씩 변하고 있다. 사장 취임 후 그동안 부산도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들을 파악하느라 어느 때 보다 바쁘게 보낸 오홍석 사장은 현안사업들을 꼼꼼히 점검하면서 부산도시공사가 세계적인 ‘물류도시, 관광도시, 금융도시, 영상도시-부산’의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

오홍석 사장은 부산 시정을 수행해왔던 행정경험과 CEO가 가져야 하는 경영마인드를 접목시켜 부산도시공사 사장 재임 중 대규모 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시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영을 목표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부산도시공사는 1991년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라는 이름으로 처음 출발했다. 과거 택지 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 및 저소득 시민을 위한 임대 주택 관리사업을 주로 해왔으나 현재는 부산시내 23개 지구에 6조 7천억원을 투입하여 지역경제 발전의 인프라를 조성하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부산의 도시 발전 키워드는 해양, 항만, 관광, 경제, 금융입니다. 공사는 아시아의 관문이 될 항만 물류 허브 조성을

위해 3,083천㎡, 5,476억원을 투입하여 부산신항 배후부지를 조성하고 있고 동북아 관광거점 도시 실현을 위해 3,638천㎡, 9,144억원을 투입하여 세계적인 테마파크가 유치되는 동부산 관광단지과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해운대관광리조트 조성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부산도시공사는 이 외에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경제가 활발한 도시 건설을 위해 화전, 미음, 장안, 일광, 가달 등 5개 지구 8,834천㎡의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대기업을 유치하고 지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오홍석 사장은 사장 취임 후 ‘즐겁게 일하는 기업 문화 조성’을 강조해왔다. 시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시민의 기업만큼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는 오 사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사장실의 문을 개방했다. 직원들 누구나 업무로 고민하거나 좋은 제안이 있을 때 사장실을 찾아와서 토론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에서 해답을 찾아가고 있다. 관용차 대신 지하철로 출근하며 시민들 속에서 그 스스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산도시공사의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문화적인 마인드가 없으면 도시의 생명력을 잃을 수 있다고 강조하는 그는 부산도시공사가 진행하는 건축과 공간의 개발이 지역문화를 잘 담아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특히 요즘 공공시설물에 강화되고 있는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시개발과 건축물 프로젝트의 설계 단계부터 도입시켜 도시의 문화를 상징하고 도시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늘원문화상(행정부문)을 수상한 오홍석 사장은 수상의 영예만으로도 만족한다며 받은 시상금 전액을 문예진흥기금에 기탁하기도 했다.

그는 예술장르 중 특별히 합창을 좋아한다. 합창은 인간의 목소리로 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이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한다. 아름다운 합창 음악처럼 일에서도 어우러짐이 중요하다는 오홍석 사장.

“멋진 부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부산도시공사를 애정 어린 눈으로 지켜봐 달라”는 당부를 빠뜨리지 않는 오홍석 사장과 부산 시민들의 열정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부산 건설’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 보다 크다.

산 바람 강 바람

윤석중과 박태현

민립 김 상 훈 | 시인, 민족시가 연구소 이사장

“산위에서 부는 바람 서늘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여름에 나무꾼이 나무를 할 때
이마에 흐른 땀을 씻어준대요

강가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도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사공이 배를 젓다 잠이 들어도
저 혼자서 나룻배를 저어간대요.”

윤석중 작사, 박태현 작곡의 '산바람 강바람' 이란 동요이다.
찌는 듯한 삼복더위속에서도 한 줄기 시원한 바람을 몰고 올
것 같은 느낌을 주고도 남는 명 동요라 아니할 수가 없다.

초등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도 윤석중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윤석중 선생은 방정환, 윤극영, 강소천 선생과 함
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동요·동시 작가이다. 어린이의 권익
신장, 어린이의 능력개발, 어린이의 심성순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과 헌신을 다하신 선구자요, 개척자다.

우리말 동시 <어린이 노래>, <풍당 풍당>, <고추먹고 맴맴>,
<낮에 나온 반달>, <기차길 옆> 등 총 1,200편의 동요, 동시를
발표했고 이 중 800여편이 노래로 만들어졌다.

윤석중 선생의 동요와 동시는 우선 순수하고 무구한 동심의
세계를 경탄할 정도로 잘 그려내고 있고, 우리들의 생활 주변
에 있는 친숙한 소재들로 생동감이 넘치는 노랫말을 지어낼 뿐
아니라 어린이들이 상상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도록 주변 여건
을 창조적으로 유도하고 하나같이 밝고 맑고 희망에 넘치고 있
는 점이 특징이다.

선생은 1911년 5월 25일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양정고보를
거쳐 1941년 일본 조치대학(上智大學)을 졸업했으며 13살 때인
1924년 어린이잡지 <신소년>에 동요 <봄>을 발표하면서 아동
문학과 인연을 맺었다. 호는 석동(石童)이라 하고, 1932년 첫
동시집 <윤석중 동요집>을 출간했으며 소파 방정환 선생의 뒤
를 이어 우리나라 최초의 아동잡지 <어린이>의 주간을 맡았다.

주요 저서로는 <윤석중 동요집(1932)>, <잃어버린 댕기
(1933)>, <어깨동무(1940)>, <굴렁쇠(1946)>, <아침까지
(1956)>, <날아라 새들아(1983)> 등이 있고 그 밖에 동화집 <바
람과 연(1966)>, <작은 일꾼(1967)>, <열 손가락 이야기(1977)>
등도 출간했다.

3.1 문화상(1961), 문화훈장 국민장(1966), 외솔상(1973), 막
사이사이상(1978), 대한민국문학상(1982), 세종문화상(1983),
대한민국예술원상(1989), 인촌상(1992) 등을 받았고, 2003년
금관문화훈장이 추서되었다.

작곡자 박태현(朴泰鉉)선생(1907~93)의 이름을 아는 이는
드물다. 그러나 <산바람 강바람>, <코끼리 아저씨>, <달 따라가
자>등의 동요는 모르는 사람이 드물 정도로 널리 애창되어 왔
다. 선생은 평양 출신으로 호는 춘호(春湖)이다. 그는 동향출신

인 '애국가'의 작곡가 안익태 선생의 영향을 받아 일본 도쿄 동
양음악학교에서 첼로를 수업했다. 그의 스승은 스킨후미오
(金今木二三雄)와 콘스탄진 사피로였다. 고국에 돌아온 후 백
조혼성합창단을 조직하여 지휘하는 한편 1937년 7월 동요작곡
집 제1집을 발행했다. 그 후 서울중앙방송국 음악계장 및 편성
과장으로 방송활동을 하다가 한양음대, 경희음대, 숙명음대,
덕성여대 등에서 후진양성에 이바지했다.

그의 작품집으로는 동요곡집 '제1집', '제2집', '동요100곡
집' 등과 고시조(古時調), 고인시가(故人詩歌) 중에서 영웅과
무사들의 것만을 골라서 작곡한 14편의 '녹이상제(綠耳霜蹄)
'를 '고가요 신곡집'이란 이름으로 1952년 출간했다. 특히 그는
정부요청으로 '3.1절 노래', '한글날 노래'를 작곡했으며 박목
월 작사로 된 가곡 '달무리'는 소박한 노래로서 오래오래 예술
적 여운과 향기를 남겨줄 것이다.

1980년대 초 성남에 정착한 뒤, 타계할 때까지 많은 문화예
술인들의 정신적 지주로 추앙을 받았다. 애향곡 '나 성남에 살
리라'를 마지막으로 작곡할 정도로 성남에 대한 밀도 높은 애
정을 갖고 계셨다.

어디선가 어린이들의 시원한 합창 <산바람 강바람>이 들려
오는 듯 하다.





유럽 박물관의 밤 행사

이 연 기 | 프랑스 통신원,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한나라의 문화를 알 수 있는 척도는 여러 가지를 들어 알 수 있겠지만 특히 박물관 문화는 그 상징성이나 역사적 고증 자료들로 첫 번째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지난 5월 17일 저녁 6시부터 18일 새벽 2시까지 빠리에서는 잊을 수 없는 성대한 박물관의 파티가 열렸다. 이름하여 '박물관의 밤' 행사인데 올해로 이제 4회째를 맞는다 한다.

빠리에만도 60여개의 박물관이 있고 프랑스 전체에만도 1,000여개가 넘는 국립 혹은 시립미술관이 일제히 이날 함께 이 행사를 열어 그림전시는 물론이고 댄스, 연극, 낭독, 영화 등 1,940개의 다양한 행사를 열어 관람객을 맞았으며, 이 모두가 무료로 진행되었다.

예술의 나라, 문화 강국이라고 자부하는 이들의 문화적 저력을 보는 순간이었다.

유럽은 잔인한 4월의 다음에 오는 아름다운 5월이 특히나 좋은 날씨를 보이는데 이 날은 초여름과 같은 완연한 빠리의 낭만을 즐기기에 충분했다. 신선한 바람과 함께 좀 늦게까지 산책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 혹은 평상시엔 업무에 쫓겨 박물관 가기가 어려웠던 사람들, 어린이들로부터 나이든 사람들까지 박물관의 방문이 얼마나 즐겁고 유익한 시간임을 알리기 위한 특별한 목적하에 시작했다고 한다.

빠리시립부르델미술관에서는 고양이 작가로 유명한 현대 작가 '알랭 세샤스(ALAIN SECHAS)'가 직접 안내하는 특별한 행사도 있었고, 콰브랑리 박물관의 초목이 무성한 신비의 정원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해 동화를 들을 수 있었으며, 오르세 박

물관에서는 '천일야화'가, 그랑팔래에서는 소피아 코플라의 영화 '마리 앙투아네트'가 상영되었으며, 폰텐블루 성과 베르사유 궁전에서는 밤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야경에 흠뻑 젖기에 충분했다.

특히 이번 베르사유 궁전에서 '베르사유에서 백년의 영화'를 주제로 치러진 '박물관의 밤'은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모든 방의 금빛 화려한 샹들리에가 불을 밝혀 작열하고, 수많은 방에는 '마리앙투아네트', '왕은 춤춘다' 등 베르사유 궁전을 소재로 한 영화를 상영했고, 영화에서 사용되었던 루이 14세 시대의 화려한 의상전시를 비롯 백여년 간의 영화 포스터가 전시되었다.

늦은 밤 자정을 넘겨가면서 까지 하프 음악회가 이어졌으며 가족동반 관람을 한 부모뿐만 아니라 어린이들까지도 늦은 시간이라는 것을 잊으며 태양왕 루이 14세의 궁정생활을 음미하는 즐거운 시간들이었다.

이 행사는 2005년 프랑스 문화부 장관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이제 프랑스를 넘어 유럽 40여 개 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국제적 행사로 자리 매김을 했고, 올해는 북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덴마크가 처음 참가를 했다한다.

어이없는 화재로 국보 제 1호를 잃은 우리의 문화제 사랑(?)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그저 아직은 우리가 너무 멀게만 느껴짐에 프랑스 문화부의 행정의 그저 부럽기만 하다.





〈北大荒的早晨〉套色木刻



〈雪恋〉套色木刻, 1994



〈松谷〉套色木刻, 1984

중국을 보는 또 하나의 창 '차오메이' 목판화



채 경 혜 | 한국판화예술연구원 대표

1950년대 중국 정부는 부족한 식량을 해결할 목적으로 중국 북동부 개발정책에 따라 매캐한 북극의 흙냄새 속에 쑥만이 무성했던 북대황에, 집단적이고 정책적인 대 이주를 감행했다. 1947년 퇴역군인들이 처음 들어온 후, 1955년에 10만 명의 전업군인들이 북대황으로 투입되었으며, 한국전쟁에 참가했던 중국인민지원군부대 중 일부도, 휴전 후 북대황으로 향했다. 이들 이주민 중 일부 예술인들의 주경야각(晝耕夜刻)은 북대황 판화라는 새로운 세계를 살아 숨 쉬게 했다.

뛰어난 북대황판화작가는 많지만 그 중 차오메이(晁楣)와 장

쭈오리양은 북대황판화 작가 중 제 1세대 작가다. 특히 차오메이는 스케일이 크고 웅장한 구도와 호방한 도법, 정교한 목판화기법으로 유명하다. 그의 대표작은 〈第一道脚印〉〈北方九月〉〈追踪〉〈森林之夜〉〈松谷〉〈春醒〉〈路漫漫〉〈新居〉 등으로 대자연에서 얻은 느낌과 인간의 삶의 모습을 극도의 절제를 통해 표현함으로써 예술과 생활이 어떻게 접목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산둥성 하택시에서 출생한 차오메이(1931.4~)는 1949년 중국인민해방군에 입대하여 2야군문화공단미술대(2野軍文化工團美術隊)에서 미술선전 공작에 종사하였다. 그리고 1958년 제대한 후 북대황 개간지에서 변경수비를 지원하여 재입대하면서 북대황과의 인연은 본격적으로 맺어지게 된다. 북경에서의 전시를 계기로 중국미술협회에서의 파격적인 지원을 받아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며, 다른 1세대작가들과 함께 1962년 하얼빈에 정착하여 전문적인 창작활동에 뛰어들었다.

1960년대 초, 북경에서 열린 〈흑룡강판화군체작품전람회〉는 당시 중국 미술계를 뒤흔든 일대 사건이었다. 당시 언론에는



〈黑沼泽〉套色木刻, 1989



〈极地〉套色木刻, 1995

“한 무리의 젊은 판화가들이 참신한 회화 언어로 북대항 개간 지구의 군인과 민간인이 변방을 개간하는 장면을 장대하게 표현하였는데 현란한 색채, 넓디넓은 벌판, 불같이 뜨거운 전경으로 구성된 격정의 화면이 천하를 통일하였다. 그때부터 중국 미술사에 북대항판화가 탄생하였고 이들 중 차오메이는 가장 특출하였다고 기록하였다.

그리고 2005년 8월 24일자 흑룡강일보는 창간 60주년을 맞아 〈북대항판화의 창시자 차오메이, 그의 조각도는 검은 땅에 영광이 생기게 하였다〉는 헤드라인으로 시작되는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1962년 흑룡강성미술협회에서 전문창작활동을 시작한 이래로 현대에 와서 북대항판화의 창시자로 인정받았으며, 북경중앙미술학원, 노신미술학원 등의 대학에서 여러 차례 교수직을 제의받았으나 완곡하게 고사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의 피카소라고 칭송받는 치바이스(齊白石)가 고향에서 조각과 그림을 그리다 57세의 늦은 나이에 후배 이가염(李可染)의 추천으로 북경으로 와 중앙미술학원 교수가 된 것과는 대조된다.

차오메이의 작품 99%는 흑룡강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다. 차오메이는 “이 뜨거운 흑룡강성의 흙이 북대항판화를 만들게 하였는데 어찌 떠나겠는가! 밤낮을 흑곰과 이리 떼가 출몰하는 황야에서 집을 짓고, 땅을 갈며, 밤에는 예술 창작에 몰입하였던 그 시절은 소중한 것이다”라고 회상한다. 그의 회상처럼 그의 예술적 뿌리는 흑룡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의 마음속에 일생 중 가장 귀하고 잊을 수 없는 시절은 바로 땀을 비 오듯 흘리며 황무지를 개간하던 어려웠던 시절의 창작활동이었다. 그는 이 시절을 힘들게 여기지 않았으며, 인민과 땅에 익숙해지면 질수록 노동의 격정과 수확의 기쁨을 동시에 강렬하게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문화대혁명(1966-1976) 시절 차오메이를 비롯한 북대항 판화가들을 약 10년동안 창작도 하지 못하고 침묵하여 고초를 겪어야했다. 문화대혁명을 주도하던 이들은 자연이 아니라 대자연과 투쟁하는 인간의 능름한 기상만을 원했지만 북대항판화가들은 이미 대자연의 아름다움에 흠뻑 취해 있었기 때

문이다. 당시는 모택동의 대약진운동시기였던 만큼 자연의 직접적 묘사는 금지되고 인간만을 표현해야만 했었다. 그러나 비록 북대항 초기 판화가들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표방하면서 황무지에 뛰어난 인간과 그들의 노동을 그리면서 출발했지만, 북대항 판화가들에게는 이미 그 자체가 자연의 일부였던 것이었다.

이러한 반문화적인 아픔이 어디 미술 쪽에만 있었겠는가? 오늘날 패왕별희같은 베이징의 대표적 문화 아이콘인 경극(京劇)도 그 당시에는 전통사회의 유물로 분류되어 호된 비판의 칼날을 받았다. 당시의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인생(1994년, 장예모 감독, 칸영화제 심사위원 대상), 패왕별희(1993년, 첸 카이거 감독,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등의 중국영화에서 개인의 인생유전을 통해 잘 표현되어있다.

북대항판화의 탄생과 발전에는 특정한 환경과 역사적 배경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상당히 진보적이었다. 또한 오랜 세월 민중들의 사랑 속에 가정, 거리, 노동현장마다 함께 함으로써 생활 속의 미술장르로서 안착되었으며, 동시에 이념의 교화라는 사회적 기능까지 담당하였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예술이 발전함에 따라, 변화는 필수적으로 요청되었다.

1980년대 들어 북대항판화는 초기의 유인(油印)판화에서 수인(水印)판화로 변화의 모색하면서 주로 대자연의 서정성을 표현하는데 즐겨 쓰였던 중국화 특유의 수채화 톤을 과감하게 판화 묘사에 적용한다. 담백한 수인판화는 보는 이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감성과 고품격의 이미지를 동시에 선사하였다. 또한 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며 해외 여러 나라에 알려지면서 국제아트페어에 진출하였으며 하얼빈을 중심으로 인접한 길림성, 요령성 등으로까지 점차 영향을 미쳤다.

북대항판화의 생명력은 끈질기다. 그들 앞 세대가 그랬듯이 북대항판화의 역사는 계속되어 문화대국 중국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창(窓)으로 남게 될 것이다.

현재 차오메이는 77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흑룡강성 판화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판화창작과 이론 및 중국화와 서법연구에 전심하면서, 당면한 북대항판화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새 생명력을 배양해야하는 것으로 보고 변함없이 노력하고 있다.

MOVIE IN THE BOX

우리나라 최초의 SF영화모형 박물관



- 관람시간 : 오전 10:00~오후 6:00(매주 월요일 휴관)
- 관람료 : 일반 5,000원 · 어린이(만 4세~초등학생) 3,000원
- ☎ 문의 : SF 영화모형 박물관 MOVIE IN THE BOX(Tel. 051-747-2153)



아시아 최대 영상문화도시를 꿈꾸는 부산에 색다른 문화공간이 등장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SF 영화모형 박물관인 'MOVIE IN THE BOX'가 바로 그곳. SF영화의 고전 '스타워즈' 시리즈에서 부터 최근 새로운 시리즈 개봉을 앞두고 있는 배트맨, 터미네이터까지 SF영화의 모든 것이 전시된 SF영화 매니아들을 위한 공간이다.

'MOVIE IN THE BOX'는 SF영화 매니아인 치과의사 배기선 씨의 꿈과 노력으로 탄생했다. 어린시절 만났던 영화 '스타워즈'에 빠지면서 SF영화와 인연을 맺은 그는 한걸음 더 나아가 영화 속 모형을 수집하고 직접 제작까지 하는 등 본격 매니아의 길로 들어섰다. 이런 배기선 씨의 오랜 영화사랑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이 바로 'MOVIE IN THE BOX'이다.

지난 7월 1일 개관한 'MOVIE IN THE BOX'는 해운대 바닷가와 가까운 그랜드호텔 인근 건물 6층에 자리잡고 있다. 출입문을 열고 들어서면 섬뚱한 붉은 시선의 터미네이터 모형이 관객들을 제일 먼저 맞는다. 90여명의 전시관은 입구의 '스타워즈'관을 시작으로 터미네이터, 에어리언, 슈퍼맨, 매트릭스 등 각 영화별로 구분되어 있다. 이곳에는 각각의 영화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피규어(영화 속의 캐릭터들을 축소해 거의 완벽한 형태로 재현한 인형)와 레플리카(영화속에 사용된 여러 가지 장비나 차량, 우주선 등을 정밀하게 축소시킨 모형)가 뺄뺄이 전시되어 있다.

현재 이 곳에 전시된 모형은 1,100여점. 우선은 그 엄청난 규모에 놀라지만, 꼼꼼히 들여다 보면 시중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진귀한 모형에 두 번 놀라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단 한대뿐인 초대형 스타워즈의 밀레니엄 팔콘 디오라마(실사모형)를 비롯해 정교한 뇌의 형상이 그대로 보이는 투명 에어리언의 머리, 그리고 실제 SF영화의 특수촬영에서 사용된 스튜디오 스케일 사이즈의 대형 우주선 모형 등 전세계에서 한정 생산된 정교한 SF모형들이 관람객의 발길을 잡는다.

또, 각 전시관에서는 그 영화의 가장 유명한 하이라이트 장면이 모니터를 통해 상영된다. 관람객들은 영화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들과 로봇, 우주선 모습을 모니터 아래 전시된 모형을 통해 직접 비교해볼 수도 있다. 전시장 한편에는 직접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모형들도 따로 전시되어 있어 관람객들의 아쉬움을 달래준다.

“SF영화는 환타지 영화와는 달리 허황된 이야기가 아닌, 다양한 과학적 지식을 배경으로 만들어지는 영화입니다. 제가 어린시절 SF영화를 통해 꿈을 키워듯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과학적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전시품을 더욱 확대해 SF영화 매니아들이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영화박물관을 만들고 싶다는 배기선 씨. 오는 10월 개최되는 제 13회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에는 SF박물관 이동부스를 설치, SF영화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간다는 계획으로 마음이 설렌다.

부산환경공단 직원 동호회

얼씨구 문화 좋고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음악회 '아름다운 시, 아름다운 음악'이 열렸던 지난 7월 15일, 공연장인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앞에 하나 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오늘은 부산환경공단 사내 동호회인 '얼씨구 문화 좋고(이하 얼씨구)' 특별모임이 있는 날. 어느 정기모임때도 회원들의 참석율이 좋지만, 오늘 모임은 참석율 100%를 자랑한다. '얼씨구'의 회원 모두가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인데다, 특별히 이번 공연을 부산환경공단에서 협찬해 그 어느때보다 공연관람에 흥이 났다.

부산환경공단 사내동호회인 '얼씨구'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관람과 전통문화체험을 위해 지난 2월 결성됐다. 경영혁신팀의 전병웅씨를 회장으로 현재 김병문, 최경희, 김경희, 문주영, 이현태, 강상숙, 김선남, 박병제, 김현석, 변기수, 김정미, 박종준 등 13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부산환경공단 내 12개의 동호회가 있지만 문화와 관련된 동호회는 '얼씨구'가 전부이다. 첫 정기모임은 지난 4월 5일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관람한 공연은 부산시립극단 제 31회 정기공연 '한 여름밤의 꿈' 이어 5월 정기모임에서는 부산시립합창단 특별공연 '아직도 못다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관람했다. 아직까지는

정통 클래식무대가 낯선 회원들이 대부분인데다, 바쁜 직장생활로 잊고 지냈던 젊은 날의 추억을 당시 즐겨듣던 가요를 통해 되돌아볼 수 있는 특별한 무대라 참석 회원들의 호응이 좋았다.

예술단 정기공연이 일제히 무대에 올려졌던 6월에는 시립교향악단의 무대를 찾았다. 열정적인 라틴음악과 재즈를 교향악단 연주로 감상할 수 있었던 자리로, 유명 기타리스트인 이병우 씨를 무대에서 볼 수 있어 더욱 기억에 남는 무대였다고. 7월 정기관람 공연으로 선택된 공연은 화제의 뮤지컬 '화성에서 꿈꾸다'. 지역 공연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큰 스케일의 대형무대와 주인공인 민영기 씨의 연기가 인상적이었다는 평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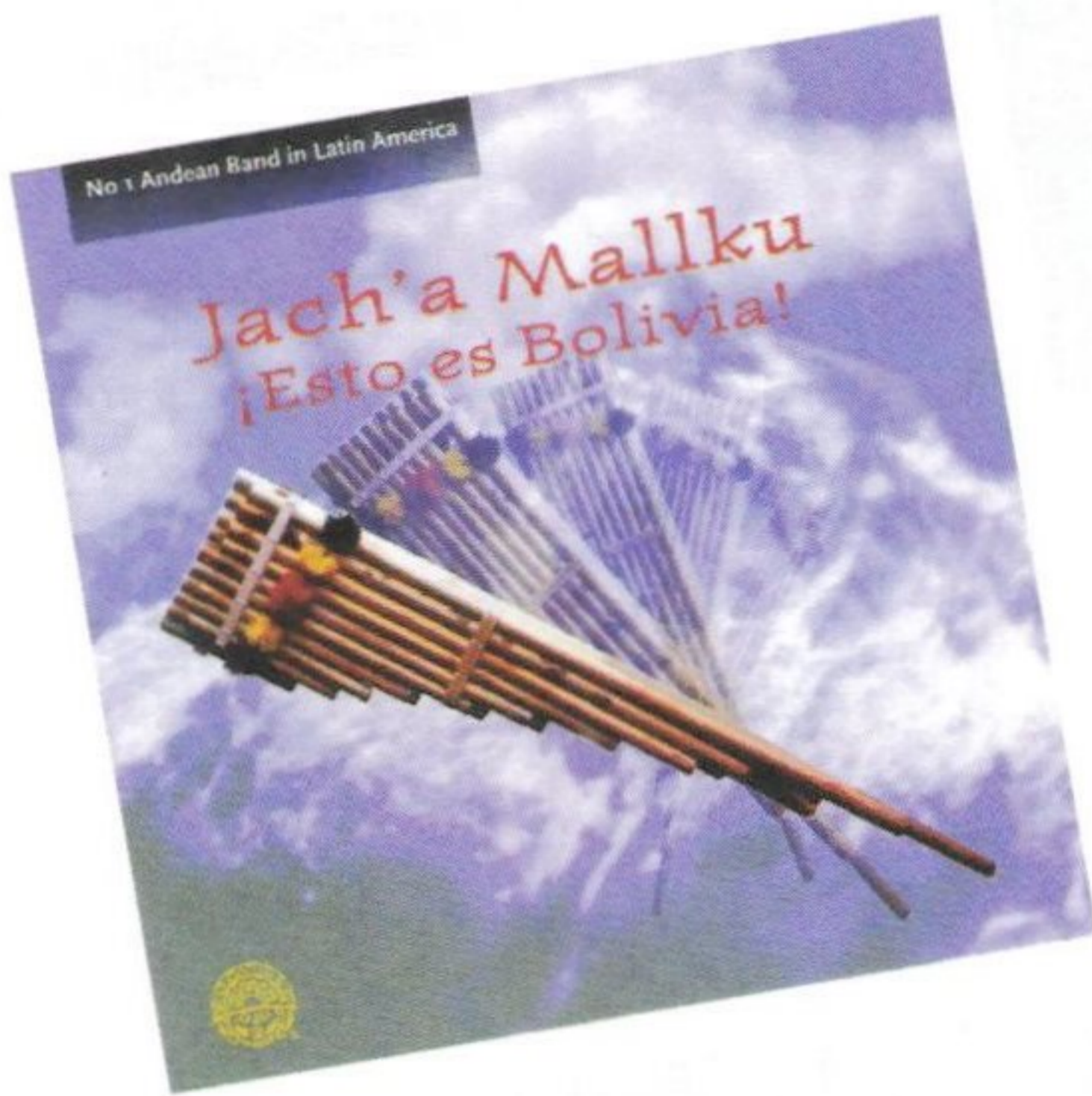
"문화활동과 함께 직장동료들간에 우애와 화합도 다질 수 있어 매달 정기모임이 기다려진다"는 전병웅 회장. 특히 회원 가족들까지 참여해 문화생활을 함께 즐길 수 있어 요즘 가장으로서 어깨 힘이 들어간다는 그는 앞으로 공연관람 뿐 아니라 우리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동호회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7월에는 가까운 밀양에서 열리는 여름예술공연축제에 온 가족이 함께 참가할 계획이라 벌써부터 마음이 설렌다.

안데스 III

안데스의 전통 악기들

황 윤 기 | 음악 칼럼니스트, 국악방송 '황윤기의 세계음악여행' DJ



‘하늘까지 이어지는 발’이라는 의미를 지닌 안데스에는 잉카 문명 이전에도 수 천 년에 이르는 그들만의 역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안데스의 인디오

들은 특정 문자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그들에게 음악은 가장 중요한 감성표현의 도구였을 것이다. 또한 그 속에는 그들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다고도 할 수 있는, 하나의 기록의 수단이었을 것이다. 원래 풍류를 즐기는 민족이어서 누구나 악기 하나쯤은 다룰 줄 알았다고 한다. 이처럼 안데스 인디오들의 가장 중요한 문화 중의 하나가 음악이었기에, 스페인의 정복자들은 문화 말살 정책으로 금지시키려고 했다. 페루에서는 잉카 고유의 악기를 악마의 도구로 규정하고 모든 악기들을 수거해서 불태우는 경악할 만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고, 악기를 만드는 자나 연주하는 자를 처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디오들은 끈질긴 생명력으로 전통의 끈을 이어왔다. 잉카 이전부터 연주해 오던 악기들과 스페인으로부터 들어온 악기를 개량한 것까지, 현재의 안데스 음악을 세계인들에게 각인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해 온 악기로 ‘계나(Quena)’ ‘시꾸(Sicu)’ ‘차랑고(Charango)’ ‘봄보(Bombo)’ 등을 들 수 있다.

계나는 안데스의 피리로 안데스 인디오들의 민족 악기로 손꼽힌다. 기원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역사를 가진 악기이며 주로 야마를 보살피는 목동들이 만들어 불었다고 전해진다. 현재는 목재가 주로 쓰이지만, 옛날에는 동물이나 사람의 뼈로 만들었다고 한다. 안데스의 장례는 주로 풍장(風葬)이었는데, 에콰도르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 뼈를 깎아 만든 계나를 연주했다고도 한다. 계나는 도시와 농촌 어디에서나 눈에 띄는 안데스의 가장 보편적인 악기이며, 의식과 축제 등 안데스의 모든 행사에 등장하는 악기이기도 하다. 쓸쓸하면서도 깊은 음색을 지닌 계나는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시인들과 음악가들에게 영감을 주어왔다.

스페인어로 삼뽀냐(Zampona)라고 불리는 시꾸는 ‘안데스의 팬파이프’라 할 수 있는 악기이다. 계나와 함께 안데스 음악을 대표

하는 관악기로 계나 보다는 바람소리가 더 많이 들어가 투박한 음색을 가지고 있다. 잉카 문명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는 티티카카 호수 주변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진 오래된 악기로 발생 지역과 크기, 또는 악기 특성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다. 몸집이 큰 지역의 시꾸는 반음계를 연주하기 위해 두 명의 연주자에 의해 연주되기도 하는데, 이는 오래전부터 상부상조하며 생활을 해 온 안데스 인디오들의 공동체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안데스 음악의 사운드를 특징짓는 또 하나의 중요한 악기인 차랑고는 스페인에서 전해진 기타를 모방해서 만든 유일한 현악기이다. 잉카 문명의 중심지였던 페루와 볼리비아에서 주로 연주되었던 차랑고는 다섯 쌍의 현을 가진 작은 탄현악기로, 현의 길이가 짧고 울림통의 두께가 얇아서 대단히 선명하고 찰랑거리는 음색을 지니고 있다. 지금은 울림통 전체가 나무로 만들어지고 있지만, 원래는 안데스에 서식하는 포유류인 아르마디요라는 동물의 가죽으로 울림통의 뒷부분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악기를 ‘노래하는 작은 동물’이라 부르기도 했다. 주로 리듬을 담당하며 안데스 음악에 빠져서는 안 될 감초 같은 역할을 하는데, 계나나 시꾸 등 관악기가 없는 부분의 연주에서 안데스 음악임을 알 수 있게 해주기도 한다. 현재 차랑고는 잉카의 전통이 담긴 음악에서만 아니라 남미 곳곳의 포크 음악에서 다양하고 폭넓게 사용되면서 ‘라틴 아메리카의 영혼을 담아내는 악기’로 사랑받고 있다.

안데스의 전통 타악기 봄보는 안데스 지역에 서식하는 야마의 가죽으로 만든 북이다. 지름이 좁은 통나무 양쪽에 야마 가죽을 씌워서 만들며, 울림이 깊고 소리가 멀리 가는 악기이다.

지금 현재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안데스의 음악들은 잉카 문명이 번영을 누리던 당시의 음악이라고 볼 수는 없다. 안데스 인디오 고유의 음악에 유럽 음악의 영향이 강하게 반영된, 다분히 현대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여운을 남기는 안데스 음악의 전통악기들은 안데스 사람들의 소박한 정서와 뼈아픈 역사를 통해 쌓인 한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금난새와 함께하는 클래식은 내친구

대극장 8월 19일 화요일 오전 11:00, 오후 4:00

지휘자 금난새의 재미있는 해설로 매 공연 마다 매진을 기록하고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특별기획연주회 '클래식은 내 친구'.

창의력 넘치는 아이디어와 재치 있는 언변으로 국내 최초의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를 시작한 지휘자 금난새는 지휘자, CEO 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도 활

발한 활동을 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현재 이번 무대에서는 청소년음악회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꼽히는 프로코피에프 '피터와 늑대'와 브리튼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프로코피에프/피터와 늑대 작품 67

브리튼/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 작품 34

- 지휘/금난새(경희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예술감독)
- 나레이션/이현주(부산시립극단 단원)

- 관람료 균일 1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인 4매 20% 할인)
-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08 한여름 밤의 춤 작품전'

중극장 8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시립무용단원의 창작 열정이 담긴 '한여름 밤의 춤 작품전' 2008년 무대.

올해는 윤은하(단원), 김진영(부수석), 이현주(단원)이 그동안 간직해온 자신의 작품세계를 다양한 춤 언어로 그려낸다.

작품

- 門열어라, 꽃애(안무/윤은하 · 음악/강주미 · 출연/이현숙, 박광호, 성현우, 윤은하)
- 한송이 꽃(안무, 출연/김진영 · 대본/설영성 · 연출/이성원 · 출연/김진영 · 특별출연/정행심)
- 부르터나다-그네 위의 여자(안무/이현주 · 대본/장현정 · 연출/조완준 · 음악/조호영 · 출연/정진희, 안주희, 이현주, 김공주, 박상용, 강모세, 허태성 외)
- 무용감독/홍기태(예술감독 겸 수석안무자)

- 관람료 균일 5,000원
- 문 의 부산시립무용단(607-6118, 6120)

김효진 피아노 독주회

8월 7일 목요일 오후 3:00 소극장



창원대학교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 The Music Conservatory of Westchester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김효진의 독주회.

김효진은 미국 뉴욕 카네기홀 독주회를 비롯해 서울 금호 귀국 독주회 체코 야나체 챔버 오케스트라와 협연 무대 등을 통해 음악 애호가들과 만나왔다.

프로그램

드뷔시/아라베스크

쇼팽/스케르쑈 제 2번 작품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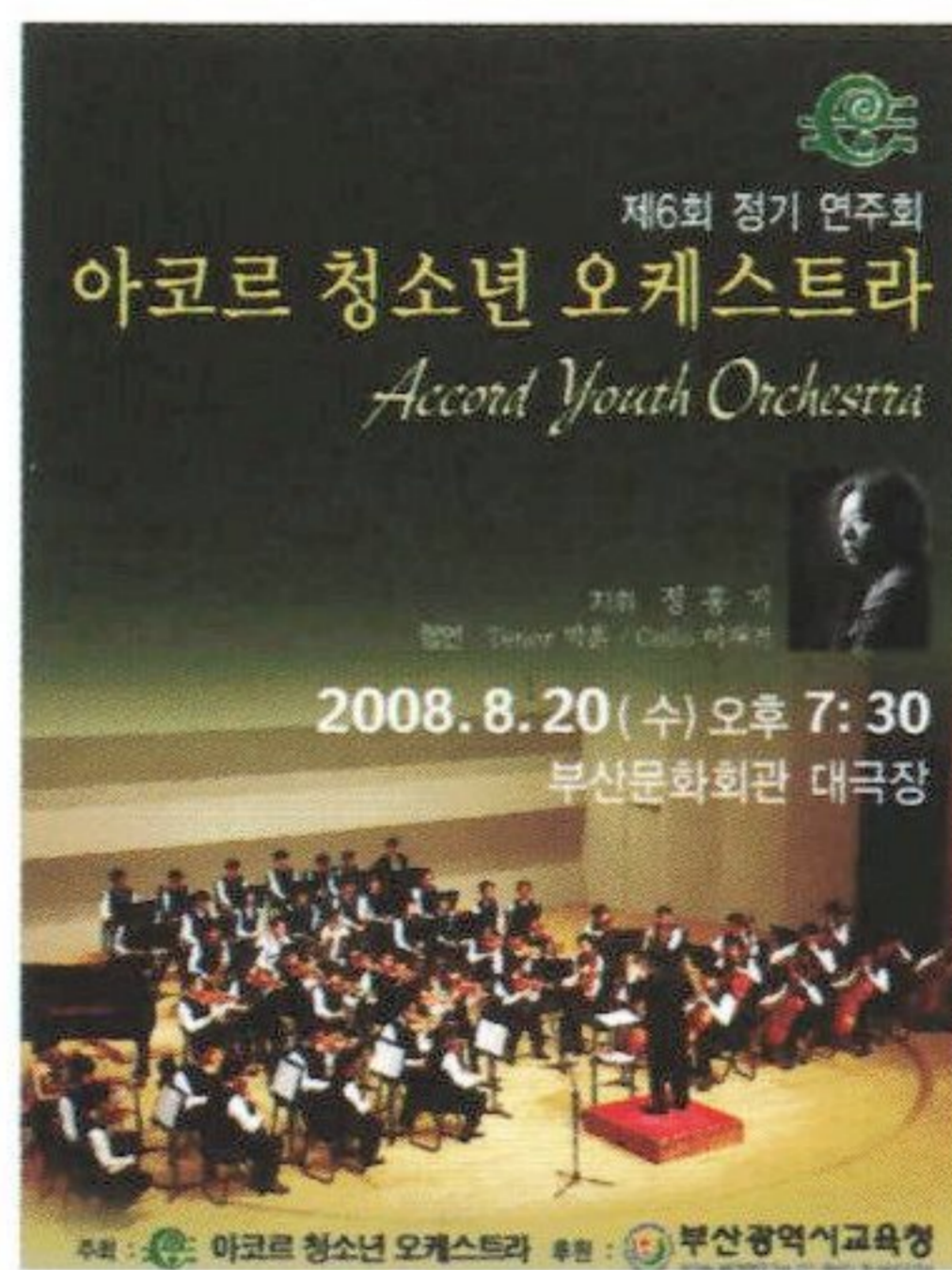
모차르트/소나타 제 3번 K 281 등 수곡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 의 심선엽(010-7120-3042)

아코르 청소년 오케스트라 제6회 정기연주회

8월 20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2002년 9월 음악에 관심 있는 부산의 청소년들로 창단된 아코르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제 6회 정기 연주회.

매년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야외음악회, 자선음악회, 초청연주회 등을 통해 사회 봉사활동을 함께 하고 있는 아코르청소년 오케스트라는 국제 교류의 일환으로 일본 키타큐슈와 북경 연주회를 가지기

도 했다.

프로그램

아라디에르/La Palaoma

하이든/첼로 협주곡 제1번 다장조, 교향곡 제 96번 '기적'

아코르와 함께 하는 영화음악/영화 모정 중 '사랑은 아름다워라', Kiss the Rain

· 지휘/정홍기 · 특별출연/테너 박훈

입장료 초대

문 의 아코르청소년오케스트라(016-854-8966)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선사하는
여름특선 무대
2008 팔빙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

8월 26일 화요일 오후 8:00 대극장



국립발레단 초청-특별게스트 발레리노 김용걸 지젤 Giselle

대극장 8월 23일 토요일 오후 7:30
24일 일요일 오후 4:00

2008년 여름,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발레리노 김용걸이 지난해 백조의 호수에 이어 대표적인 낭만 발레 '지젤'로 다시 고향 부산의 팬들을 찾아온다.

1841년 초연된 '지젤'은 시골처녀 지젤이 평범한 시골청년으로 가장한 귀족 알브레히트와 사랑에 빠지지만 상대로부터 배신당한 충격으로 죽은 후에도 사랑을 위해 헌신한다는 내용의 낭만 발레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1998년 국립발레단에 입단, 2006년 무용계의 아카데미상이라 불리는 '브누아 드 라 당스'를 수상하고 섬세한 동작과 정서적 표현이 탁월한 발레리나 김주원과 한국인 최초로 모스크바 국제 무용 콩쿠르 남자 동상수상, 파리 국제무용 콩쿠르 1위를 수상하고 '동양인 최초 파리오페라 발레단 솔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걸이 출연한다.

· 안무/장 코랄리, 질 페로 · 음악/아돌프 아당 · 예술감독/최태지

※본 캐스팅은 국립발레단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관람료 VIP석 100,000원 · R석 70,000원 · S석 50,000원 · A석 40,000원 · B석 3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7월 31일까지 예약시 30% 할인, 8월 1일부터 20% 할인)

■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예술기획(0505-700-9798)



몸의 학교(EI Colegio del Cuerpo) - 현대 무용

중극장 8월 23일 토요일 오후 8:00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서점, 인디고 서원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주최하는 국제행사 '2008 인디고 유스 북페어' 행사 일환으로 펼쳐지는 콜롬비아 몸의 학교 (EI Colegio del Cuerpo) 부산공연.

몸의 학교는 1993년 보고타 고등예술아카데미의 디렉터로 재직중이던 콜롬비아의 안무가 알바로 레스트레포와 프랑 Angers의 국립현대무용센터의 연구 디렉터로 재직 중이었던 프랑스 안무가 마리 프랑스 들뢰벵에 의해 창단되었다. 안무가이자 무용가로서 국제적 명성을 쌓으며 미주와 유럽에서 활동하던 알바로 레스트레포는 고국 콜롬비아의 현실 속에서 예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던 중 사회에서 소외되고 상처받은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 무용 교육을 하기로 하고 동료 안무가 마리 프랑스가 뜻을 같이 하게 되면서 '몸의 학교Colegio del Cuerpo'가 탄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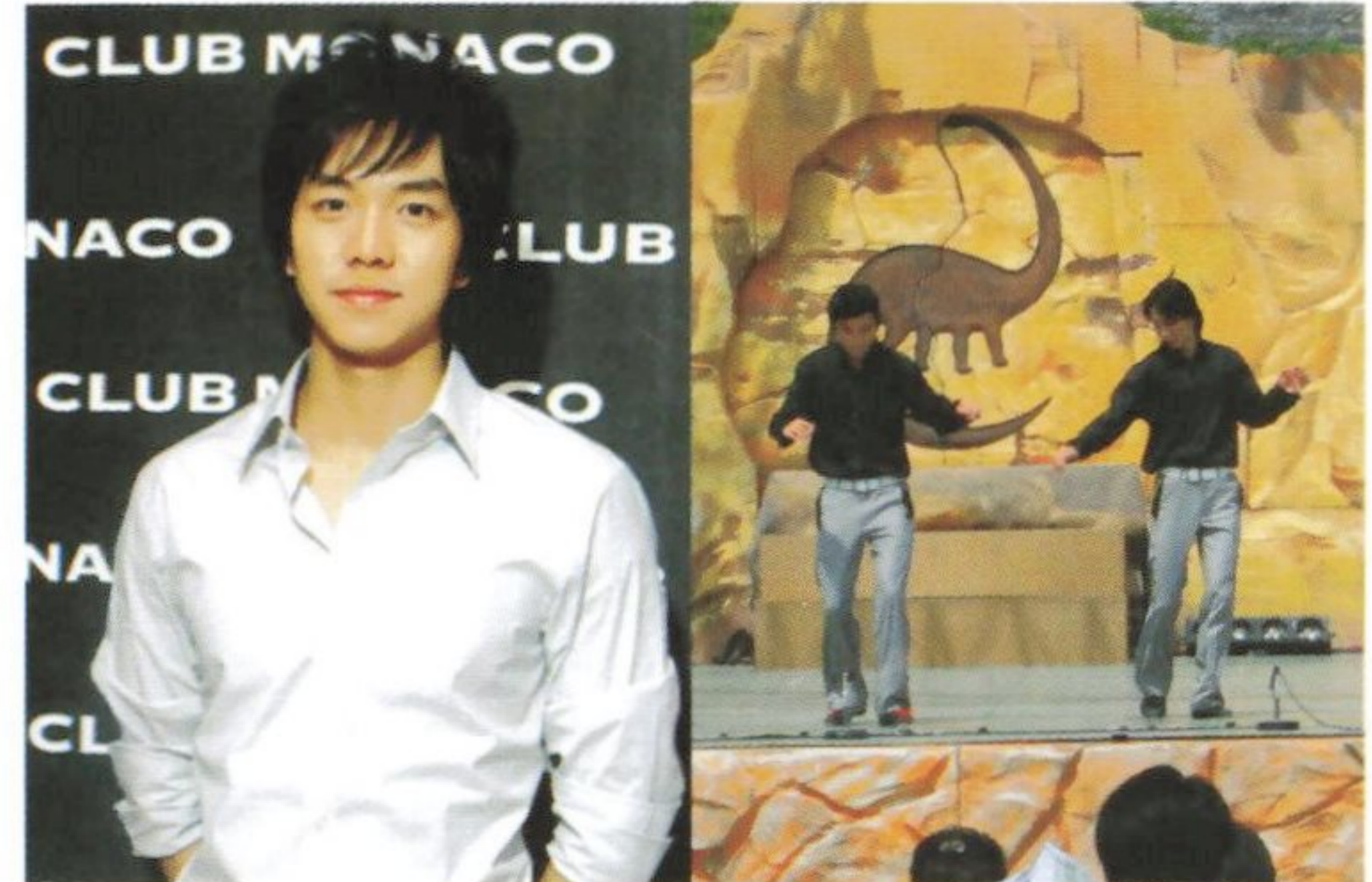
알바로 레스트레포는 지난해 KBS1 TV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 '예술의 반란-몸의 학교'를 통해 국내에서도 크게 화제가 됐던 안무가이다. 인디고 유스 북페어를 통해 아시아 최초의 공연을 갖게 된다.

프로그램

바다의 신(A Dios El Mar)-은밀한 위령곡

■ 관람료 일반 50,000원 · 청소년 초대

■ 문의 인디고 서원(628-2897)



한 여름 밤의 무더위를 흥겨운 국악선율로 날려버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기획 연주회 '2008 팔빙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수석지휘자 박호성이 매년 여름 펼치는 국내 최고의 크로스오버 무대인 '팔빙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는 국악의 경계를 넘어 전통과 창작, 거기에 타 장르와 어우러지는 멋진 무대로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이번 무대는 최고 인기가수 이승기의 대중가요와 신명나는 타악 퍼포먼스, 그리고 정열적인 정통아르헨티나 탱고까지 다양한 춤과 노래가 어우러진 특별한 무대로, 한여름 밤 시민들과 시원한 만남을 갖는다.

프로그램

- 여는 무대, 타악 퍼포먼스 뮤지컬 하이라이트 '야단법석' 박범훈/한여름에 시원하게 듣는 '오케스트라를 위한 뱃노래' 허미경, 이수인/어린이 윤희연수의 창작동요와 국악관현악 '통일여행' '어린이 나라' (편곡/최지혜)

대중가수 이승기의 가요와 국악관현악/내 여자라니까, 추억속의 그대, 착한 거짓말

다다(하재봉) & 포이즌 애플(김지영)의 정통아르헨티나 탱고와 국악관현악/Lacumparsita (편곡/강상구)

탭잉 탭댄스 컴퍼니의 탭댄스와 국악관현악/Washington Square, Fly me to the moon(편곡/강상구)

박범훈/타악 퍼포먼스 그룹 '야단법석'과 함께 하는 국악관현악 '신모듬'

- 지휘/박호성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 협연/윤희연(부산시립소년소녀 합창단 단원), 이승기(가수), 하재봉, 김지영(탱고), 조형창 외 6명(탭댄스: 탭잉 탭댄스 컴퍼니), 이재일 외 5명(야단법석)
- 객원출연/하경희 (베이스 기타)

관람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 A석 1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R석, S석에 한해 30% 할인)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양상블 아이리스 인 부산 희망 음악회 '...하면 되고'

8월 26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현대음악에 관심 있는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된 양상블 아이리스 인 부산이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해 들려주는 청소년 음악회. 신들의 메신저 역할을 한 무지개 여신 아이리스를 단체 이름으로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 기획공연 부산문화회관, 솔오페라단 공동 제작 베르디 오페라 'AIDA'

대극장 | 9월 3일(수) ~7일(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을 기념, 부산문화회관과 솔오페라단이 의욕적으로 제작한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

고대 이집트를 배경으로 한 오페라 '아이다'는 이집트의 무장 라다메스(Radames)와 포로인 에티오피아

의 공주 아이다와의 슬픈 사랑을 다룬 작품으로, 장중하고 화려한 음악과 호화롭고 장대한 무대장치 등 오페라 중에서도 백미로 꼽히는 대작으로 전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품 중 한 작품이다.

이번 무대는 유럽 음악계의 젊은 지휘의 거장 Ottavio Marino, 유럽정상급 오페라 연출가 Antonio De Lucia, 금세기 최고의 드라마틱 테너로 이미 400회 이상 아이다의 라다메스役に 출연한 피에로 줄리아치, 빈 국립극장의 아이다 주역가수 소프라노 록사나 브리만, 러시아 출신으로 유럽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소프라노 이리나 크리쿠노바 등 유럽을 대표하는 성악가들과 한국인 테너 최초로 라 스칼라 극장의 주역테너로 데뷔하여 유럽인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어 갈채를 한 몸에 받은 테너 이정원, 한국을 대표하는 바리톤 고성현 등 최고의 출연진과 부산시립교향악단, 시립합창단, 시립극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등 시립 예술단이 직접 참여하는 대작이다.

- 총예술감독/이소영
- 지휘/Ottavio Marino
- 연출/Antonio De Lucia
- 출연/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신정희 발레단, 부산시립극단

▶ 주요출연진

구 분	3일	4일	5일	6일	7일
아이다	록사나 브리만	이리나 크리쿠노바	배수진	이리나 크리쿠노바	록사나 브리만
라다메스	피에로 줄리아치	이정원	김지호	이정원	피에로 줄리아치
암네리스	카티아 리팅	이라리사 데미도바	박소연	이라리사 데미도바	카티아 리팅
아모나스로	고성현	김종화	박대용	고성현	고성현
람피스	안드라스 팔레르디	안균형	김태경	안균형	안드라스 팔레르디
레	김요한	문동환	김정대	김정대	김요한
무녀장	옥혜나	강연희	한송이	윤지영	옥혜나

- 관람료 VIP석 150,000원 · R석 130,000원 · S석 100,000원 · A석 80,000원
B석 50,000원 · C석 3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 문 의 부산문화회관(607-6057),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솔오페라단(740-5750)



정한 앙상블 아이리스는 이번무대에서 '앙상블'의 매력을 전해준다.

프로그램

헨델 할보르센/파사칼리아

모차르트 피아노 사중주 사단조

슈베르트 피아노 5중주 송어

· 출연/백재진, 김준영, 이기종, 황지원, 하은영, 김지연, 임정은, 최영식, 양욱진, 박지웅, 정성흠

입장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0,000원

문 의 아트뱅크 코리아(442-1941, 011-597-6808)

남산놀이마당 전통연희로 그려본 우리민족이야기 II '잡씨무처기(雜氏無處記)'

8월 28일-29일 목/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남산놀이마당이 선보이는 전통연희로 그려본 우리민족이야기 두 번째 '잡씨무처기(雜氏無處記)'.

이 작품은 중세기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마련된 제도의 틀 속에서 사회적 제약과 그에 몸부림치고 다양한 계급, 계층의 모습을 투영하여 당시 사회적 모순과 갈등을 안고 살아간 그 자화상을 통해 오늘날을 되돌아보고자 풍물과 탈춤, 재담, 소리의 형식으로 담아내었다.

- 총연출/임채련(남산놀이마당 예술단장)
- 대본/김호진(남산놀이마당 대표)
- 기획/김두진
- 안무/김경철
- 판굿연출/우진수
- 출연/장재희, 권철호, 최권집, 서영화, 류재철, 박용보, 김현일, 조대일 외

입장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문 의 남산놀이마당(516-4434, 010-2856-4434)

이윤희의 춤

8월 29일 금요일 오후 7:30 소극장



우리 춤의 전승보급에 열정을 쏟고 있는 부산시립무용단 훈련지도자 이윤희의 두 번째 출판.

부산시립무용단의 바쁜 공연일정 중 가진 2005년 첫 공연에 이어 두 번째로 갖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

립무용단 수석안무자 홍기태와 국립국악원 수석단원 최병재, 풍물패 버숨새가 특별출연한다.

프로그램

춘앵전(춤/이윤희)

태평무(특별출연/홍기태)

살풀이춤(춤/이윤희)

승무(특별출연/최병재)

소고춤(춤/이윤희, 특별출연/풍물패 버숨새)

입장료 초대

문의 이윤희(016-818-7920)

뜨거운 한 여름밤의 이열치열 음악회 타로(打路) TARO 4.5

8월 31일 일요일 오후 4:00, 8:00 중극장



젊은 타악 전문 연주인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새울타악진흥회 부산지회(지회장 신문범)'와 악(樂)·가(歌)·무(舞)의 전문 예술인들의 모임인 '공유(단장 박성희)'가 함께 의기투합하여 마련한 신명의 무대 '타로(打路) 4.5'.

2004년 4월 첫선을 보였던 '타로I'에 이어 2007 '타로IV'까지 매년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인 무대로 큰 호응을 받았다. 이번에 공연되는 '타로4.5'는 그동안의 타로 공연중 관객들의 호응이 가장 좋았던 곡들로 선정, 한여름의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릴 화끈한 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사물놀이-삼도풍물(출연/이봉우, 이경희, 권보름, 최정욱)

권두술, 박민지)

국악가요 '천지여천지여, 배 띄워라'(노래/박성희·대금, 소금/이중희·피리/이주상·가야금/조경화·대금/신기범·바이올린/방효준·신디/이지영·재즈밴드/GROOVY·타악/신문범, 이봉우, 이경희, 권보름, 최정욱)

장구합주 '다드리'(재구성/신문범·장구/이봉우, 이경희, 박소희, 권보름, 권두술, 최정욱)

모듬북합주(With eXtreme marital arts)(구성/신문범·타악/신문범, 이봉우, 이경희, 박소희, 권보름, 권두술, 최정욱, 강지하·Martial arts/챔피언 태권도 마살 아트 최동성 관장 외 14명)

신벚놀이&새울림(with jazz band 'groovy')(노래/박성희·소금/이중희·대금/신기범·피리/이주상·가야금/조경화·바이올린/방효준·드럼/최권호·베이스/박경동·기타/최만호·신디/이지영·모듬북/신문범·팽과리/최오성·장구/이봉우·특수타악기/권보름, 최정욱)

※해설/ 박성희

입장료 S석 20,000원·A석 10,000원

문의 서울전통 타악진흥회

(583-7958, 016-557-6058)

陳哲輝(Chen, Jer-Huei 천저웨이) 김승환의 퍼커션 피아노 듀오음악회

9월 1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대만국가교향악단 퍼커션 수석단원인 Chen, Jer-Huei과 부산의 피아니스트

김승환이 들려주는 듀오연주회.

Chen, Jer-Huei은 국립대만 사범대학과 국립타이페이 교육대학, 타이페이시립교육대학에서 후진을 양성하며 왕성한 음악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대만에서 가진 듀

오 무대를 가진 Chen, Jer-Huei, 김승환은 이번 무대에서 퍼커션을 위한 근, 현대 프랑스 작곡가들의 음악들로 퍼커션, 피아노의 이중주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뒤팡/피아노와 퍼커션을 위한 7개의 소품

미요/마림바와 바이브라폰 협주곡

데스포트/피아노와 퍼커션을 위한 12개의 작은 그림 중에서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C&G아카데미(010-2442-7585)

제 34회 부산미술대전 초대작가전

8월 4일-8월 10일 대전시실

지역미술의 활성화는 물론 역량있는 신진작가의 발굴을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는 부산미술대전의 초대작가전.

한국화, 서양화, 수채화, 판화, 조각, 디자인, 공예, 서예, 문인화 등 9개 분야 200여점이 전시된다.

※ 부산미술 대전 일정

7월 17일 ~ 8월 18일 부산시립미술관

문의 부산미술대전 운영위원회 사무국(632-2400)

8월 토요일상설무대

8월 16일 오후 4:00 소극장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 연주회

8월 23일 오후 4:00 소극장

부산서울전통타악진흥회 연주회

8월 30일 오후 4:00 중극장

부산시립극단 '위자료'

입장료 무료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www.wendl-lung.co.kr

1910년부터 100여년간 제작된 최상의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음악의본고장 오스트리아 벤들·룽 피아노

Wendl & Lung

*주: 벤들·룽 피아노 코리아
부산시 남구 대연4동 965-8, 문화회관 옆 TEL : 051-441-7474

시민회관

해피앙상블 가족과 함께하는 여름방학콘서트

8월 1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가요, 민요, 영화음악, 팝송, 동요, 성가곡,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코믹한 연출로 재미와 감동을 주는 해피앙상블의 여름방학콘서트.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이흥길(011-839-1084)



제 2회 부산섬머뮤지컬페스티벌 더 라이프

8월 9일 **토요일** 오후 3:00, 7:00

10일 **일요일** 오후 2:00, 6:00 대극장

1980년대 뉴욕 뒷골목을 배경으로, 포주와 매춘부, 사기꾼 등 삼류인생들의 이야기를 통해 절망속에서도 피어나는 사랑과 우정,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정통 재즈선율로 그려낸 브로드웨이 재즈뮤지컬.

관람료 R석 80,000원 · S석 30,000원

A석 40,000원 · B석 3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AN시티(1644-4484)

2008 부산클라리넷와이어 특별 기획연주회 청소년을 위한 해설음악회

8월 12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1989년 부산시립교향악단 클라리넷 수석 정우영과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창단된 부산클라리넷와이어가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한 해설음악회.

· 지휘/정우영 · 해설/이동신
· 협연/윤미희(마림바)

관람료 **균일 7,000원**

문의 부산클라리넷와이어(010-7936-0888)



김덕수의 다이나믹 코리아

8월 14일 **목요일** 오후 7:00 대극장

사물놀이의 창시자 김덕수가 우리 전통의 노래와 춤, 음악으로 구성된 총체예술극 '다이나믹 코리아'.

중요무형문화재 '적벽가' 이수자 김계명과 한울림연희단이 출연, 웅장한 북소리의 향연 '일고화락'과 삼도농악가락, 판굿 등 우리 전통 고유의 멋을 선사한다.

관람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A석 15,000원(청소년 30% 할인)

문의 시민회관(630-5200)

아지무스오페라단 여름방학 특별기획 청소년 해설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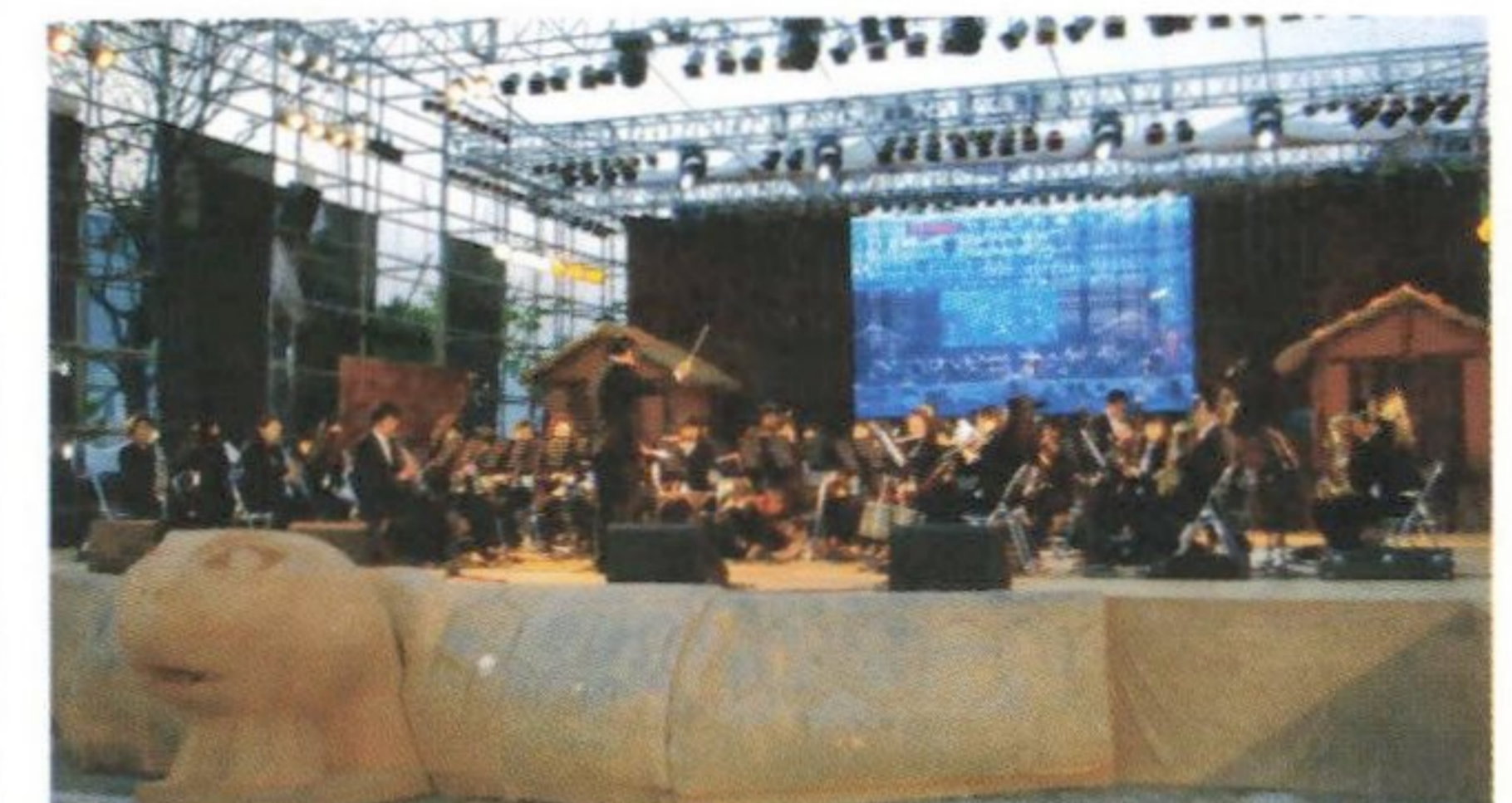
8월 15일 **금요일** 오후 5:00, 7:00 대극장



영상을 이용한 악기 소개와 즐거운 오페라 이야기, 작곡가별 테마여행, 세계각국의 민요와 가곡 등 다양한 주제로 마련되는 아지무스오페라단의 청소년을 위한 해설음악회.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손욱(011-9520-4649)



시노두스 윈드오케스트라 제 2회 정기연주회 방학맞이 청소년과 함께하는 청소년 음악회

8월 16일 **토요일** 오후 3:00, 7:00 대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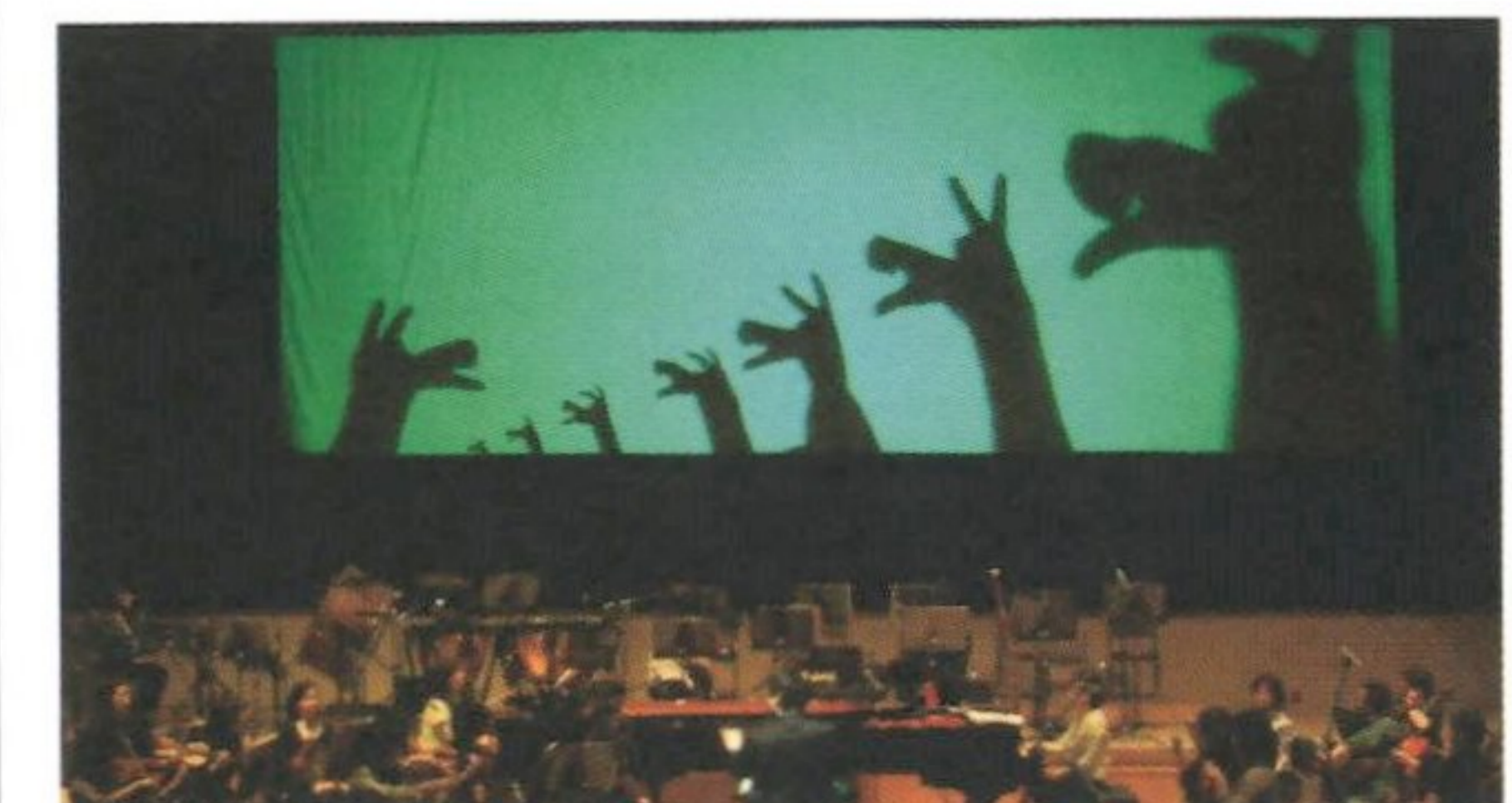
부산, 경남지역에서 활동중인 관악전공자들로 결성된 시노두스 윈드오케스트라가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한 해설음악회.

· 지휘/정우영 · 사회/송필석

· 협연/She's, 최은정(플루트)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시노두스 윈드오케스트라(019-515-7438)



모차르트와 생상스가 함께하는 그림자 음악회 마술피리... 그리고 동물의 사육제

8월 23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24일 **일요일** 오후 1:00, 3:00 대극장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와 생상스의 음악극 '동물의 사육제'를 그림자극으로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0,000원

문의 에스엠기획(1600-1602)

부산대학교와 글로벌아트홀의 만남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는 국내최고의 음악시설을 자랑하는 글로벌아트홀과의 협력기관 협약으로 2008년 2학기 음악 전문강좌를 다음과 같이 개설합니다.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강좌(부산대 총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음향사자격증과정 / 음향엔지니어링단기과정
바이올린아동지도자과정 / 피아노아동지도자과정
시정청음법 / 이론과 함께 배우는 합창과 지휘법
가요작곡법 / 노래반주법지도자과정
재미있는 클래식기타 / 무대예술전문인단기과정(조명)

글로벌콘서트비대리강좌

성악 / 피아노 / 작곡 / 지휘 / 현악(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관악(플룻 오보에 클라리넷) / 음악치료 / 음향 / 영상 / 조명
실용작곡 / 실용보컬 / 재즈피아노 / 실용반주 / 국악

-2008 하반기 대관 접수 중-

공연 / 녹음 / 음반제작 / 마스터클래스 / 제자발표 / 세미나



Glovil
Art Hall
Recording Studio



GloVil Art Hall
RECORDING STUDIO
CONSERVATORY
GALLERY & ART CENTER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3동 1243-21 기획팀
051+505+5995 | glovil@paran.com | www.glovil.org



세계의 거장 정명훈&정명화와 함께하는 제 18회 소년의집 관현악단 자선음악회

8월 26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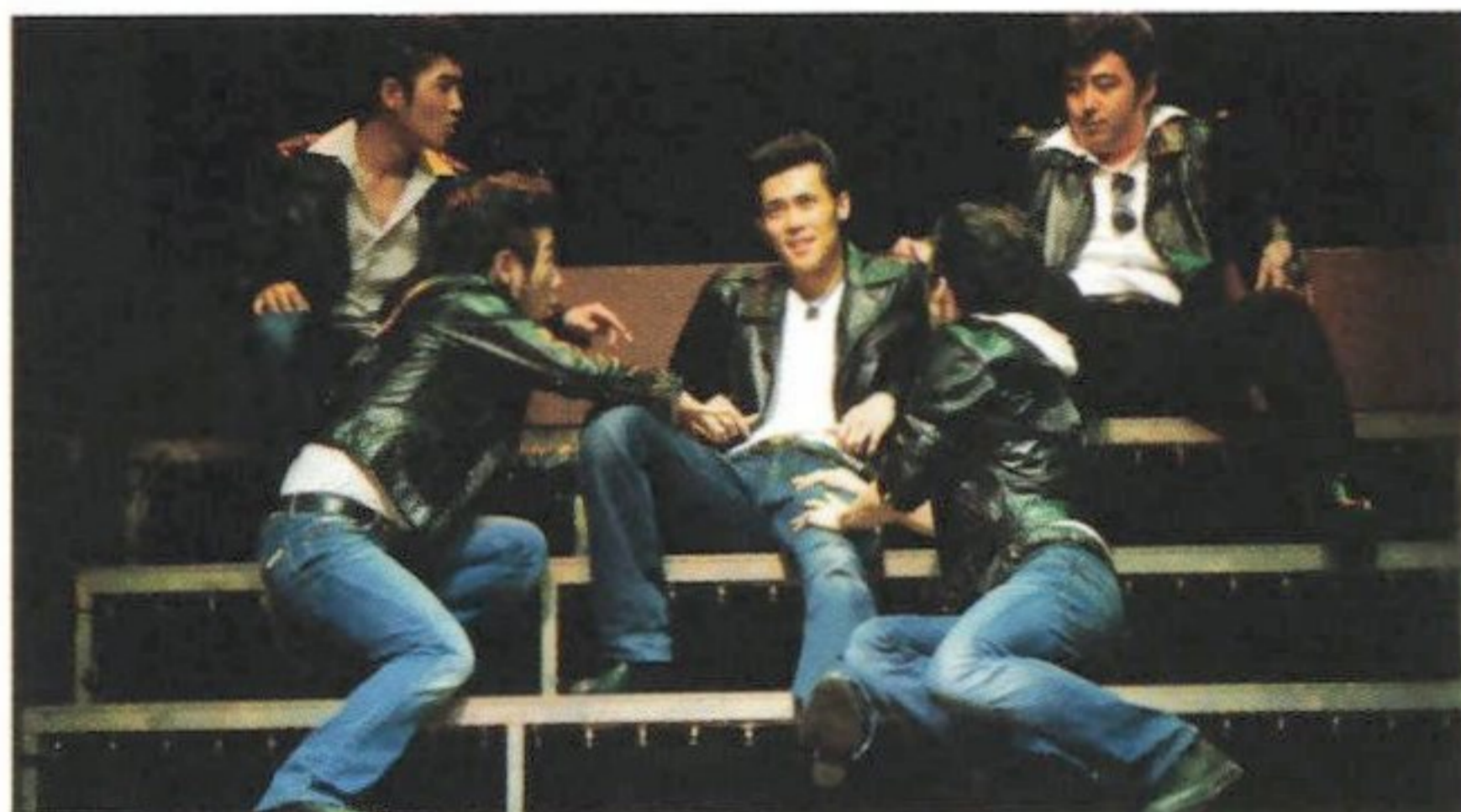
세계적인 지휘자 겸 피아니스트 정명훈, 첼리스트 정명화 남매와 서울시립교향악단 수석바이올리니스트 데니스김이 소년의집 관현악단과 함께하는 자선음악회.

프로그램

드보르작/교향곡 '신세계로 부터'
베토벤/피아노3중주 가장조 작품 56
· 지휘/정민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3,000원
A석 20,000원

문의 (재)마리아수녀회 소년의집(256-3901)



뮤지컬 그리스

8월 30일 토요일 오후 3:00, 7:00

31일 일요일 오후 2:00, 6:00 대극장

1972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된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공연되고 있는 뮤지컬 '그리스'.

1978년에는 존 트라볼타, 올리비아 뉴튼존 주연의 영화로 제작되면서 폭발적인 사랑을 받기도 했다.

관람료 R석 66,000원 · S석 55,000원
A석 44,000원

문의 예술기획 자유(1599-9210)



6일 박종근과 함께하는 오키리나 여행

오키리나 연주자 박종근과 바리톤 고봉수, 소프라노 신정순이 함께하는 무대.

13일 '노다메 칸타빌레' 그 음악속으로

일본에 클래식열풍을 일으켰던 일본드라마 '노다메 칸타빌레'에 삽입된 클래식곡으로 마련되는 청소년을 위한 특별음악회.

20일 M&M 성악연구회 오페라 갈라콘서트

성악가 오동주의 상세한 해설로 마련되는 오페라 갈라콘서트.

27일 부산재즈오케스트라 빅밴드 콘서트

스탠다드 재즈에서부터 퓨전과 팝을 넘나들며 다양한 레퍼토리를 구사하는 부산재즈오케스트라 콘서트.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금정문화회관(519-5651)

Cellos Only - 양욱진 클래스 연주회

8월 8일 금요일 오후 7:30 소공연장

부산시립교향악단 첼로 수석 양욱진의 클래스 연주회.

· 출연/배성아, 신윤경, 허청희, 김인아, 김윤지, 강진원, 정화음, 문귀봉, 나지원, 강세화, 정혜주, 류원욱

관람료 균일 5,000원

문의 아트뱅크코레아(442-1941)

예레미아스 슈바르처 교수 초청 리코더 연주회

8월 9일 토요일 오후 7:00 소공연장

독일 뉘른베르크음대 교수로 있으면서 일본, 미국, 유럽 등에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세계적인 리

코더 연주자 예레미아스 슈바르처 초청 연주회.

· 챔발로/김재연

· 바로크첼로/조현근

관람료 균일 30,000원

문의 리코디아(02-2692-7945, 02-582-8715)

동아 피아노포르테 정기연주회 청소년을 위한 한 여름밤의 음악회

8월 14일 목요일 오후 7:30 대공연장

동아대학교 피아노 전공 동문들로 결성된 동아 피아노포르테가 여름방학을 맞아 마련한 청소년음악회.

· 출연/김미연, 이현주, 곽윤희, 이양희, 박정미, 송하(피아노), 이윤영, 하지은, 노정미(바이올린), 송고은(비올라), 김기도(첼로), 박지웅(콘트라베이스), 심정보(바리톤)

문의 이미라(010-3863-7691)



손리사&이선아 듀오 리사이틀

8월 14일 목요일 오후 7:30 소공연장

미국 줄리어드음대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계명대학교 교수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손리사와 서울대학교와 미국 인디애나음대(연주자과정, 석사, 박사)를 졸업한 첼리스트 이선아가 함께하는 듀오무대.

프로그램

체르베토/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듀엣 작품 5 제 3번 라벨/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소나타 등

· 특별출연/서수민(비올라)

관람료 초대

문의 예술기획(0505-700-9798)

금정문화회관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20일은 오후 4:00 추가 공연)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p>책사랑 53년 대형서점 지하1~5층 엘리베이터운영</p>	<p>새 소식!</p>	<p>since 1955</p>
<p>전국최고 종합지도(지구본)센터 (과장광고 아님)</p>	<p>문우당서점 지도센터에서</p>	<p>문우당</p>
<p>국산 지구본 최상품만 취급/외국산 지구본 최상품취급</p>	<p>세계지도계 초우</p>	<p>MUN WOO DANG BOOK, STORE www.munbook.co.kr</p>
<p>▶ 국 산 : 소·중·대·초대형, 위성, 지세, 행정 다양함 20%할인 ▶ 외국산 : 세계적 매출 독일 스텔라노바 소·중·대 초대형 공중부양, 뜨고, 들고, 한·영지명 출시중 색상분별 선물용최고</p>	<p>한국발명특허 획득</p>	<p>문우당서점</p>
<p>지도의 모든것! 종류가 많아서 일부만 안내합니다.</p>	<p>*국기 있는 지도(특허품), 국기 없는 지도(2종)*</p>	<p>Tel: 245-3843(대표) 245-2714(공연문의)</p>
<p>▶ 전국, 시, 도별지도 전국교통관광지도, 국내, 외국관광책자 ▶ 전국전자지도 PC로 지적, 지번, 도면 확대 축소 연결지우 ▶ 경매, 부동산, 건설 설계, 시공, 통신, 유통, 택배, ▶ 금융기관, 업무용, 기타 각종업체, 정부발행지도판매 ▶ 지형도 당지도센터 취급의 1:3000지도를 연결코팅 ▶ 부동산업계, 기타, 회사, 사용용도에 따라 소중, 대형코팅</p>	<p>· 대형 금박 고급 액자 세계지도(사무실, 학교) · 일반형 금박 고급 액자 세계지도(사무실, 학교) · 대형, 코팅 벽걸이용 세계지도(사무실, 학교) · 일반형코팅벽걸이용 세계지도(학교, 가정) ★ 학생, 일반공용케이스 / 날정지도(값 5,000원)</p>	<p>자갈치시장 정문이 보이는 아치탑 앞 (미니몰 건너편)</p>
<p>대형지도, 지구본 매장 관람을 환영</p>		<p>각종 공연예매처 CGV10% 적립 통도원타자극 경주월드 할인 판매처</p>

피아노와 클라리넷의 하모니 트리오 피클

8월 16일 토요일 오후 6:00 소공연장

피아니스트 유덕경, 클라리네티스트 김태훈, 권병욱으로 구성된 트리오 피클이 클래식과 팝, 영화음악 등을 들려준다.

· 특별출연/소프라노 권미경(양산시립합창단 단원)
관람료 균일 10,000원(전화 예매시 20% 할인)
문의 유상미(010-2962-5082)

청소년을 위한 부산플루트앙상블 여름특별 정기연주회

8월 17일 일요일 오후 5:00 소공연장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해 부산플루트앙상블이 마련하는 청소년음악회.

· 특별출연/조현미(바이올린), 신정현(색소폰), 김미경(피콜로), 곽윤희(피아노), 정명호(콘트라베이스)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장극태(011-582-5189)

부산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즐거운 음악여행

8월 18일 월요일 오후 4:00, 7:00 대공연장

우리에게 친숙한 연주곡으로 마련하는 부산 내셔널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회.

프로그램
비제/카르멘 서곡
최영섭/그리운 금강산
모차르트/피아노협주곡 제 21번 다장조 K.467
마스네/타이슨의 명상곡 등 수곡
· 지휘/손명균 · 사회/송수련
· 협연/최은주(피아노), 신정순(소프라노), 장철근(바이올린)
문의 부산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890-2411~2)

제 19회 신동일의 작곡마당 음악으로 길찾기

8월 19일 화요일 오후 7:30 소공연장

전공과 음악장르를 초월한 다양한 음악적 실험을 통해 한국 창작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모인 작곡마당의 19번째 작곡발표회.

프로그램
윤희나/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Everyday HI'
백현주/영천아리랑 주제에 의한 변주곡
신동일/세 개의 노래 등 수곡
· 작곡/윤희나, 김태환, 권유미, 오세일, 박미현, 백현주, 신동일
관람료 초대
문의 백현주(010-4585-2052)



매디슨앙상블 정기연주회 - 굿바이 매디슨

8월 21일 목요일 오후 7:30 대공연장

미국 위스콘신 매디슨 주립대 동문인 피아니스트 김성숙, 형희전, 안미경, 김승현이 10년간의 앙상블활동을 뒤로 하고 또다른 변신과 성장을 위한 휴식기간을 갖기 위해 마련한 매디슨앙상블 고별무대.

프로그램
아렌스키/모음곡 제 1번 작품 15
볼콰/추억
차이코프스키/1812년 서곡
슈베르트/송어 작품 114 등 수곡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클래식 프론티어(02-3141-5729)



국악체험 놀이극 얼씨구나! 용궁가자

8월 29일 금요일 오전 10:10, 11:20, 30일-21일 토-일요일 오후 12:00, 2:00, 4:00 소공연장

판소리, 토속민요, 탈춤, 꼭두각시 인형극 등 우리의 소리와 춤을 통해 국악과 친해질 수 있도록 구성된 국악체험 놀이극.
관람료 균일 12,000원(예매시 2,000원 할인)
문의 DUBU기획(02-2654-6854)

해운대 문화회관

제 2회 부산섬머뮤지컬페스티벌 파이프 코스 러브

7월 19일(토)-8월 17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30, 일요일 오후 3:00, 6:30 대공연장

다섯 곳의 레스토랑에서 벌어지는 다섯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묻는 코믹뮤지컬.
관람료 R석 40,000원 · S석 3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AN시티(1644-4484)

청소년을 위한 베스트 오브 베스트 클래식

8월 20일 수요일 오후 7:00 대공연장

인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청소년을 위한 해설음악회로 클래식 명곡만을 선곡해 상세한 해설과 함께 들려준다.
· 지휘/박종휘 · 진행/현채화
· 협연/소프라노 정태미, 테너 강학운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전제덕의 하모니카 스토리

8월 22일 금요일 오후 7:30 대공연장

YAMAHA 야마하 공식 A/S점 선택은 한번, 감동은 영원히...

감동을 함께 만드세요

가족처럼 늘 가까이 야마하가 함께 합니다

부산 야마하 피아노 악기

- 양정 본점 : 051) 863-0900
- 롯데백화점 부산점 6층 : 051) 816-0089
- 사직동 홈플러스 : 051) 506-7332

서정적 감수성과 화려한 테크닉을 동시에 갖춘 우리나라 최고의 하모니카 연주자 전제덕 콘서트.

프로그램

Night TO Dawn, Over The Top, 매일 그대와, 행진, 바람, 개구쟁이, 깊은 밤을 날아서 등 수곡

관람료 VIP 40,000원 · 1층 30,000원

2층 20,000원(학생 20% 할인)

문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해피양상블

가족과 함께하는 여름방학콘서트

8월 23일 토요일 오후 4:00, 7:30 대공연장

가요, 민요, 영화음악, 팝송, 동요, 성가곡,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코믹한 연출로 재미와 감동을 주는 해피양상블의 여름방학콘서트.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의 이흥길(011-839-1084)

을숙도문화회관



가족뮤지컬 신데렐라

8월 8일 금요일 오전 10:10, 11:20, 9일-10일 토-일요일 오후 12:00, 2:00, 4:00 대공연장

기발한 무대전환과 다양한 캐릭터가 살아있는 인형과 가면으로 재미를 더하는 가족뮤지컬.

관람료 균일 12,000원(예매시 2,000원 할인)

문의 DUBU기획(02-2654-6854)

시노두스 윈드오케스트라 제 2회 정기연주회 방학맞이 청소년과 함께하는 청소년 음악회

8월 18일 월요일 오후 2:00, 5:00 대공연장

부산, 경남지역에서 활동중인 관악전공자들로 결성된 시노두스 윈드오케스트라가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한 해설음악회.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시노두스 윈드오케스트라(019-515-7438)

여름방학 특집 '토요뮤직점프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8월 23일 오전 11:00 대공연장

뉴프라이미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마련하는 여름방학 특집 토요뮤직점프.

동물들의 특징을 음악으로 표현한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를 상세한 해설과 함께 들려준다.

· 사회 및 해설/이선영

관람료 균일 2,000원

문의 을숙도문화회관(220-5341)

KBS 부산홀

파워업! 파워업!

파워레이저 체험전-부산

7월 26일(토)-8월 17일(일)

오전 10:00~오후 6:00(입장마감 오후 5:00)

실제 크기의 캐릭터를 구경할 수 있는 전시와 다양한 놀이기구들, 그리고 파워레이저의 화려하고 직접 볼 수 있는 라이브 쇼까지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파워레이저 체험전.

관람료 일반 10,000원 · 어린이 15,000원(부산시립 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주)AN시티(1644-4484)



제 2회 부산썸머뮤지컬페스티벌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8월 23일 토요일 오후 4:00, 8:00

24일 일요일 오후 3:00, 7:00

비보이를 사랑하게 된 발레리나가 차츰 비보이에 동화되어 가는 과정을 춤으로 그린 년버벌 뮤지컬로, 2007 영국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최고 평점을 받기도 했다.

· 작, 연출/최윤엽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주)AN시티(1644-4484)

경성대학교

로맨틱 코믹뮤지컬 희망세일

7월 11일(금)-8월 3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 경성대학교 멀티미디어 소강당

와자지컬 남대문시장을 배경으로, 우리 이웃의 삶과 희망을 노래한 로맨틱 코믹뮤지컬.

· 작, 연출/남윤길 · 작곡/송시현

관람료 일반 25,000원 · 청소년 15,000원

문의 코엔(1544-3164)

제 2회 부산썸머뮤지컬페스티벌

카툰 뮤지컬 두근두근

7월 26일(토)-8월 17일(일) 화-수요일 오후

8:00, 목-금요일 오후 5:00, 8:30

토요일 오후 4:00, 7:30, 일요일 오후 3:00,

6:30(월요일 공연없음) 예노소극장

의성어와 의태어로 상황을 표현하고 아카펠라와 탭댄스만으로 음악을 완성시킨 독특한 발상의 카툰 뮤지컬.

관람료 균일 3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AN시티(1644-4484)



제 2회 부산썸머뮤지컬페스티벌

썸데렐라

8월 6일(수)-10일(일) 수-목요일 오후 7:30

금요일 오후 4:00,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2:00, 6:00 콘서트홀

곱고 예쁜 피부와 몸매, 자신만의 일, 쥐도 새도 모르는 비자금, 스트레스 없는 시댁 등 아줌마라면 누구나 한번쯤 꿈꿔봤을 판타지를 아줌마의 시선으로 풀어낸 뮤지컬 '썸데렐라'.

· 작/고혜정 · 작곡/신재홍

· 출연/이재은, 김지선, 하재숙 외

관람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AN시티(1644-4484)



제 2회 부산섬머뮤지컬페스티벌 헤드워크

8월 14일(목)-17일(일) 목요일 오후 8:00
 금요일 오후 3:00, 6: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 콘서트홀

동독 출신의 실패한 트랜스젠더 락가수 헤드워크의 인
 생역정을 그린 락뮤지컬 '헤드워크'.

관람료 R석 55,000원 · S석 44,000원(부산시립예술
 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AN시티(1644-4484)



뮤지컬 거울공주 평강이야기

8월 21일(목)-3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4:00(25일 공연
 없음) 예노소극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강공주와 바보온달' 이야기
 를 새롭게 각색, 소리와 움직임으로만 구성된 새로운
 형식의 아카펠라 뮤지컬.

관람료 균일 3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가마골소극장(245-0042)



제 2회 부산섬머뮤지컬페스티벌 화장을 고치고

8월 23일(토)-3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콘서트홀

사랑도 제대로 한번 못해본 여자와 연애전과 8범의
 바람둥이 남자가 펼치는 로맨틱 뮤지컬.

관람료 R석 40,000원 · S석 30,000원(부산시립예술
 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AN시티(1644-4484)

글로벌아트홀



라보페앙상블

부산대학교 문화콘텐츠개발원과 글로벌아트 홀이 공동 주최하는 제 3회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여름방학 교과서음악축제

8월 16일 토요일 오후 5:00, 19일 화요일 오후
 3:00, 21일 목요일 오후 3:00, 5:00, 23일 토
 요일 오후 3:00, 5:00

교과서에 수록된 클래식음악을 중심으로 자세한 해설
 과 함께 들려주는 글로벌아트홀 청소년음악회.

■ 16일 오후 5:00 테너 이승우 초청독창회

고신대학교 성악과와 독일 뒤셀도르프국립음대를 졸
 업한 테너 이승우 독창회.

■ 19일 오후 3:00 3인 음악회-피아노 남준휘 · 바이
 올린 옥중훈 · 색소폰 백정희

■ 21일 오후 3:00 피아노트리오 라보페앙상블 연주회
 차세대 연주자 허지윤(바이올린), 정고른(첼로), 오혜
 진(피아노)으로 구성된 라보페 앙상블 연주회.

■ 21일 오후 5:00 차세대 바이올리니스트 옥중훈 독
 주회

글로벌전국음악콩쿠르 3위, 경향신문콩쿠르 3위, 마
 산음협콩쿠르 장려상을 수상한 브니엘예술고등학교 2
 학년 옥중훈 바이올린 독주회.

■ 23일 오후 3:00 3인 음악회-테너 김두홍 · 바이올
 린 옥중훈 · 색소폰 백정희

■ 23일 오후 5:00 4인 음악회-성악 손금희, 김혜진,
 김진우 · 바이올린 홍영은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6,000원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세 남자의 음악이야기

8월 14일 목요일 오후 7:30



첼리스트 이종현(모스크바 국립 차이코프스키음악원),
 천정민(경희대학교 기악과), 피아니스트 최영민(서울대
 학교 음악대학원)이 함께 하는 무대.

프로그램

바흐/무반주 첼로 조곡 2번, 5번

라벨/라 발스

비발디/두대의 첼로를 위한 협주곡 등 수곡

관람료 초대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이웃과 부산시민이 함께하는 글로벌 사랑의 가족음악

8월 31일 일요일 오후 7:00

플루트, 색소폰, 클래식기타 연주와 독창, 여성중창,
 합창으로 마련되는 시민을 위한 사랑의 가족음악회.

· 지휘 및 예술총감독/신영순(글로벌콘서바토리 학장)

· 출연/여명주(플루트), 김두홍(테너), 백정희(색소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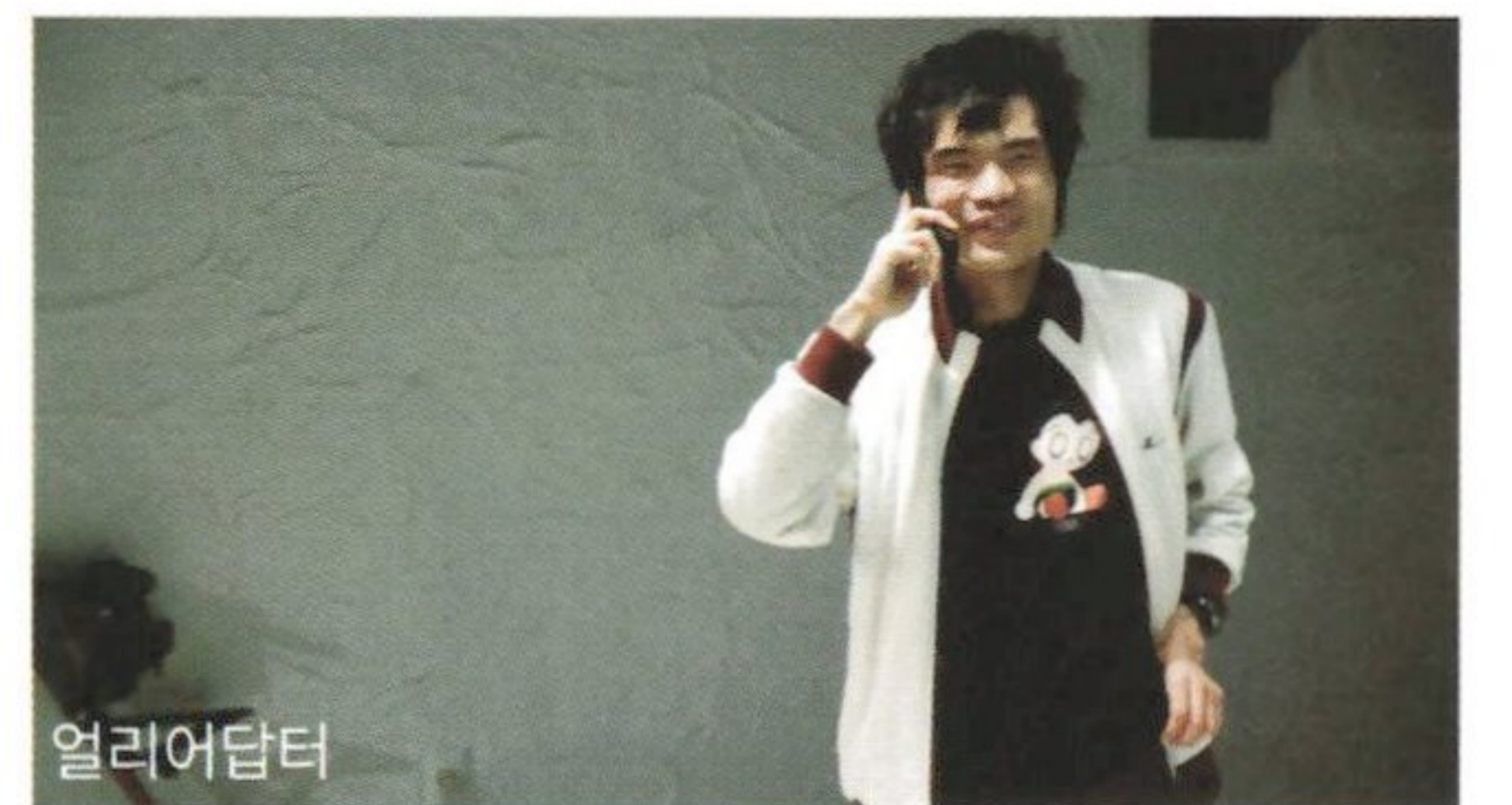
고충진(클래식기타), 김인설(소프라노), 글로벌여

성중창단, 글로벌기타앙상블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6,000원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가톨릭센터



엘리어타터

무대공감 3

부산 우수 단막극 골라보기 프로젝트

7월 31일(목)-8월 10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30, 일요일 오후 7:30

(월-수요일 공연없음) 소극장

관객들에게 호평과 찬사를 받았던 창작 단막극 3편을
 선보이는 부산 우수 단막극 골라보기 프로젝트.

작품

얼리어답터(연출/김근수, 출연/박훈영)
 - 출시되는 최신의 제품들만 구매하는 얼리어답터들을 통해 '육구' 속에 빠진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
 자고 가라(연출/김세진, 출연/이현남, 이은주)
 - 무뚝뚝하지만 속은 어린 경상도 머슴아와 여러 보이지만 속은 강한 경상도 가시내의 사랑을 그린 작품.
 The Kids(연출/오치운, 출연/김초록)
 - 차별없는 순수한 어린이들의 세계를 통해 밝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희망을 담은 작품.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0,000원
 어린이 5,000원(예내시 20% 할인)
 문 의 (주)아이엠아이(623-0678, www.mudae.kr)



아이리스인양상블

PBC 화요일음악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5일 윤재웅, 김병기 2인 음악회

피아니스트 윤재웅, 김병기가 함께하는 무대.

■12일 양상블 아이리스 인 부산 연주회

부산의 실내악 문화를 주도하고, 현대음악의 대중화에 앞장서기 위해 창단한 양상블 아이리스 인 부산의 실내악 무대.

■19일 테너 곽주경 독창회

창원대학교 음악과와 이태리 로마 국제 음악아카데미 'A.I.D.M' 최고연주자 과정, Pentarte 아카데미를 졸업한 테너 곽주경이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26일 부산가톨릭합창단 연주회

2002년 부산세계합창올림픽대회 무반주 종교음악부 분 은상을 수상한 부산가톨릭합창단 연주회.

관람료 일반 10,000원 · 청소년 5,000원

문 의 가톨릭센터(462-1870)

부산의 소극장

제 2회 부산썸머뮤지컬페스티벌 싱글즈

8월 2일(토)-10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 8:00, 일요일 오후 3:00, 7:00 (월요일 공연없음) 롯데아트홀



직장에서의 좌천과 오랜 연인과의 이별선고로 인생 최악의 생일을 맞은 29살 주인공 나난과 그의 오랜 친구인 자유연애주의자 동미, 순진남 정준이 펼치는 일과 사랑 이야기 뮤지컬 '싱글즈'.
 관람료 R석 45,000원 · S석 3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AN시티(1644-4484)

극단 에저또 몽?몽(夢)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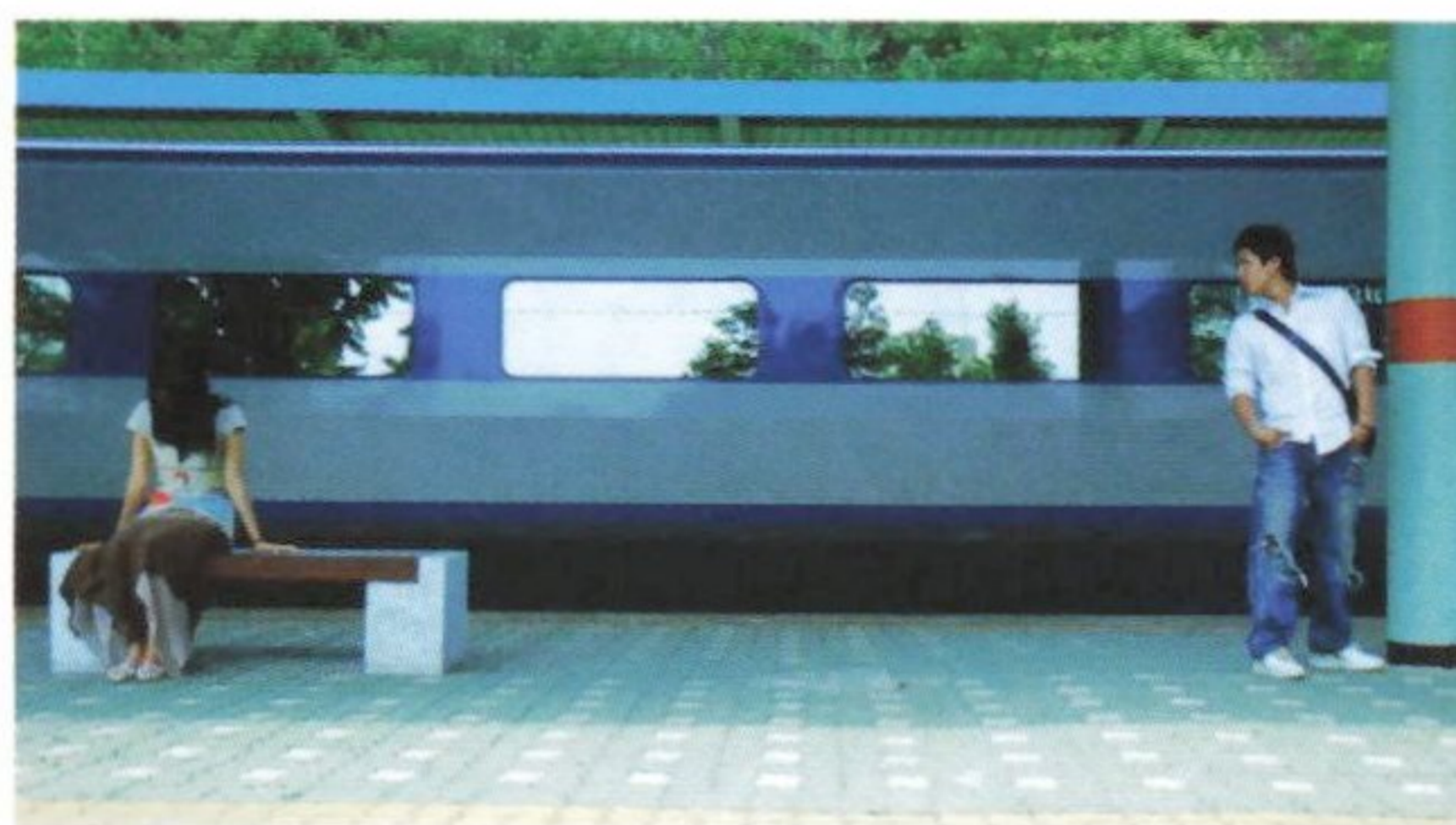
8월 2일(토)-17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 공휴일 오후 3:00, 6:00, 일요일 오후 3:00 (월요일 공연없음, 2일은 6:00 1회공연)
 액터스소극장

길에서 주운 돈 천원으로 벌어지는 헤프닝을 통해 돈 때문에 변해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그린 창작극.

· 작/심상교 · 연출/최재민
 · 출연/손미나, 강예진, 김상호, 구윤희, 김지연, 이지훈, 신영재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

문 의 극단 에저또(852-9161)



뮤지컬 울고있는 저 여자

8월 2일(토)-17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요일 오후 3:00, 6:00(15일 오후 3:00, 월요일 공연없음) 가마골소극장

이 세상 모든 슬픔을 껴안은 듯 울고 있는 그 여자와 이 세상 모든 슬픔을 날리는 듯 호탕한 웃음을 날리는 그 남자의 만남을 통해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감성뮤지컬.

· 작/김현영 · 각색, 연출/이채경
 · 출연/변진호, 김하영, 조승희

관람료 균일 2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가마골소극장(245-0042)



코믹발랄 뮤지컬 해피소드

8월 8일(금)-9월 7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 · 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Red

지하철 광안역에 새롭게 문을 연 AN아트홀.Red 개관기념공연.

독특한 캐릭터들이 펼치는 다섯가지 에피소드들이 유쾌한 웃음을 전달한다.

· 원작/닐 사이먼 · 연출/이창욱

관람료 균일 2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AN시티(1644-4484)

브레이크 아웃(BREAK OUT)

8월 13일(수)-3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8:00, 일요일 오후 4:00 (월요일 공연없음) 롯데아트홀

자유를 향한 어설픈 죄수들의 좌충우돌 탈옥기가 흥겹고 짜릿한 익스트림 댄스로 펼쳐지는 브레이크 아웃 부산공연.

관람료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문 의 KNN(810-7000)



극단 누리에 제 19회 정기공연 임대아파트

8월 21일(목)-9월 7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5:00 (월요일 공연없음) 액터스소극장

삶의 애환이 배어있는 임대아파트를 배경으로, 청춘의 사랑과 우정을 따뜻한 시선으로 풀어낸 작품.

· 작/김한길 · 연출/강성우

· 출연/배진만, 김학준, 강봉금, 염지선, 최현경, 허정현

관람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사랑티켓 참가작)

문 의 극단 누리에(621-3573)



뮤지컬 여자는 다 그래

8월 22일(금)-9월 21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요일 오후 3:00,
6:00(9/13-14 공연없음, 9/15 오후 3:00,
6:00) 가마골소극장

모차르트의 오페라 '코지 판 투테'의 극적, 음악적 모
티브에 근거해, 재기발랄한 21세기 젊은이들의 사랑과
삶의 성장을 주제로 한 로맨틱 코메디 뮤지컬.

· 각색/이채경 · 연출/남미정
· 출연/염순식, 허준석, 배보람, 엄기철, 정운선 외
관람료 균일 2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가마골소극장(245-0042)

행사



부산국제무용제-생태와 춤

8월 2일-4일 토-월요일 오후 8:00
광안리 해변 특설무대

아름다운 여름바다를 배경으로, 바다와 춤이 어우러
지는 특별한 무대.

9개국 17개팀이 참가하는 초청공연과 국제학술심포
지움, 월드스타 강수진과 함께하는 발레클래스 등 다양
한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2일 참가팀

김현자와 KNUA무용단 '바다'
미국 Koresh Dance Company 'Hidden Drives'
유니버설발레II '더 컬러즈'
캐나다 Suddenly Dance Company 'Sky Event'
나이지리아 Ijodee Dance Company 'Ido Olofin'
정귀인과 부산현대무용단 '움'
일본 M-laboratory Company 'Short Piece'

춤다솜무용단 '파도'

■3일 참가팀

미국 Koresh Dance Company 'Hidden Drives'
춤다솜무용단 '태(太) 그리고 회귀'
캐나다 Suddenly Dance Company 'Sky Event'
스웨덴 Royal Swedish Ballet '잠자는 숲속의 미녀'
중 '파드되'

미국 Koresh Dance Company 'Looking Back'
나이지리아 Ijodee Dance Company 'In
immagination'

일본 M-laboratory Company 'Short Piece'
인도 Anil Panchal Dance Company 'YODDHA',
LDP무용단 '심청 가이'

타이완 Sun-Shier Dance Theater 'Runaway'
독일 강수진&슈투트가르트 발레 'Onegin'

■4일 참가팀

정신혜무용단 '산산산散散히'
스웨덴 Royal Swedish Ballet 'In Light and
Shadow'

인도 Anil Panchal Dance Company 'TRANCE'
민병수발레단 '삶에 비친 나의 그림자'

나이지리아 Ijodee Dance Company 'Ido Olofin'
컨템포러리 발레시어터 dis '2008년 8월 4일 맑음'

미국 Koresh Dance Company 'Hidden Drives'
타이완 Sun-Shier Dance Theater 'Jacklyn'

미국 Koresh Dance Company 'Looking Back'
문 의 부산국제무용제 사무국(555-2949,
www.bidf.or.kr)

용두산공원 세계악기여름페스티벌

8월 3일 일요일 오후 7:00 용두산공원 야외무대

· 출연/버숨새예술단, 박영진(얼후), 아프리카 타악기
연주단 콤바야

· 특별출연/코트디부아르 댄서 브레이스, 앤지, 파틴
문 의 부산타워(245-1066)



제 5회 부산바다마당극제전

8월 5일-6일 화-수요일 오후 7:00

송도해수욕장 특설무대

시원한 바다를 배경으로 풍자와 해학이 넘치는 정통
마당극을 선보이는 제 5회 부산바다마당극제.

■5일

오후 7:00 부산민예총 풍물굿위원회 '시민과 함께하는
풍물한마당'

오후 7:30 굿패 영산마루 마당극 '날아라 금어아'

오후 8:40 청소년극단 눈동자 뮤직퍼포먼스 '교실라이브'

오후 9:00 극단 일터 마당극 '오랜된 만남'

■6일

오후 7:00 굿패 영산마루&킬라몽키즈 프로젝트 '타
악&힙합퍼포먼스'

오후 7:30 대전 마당극단 좋다 마당극 '백수의 전설'

오후 8:40 레아벨리댄스무용단

오후 9:00 극단 자갈치 마당극 '굿거리트로트'

관람료 무료

문 의 (사)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회(807-0490~1)

제 3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8월 8일(금)-8월 12일(화) 부산전시컨벤션센터

문 의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조직위원회(626-7002)

사진작가 강홍구 특강

8월 9일 토요일 오후 2:0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2008 동강사진축제' 동강사진상 수상자로 선정된
사진작가 강홍구가 미술과 사진, 전통적 사진과 디지털
사진의 경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준다.

관람료 균일 20,000원(예약시 10,000원)

문 의 영광도서(816-9500)

시네마테크 부산 여름특별강좌

헐리우드 감독열전

8월 15일(금)-17일(일), 22일(금)-24일(일) 금요일

오후 7:00, 주말 오후 2:00 시네마테크 부산

영화평론가 김영진의 강의로, 헐리우드 영화사를 이
끈 거장감독들의 작품세계를 알아보는 시네마테크 부산
여름특별강좌.

문 의 시네마테크 부산(742-5377,
cinema.piff.org)

2008 인디고 유스 북페어

8월 20일(수)-24일(일) 누리마루 APEC하우스,
벅스코, 부산문화회관 등

전 세계 6대륙 6개국의 작가 초청 심포지움과 포럼,
연극, 무용, 시낭송, 전시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2008 인디고 유스 북페어.

문 의 인디고서원(628-2897)

문화나눔 일곱 번째

윤효간 피아노 콘서트 '피아노와 이빨'

8월 27일 수요일 오후 7:30 평화장터 야외무대

재활용이 가능한 기증품과 우리 유기농산물을 판매하여 그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대연성당 평화장터에서 펼쳐지는 문화나눔 일곱 번째 마당.

전 세대의 마음을 아우르는 동요를 연주하는 피아니스트 윤효간 콘서트로 마련된다.

문의 평화장터(622-0991,
www.indigoground.net)

전시

부산박물관 개관 30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티파니 보석전

6월 27일(금)-8월 31일(일)

부산박물관 기획전시실

세계 최고의 보석 세팅기술로 잘 알려진 티파니사의 170년 보석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티파니 보석전'.

관람료 일반 12,000원 · 청소년 8,000원
어린이 6,000원

문의 PR GATE(02-792-2633)

부산박물관 30주년 발자취 특별전 -임진왜란 순절도 특별공개-

7월 11일(금)-8월 31일(일) 부산박물관

부산박물관 개관 30주년을 맞아 그동안 부산박물관이 펼쳐온 발굴조사와 학술조사, 그리고 다양한 특별전을 관련 자료와 사진패널로 확인해 볼 수 있는 특별전.

특히 이번 전시기간 동안에는 임진왜란 당시 처절한 전투상황을 그린 부산진순절도와 동래부순절도 등 보물 두 점이 특별전시된다.

문의 부산박물관(610-7131)

사진으로 본 고인들의 세계

7월 15일(화)-9월 15일(월) 복천박물관

문의 복천박물관(554-4263)

제 34회 부산미술대전

7월 18일(금)-8월 18일(월) 부산시립미술관

문의 부산미술협회(632-2400)

'인(人)형(形)'展

7월 15일(화)-10월 5일(일) 용두산미술전시관

문의 용두산미술전시관(244-4228)

이동미술관-교차로에 서다

7월 23일(수)-8월 6일(수)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문의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309-4087)

맥화랑 기획전 10만원대 행복전시회

7월 21일(월)-8월 16일(토) 맥화랑

현대미술을 부담없는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획전으로, 국내에서 활동중인 작가 65명의 작품 150여점이 전시된다.

문의 맥화랑(744-2665)

이운신의 그릇과 권오순의 모시조각보

7월 23일(수)-8월 10일(일) 산목미술관

문의 산목미술관(747-0970)

갤러리 이듬 여름 특별기획 HAVE FUN

7월 25일(금)-8월 31일(일) 갤러리 이듬

· 참여작가/OYAMA TADASHI, 송형노, 지영, 손현욱,
박예철, 강성민

문의 갤러리 이듬(743-0059)

2008 부산·바다 풍경전

7월 25일(금)-9월 7일(일) 부산해양자연사 박물관

문의 부산수채화협회(753-0245)

김희영 개인전

7월 29일(화)-8월 10일(일) 영광도서갤러리

문의 영광도서갤러리(816-9500)

2008 부채그림전

8월 5일(화)-8월 11일(월) 타워갤러리

문의 타워갤러리(464-3939)



정춘표展

-사랑의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8월 6일(화)-8월 25일(월) 두산위브더제니스 아트갤러리, 가양갤러리

여인의 꿈과 향수어린 서정적 이미지를 담은 누드상을 주로 선보여온 조각가 정춘표 작품전.

이번 전시에서는 사랑을 상징하는 여인과 새를 소재로 동적인 생명력을 표현한 작품 20여점이 선보인다.

문의 가양갤러리(752-7830)

최대근 회화전-꿈꾸는 바다

8월 12일(화)-8월 17일(일) 영광도서갤러리

문의 영광도서갤러리(816-9500)



이영학 작
'봄 소리'

청조회전

8월 13일(수)-8월 23일(토) 타워갤러리

문의 타워갤러리(464-3939)

오해와 이해

-김경경, 김보경, 황덕경

8월 19일(화)-8월 24일(일) 영광도서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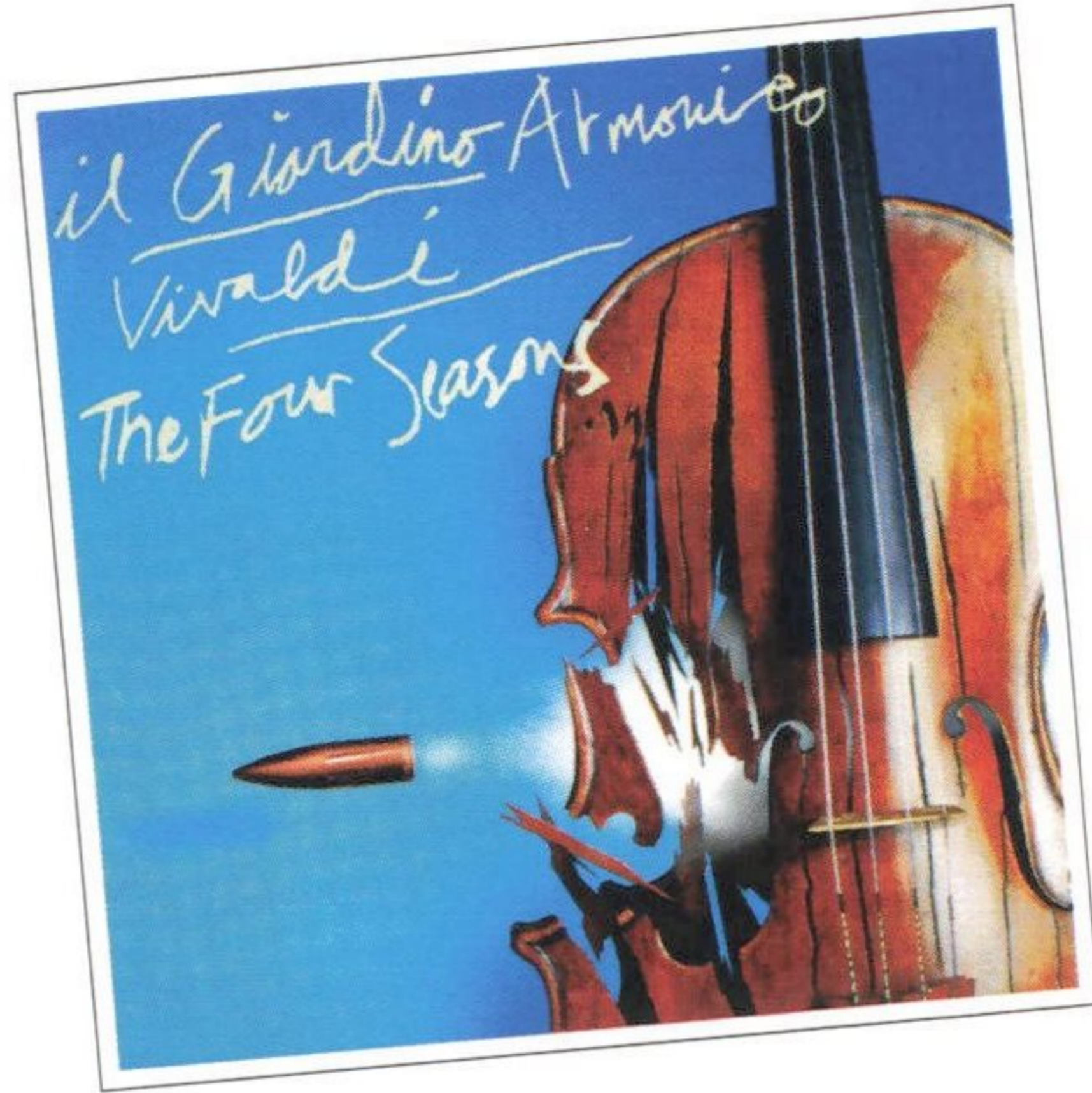
평면, 설치, 영상작업을 각각 펼쳐온 작가 김경경, 김보경, 황덕경이 '드로잉'이라는 공통 표현방식으로 표현한 3인전.

문의 영광도서갤러리(816-9500)

둘이서-김창현, 최승필 도자공예전

8월 26일(화)-8월 31일(일) 영광도서갤러리

문의 영광도서갤러리(816-9500)



비발디 <사계>

· 연주/ 일 지아르다노 아르모니코(1993년, 텔렉)

예전에 모 인터넷 동호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으로 비발디의 <사계>가 선정된 적이 있었다. 비단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 곡을 사랑하는 사람은 매우 많을 것이다. 그래서 아직도 수많은 새로운 음반들이 출반되며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들의 선망의 곡이기도 하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280여년 전인 1723년에 작곡된 이 곡은 사계절을 묘사하는 3개의 악장으로 구성된 4곡의 바이올린 협주곡이며, 계절마다 작자미상의 소네트(시)가 붙어있어 이 곡을 설명하고 있다.

이제 이 곡은 바이올린 협주곡이라는 경계를 넘어 기타, 오카리나, 리코더, 심지어는 가야금에 이르기까지 독주의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며 연주기법 또한 고전적인 해석에서 벗어나 파격적인 음향들을 선보이고 있다.

흔히 비발디의 <사계>에 관한 음반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연주는 펠릭스 아요가 독주를 맡은 이무지치의 연주일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스테디셀러의 반열에 올라있는 음반이며,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대표적인 <사계>의 음반이다.

오늘 필자가 소개하고 싶은 음반은 이무지치의 단정한 연주와는 거리가 먼, 파격적이고 때로는 기발하며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기법을 보여주는 일 지아르다노 아르모니코의 연주이다. 나이젤 케네디, 파비오 비온디와 유로파 갈란테, 드로트닝홀름 바로크앙상블, 줄리아노 카르미놀라와 소나토리 데 라 지오이오사 마르카 등 혁신적인 <사계> 연주와 그 맥을 같이하는 이 연주는 다른 연주에 비해 보다 더 진보적이고 파격적인 연주라 생각된다.

상쾌한 음색으로 시작되는 <봄>에서의 새소리는 시작부터 이 연주가 심상치 않음을 예견하게 한다. 갑작스런 번개와 그 이후의 나른함의 묘사도 대단히 효과적이다. 2악장에서 개짚는 소리의 표현은 다른 음반에서도 들을 수 없는 현악기의 거친 소리를 들려준다. 3악장의 무곡도 상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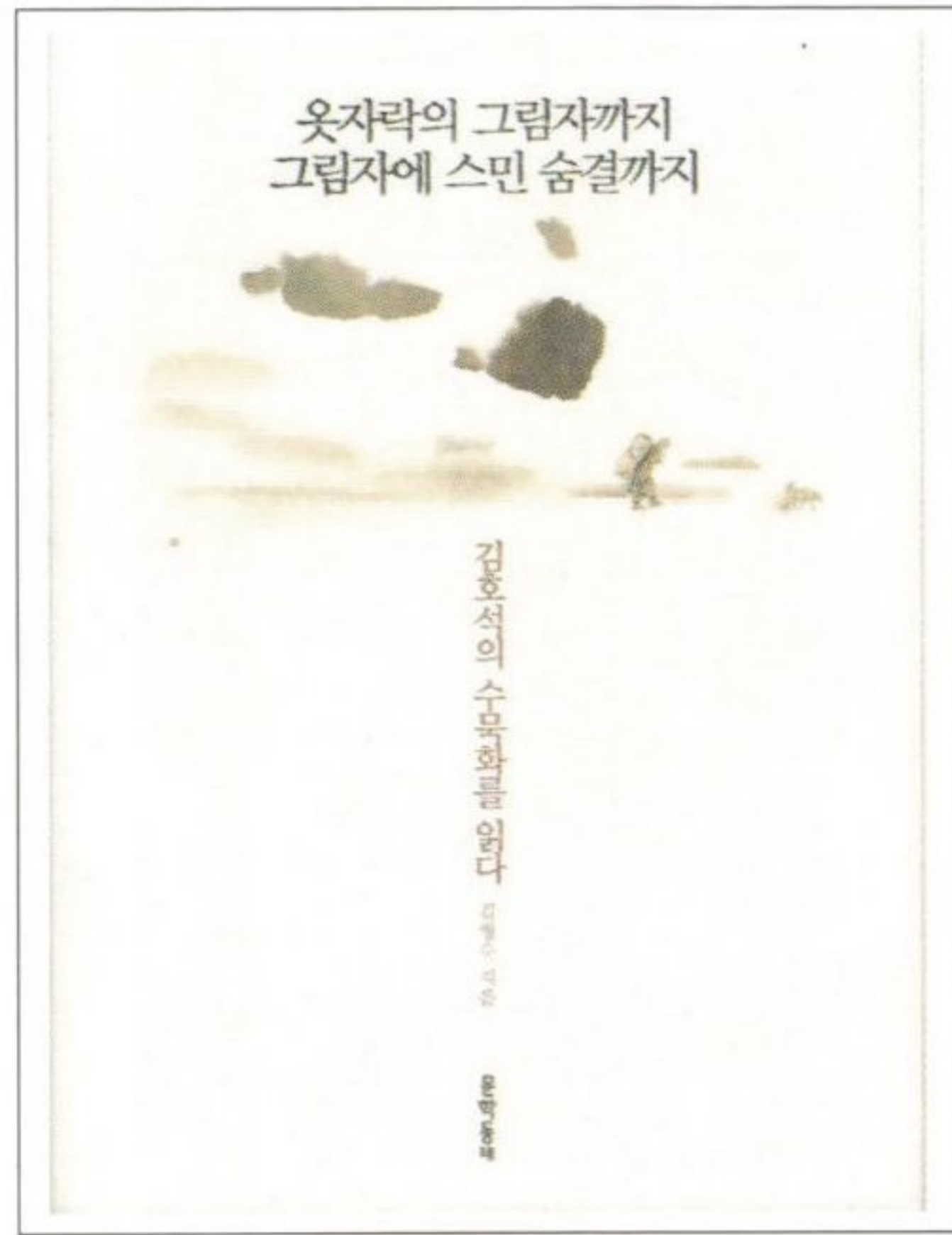
<여름> 1악장에서의 폭풍전야와 폭풍우의 효과는 깜짝놀랄만 하며, 이는 3악장에서 극대화된다. 이보다 더 격렬한 폭풍우의 묘사가 또 있을까. 꼭 한번 들어보시길 권한다.

서늘한 가을밤을 노래하는 <가을> 2악장의 첼발로는 협주곡의 카덴짜처럼 연주하며 그 위를 은은한 음색의 현들은 달빛처럼 가을밤을 수놓는다. 3악장에서 사냥을 떠나는 사람들의 흥겨움과 긴장감은 흥겹고도 재미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겨울> 1악장의 그 음산한 시작에 비하면 매우 암전하다. 온갖 현악기의 음색과 특수한 주법을 동원한 이 연주는 지금까지의 <사계>에 대한 통념을 여지없이 무너뜨린다. 2악장의 장작타는 소리도 매우 부각되어 있으며, 3악장의 굽직한 저음소리에서 떠도는 바람소리들도 다채롭고 독특하다.

솔로 바이올린의 엔리코 모노프리와 일 지오르다노 아르모니코는 변화무쌍한 현악기의 무한한 가능성을 이 걸작에 도입해 상상을 초월하는 <사계>의 다양함을 들려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주의 기량이나 앙상블의 정교함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는 연주력으로 필자의 귀를 사로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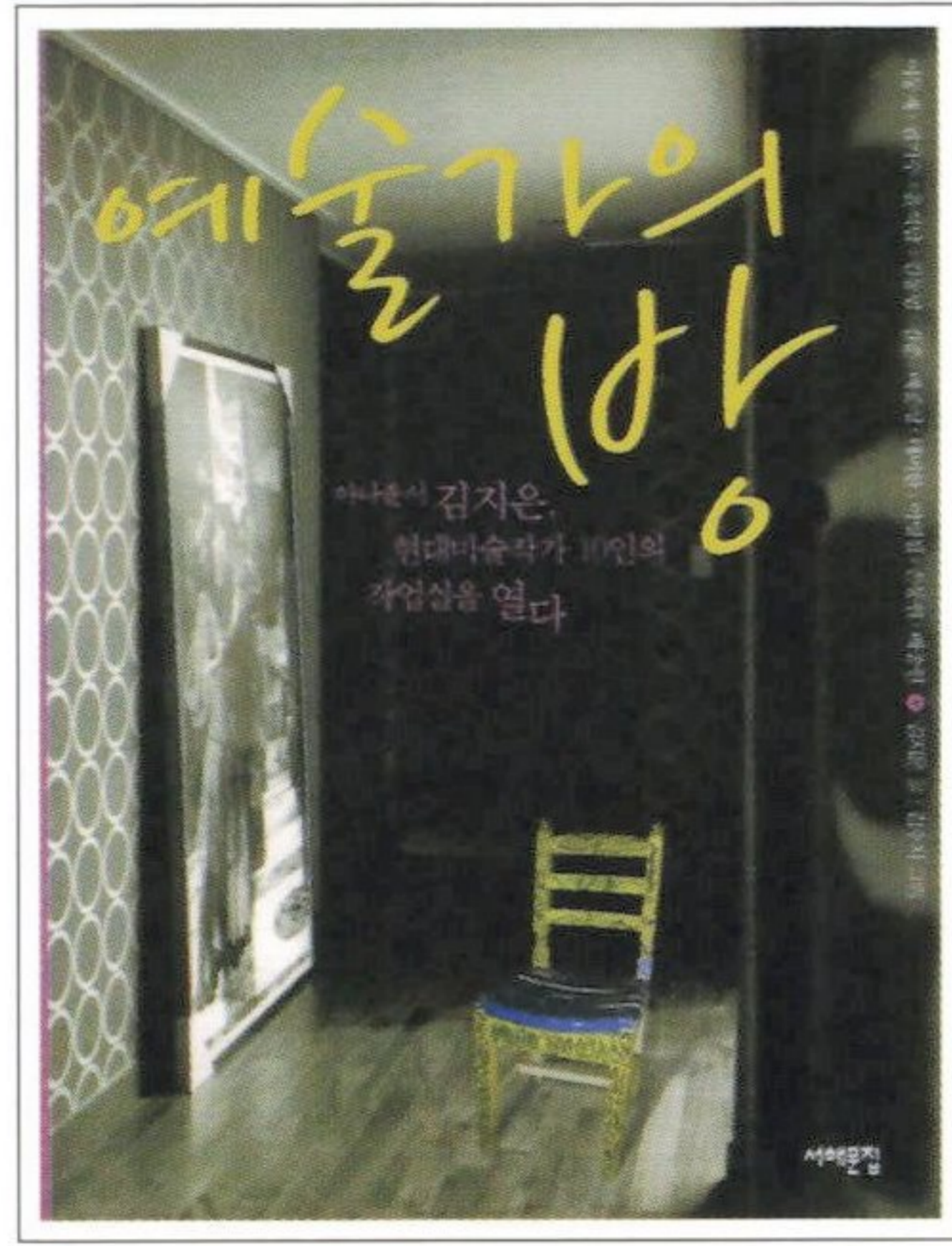
예술가의 상상력이 얼마나 풍부하고 놀라운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또 한 장의 애청음반이다.



옷자락의 그림자까지 그림자에 스민 숨결까지
-김호석의 수묵화를 읽다

• 김형수 지음 • 문학동네
• 223p • 15,000원

인물수묵화의 새로운 경지를 이루어낸 한국화단의 거장 김호석 화백과 김형수 시인은 문화적인 동지이다. 1991년 홍대 미대생들이 준비한 강연회에 참가했던 시인은 그 자리에서 김호석을 처음 만났다. 시인과 화가는 그 이후 깊은 예술적 교감과 우정을 나누어 왔다. 시인은 “김호석 화백의 그림자가 되어 해가 뜨는 곳 지는 곳 가리지 않고” 붙어 다녔다고 말한다. 이 책은 시인이자 평론가인 김형수가 그동안 쓴 김호석의 전시회 관전기를 묶은 것이다. 저자는 젊은 시절의 김호석을 일컬어 ‘조선종이 위의 시인’이라 부른다. 펜 든 이가 붓 든 이를 오히려 ‘시인’이라 부를 정도로 조선종이 위에서 김호석은 분명 시인이다. 김호석이라는 화가에 스민 숨결은 즉 조선의 색채와 조선의 마음이었다. 김호석은 곧 조선이었고, 저자가 김호석의 그림, 아니 시를 좇고(김형수 시인에게 그것은 시였다.) 매번 꼼꼼한 관전기를 남기면서까지 그토록 붙들고자 했던 것은 바로 조선의 미였다. 각각 펜과 붓을 들고 시대의 고뇌와 민중의 정신을 그려온 두 예술인이 치열하게 이어온 소통의 아름다움을 보여준 이 책은 김호석 화백과 김형수 시인 두 사람이 함께 한 시간의 결과물이다.



예술가의 방

• 김지은 지음 • 서해문집
• 311p • 12,000원

김지은 MBC 아나운서가 젊은 한국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업실을 소개하는 책. 지난 2004년 한국의 젊은 작가 21명을 소개하는 책 <서늘한 미인>을 펴내며 한국 미술계에 대한 관심을 보여줬던 그는 현재 회사의 연수프로그램으로 뉴욕 크리스티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이수중이다. 수업 시간, 한국현대 작가들에게 쏟아지는 관심 속에서 세계미술사 안에 한국미술이 어떻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도 한다. 미국으로 가기 전 이루어진 한국 현대미술작가 10인과의 인터뷰가, 예술학 석사과정을 공부하며 예술을 보는 감식안을 키우면서 책으로 정리되었다. 권기수, 배준성, 윤석남 등 한국미술을 이끄는 10인의 작업실을 공개한 이 책은, 책 제목처럼 예술가들의 비밀스러운 공간을 엿보는 재미가 넘쳐난다. 예술가의 방은 그들이 먹고 자고 일하고 꿈꾸는 일상의 공간이자 작품의 산실이다. 작업실의 모습은 예술가의 추억과 일상의 사연까지 생생하게 담고 있다. 하나의 작품이 어떤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작업 과정을 찍은 사진을 순서대로 배치하고, 방 도면을 일러스트로 보여주어 공간감을 표현했다.



색 샤라쿠

• 김재희 지음 • 레드박스
• 373p • 11,800원

<훈민정음 암살사건>, <백제결사단> 등으로 잘 알려진 작가 김재희 씨의 신작 장편소설. 이 소설은 18세기 말, 일본 에도를 떠들썩하게 했던 화가 도슈사이 샤라쿠가 실은 조선의 화가 신윤복이었다고 설정한다. 일본 사회를 정탐하기 위해 정조의 명을 받고 첩자로 파견된 신윤복이 활동자금을 벌기 위해 샤라쿠라는 판화가로 활동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김홍도를 주인공으로 하려 했으나, 김홍도의 나이가 많았고, 신윤복 역시 김홍도만큼 뛰어난 그림 실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채색화에 있어서는 오히려 김홍도를 뛰어넘었다고 생각했기에 결국 신윤복을 주인공으로 소설을 썼다고 한다. 18세기는 전 세계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급격하게 변화했던 혼란과 창조의 시대였다. 소설은 당시의 폐쇄적인 일본 사회를 정탐하기 위해 정조가 첩보단을 조직하고 훈련시키는 일을 궁중화원 김홍도에게 위임하고, 김홍도는 신윤복을 발탁해 일본으로 보낸다는 상상을 기반으로 진행된다. 정조 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 가상 역사추리소설로 신윤복과 김홍도의 사랑과 예술, 운명의 그림자를 뒤쫓는다. 책 속에 실린 그림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 8월중 찾아가는 시립예술단 공연

공연장을 찾기 힘든 부산시민들을 위한 맞춤 공연인 '찾아가는 시립예술단' 8월 프로그램이 확정되었다. 8월에는 시청 로비에서 펼쳐지는 한낮의 음악회와 사상도서관,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더위를 잊을 수 있는 흥겨운 레퍼토리를 들려 줄 계획이다.



일 정

- 8월 13일(수) 12:30-13:00 시청로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 8월 20일(수) 12:30-13:00 시청로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 8월 21일(목) 14:00-14:30 사상도서관 부산시립교향악단
- 8월 21일(목) 16:00-17:10 학생교육문화회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문의 : 부산문화회관(607-6047)

▶ 부산시립교향악단 신임 호른 수석 막심 멜니코프(Maxim Melnikov) 영입



부산문화회관은 이반 네델체프의 후임으로 러시아 출신의 호른 주자 막심 멜니코프를 수석으로 영입하고 부산시립교향악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게 되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에서도 활동을 한 바 있는 막심 멜니코프는 한국과 한국 사람들이 좋아 부산시립교향악단의 활동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막심 멜니코프는 러시아 음악 아카데미(그네신)를 졸업하고 로간스크 음악대학 멜니코프와 볼쇼이 극장 오케스트라 호른 수석인 A.라비닌,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호른 수석 B.아파나시예프를 사사하고 러시아 금

관 콩쿠르에 수상한 재원이다.

그동안 루간스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호른 단원을 시작으로 스타니슬라프스키 극장 오케스트라 호른 수석, 러시아 카메라타 챔버 오케스트라 호른 수석, 노바야 오페라 극장 오케스트라 호른 부수석, 모스크바 심포니 오케스트라 호른 수석, 아카데미 볼쇼이 극장 오케스트라 호른 공동수석,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호른 공동수석으로 활동했다. 국내에서는 NFA 목관 앙상블 서울, 코리안 목관 앙상블, 서울시립교향악단 챔버 앙상블 단원으로 앙상블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던 막심 멜니코프는 그동안 제주 관악오케스트라, 서울시립교향악단, 서귀포 관악오케스트라, 청주시립교향악단, 코스트로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바 있다.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 기념 기획 공연

■ 문의 부산문화회관 625-8130,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 607-6070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www.bsculture.busan.kr

달콤한 추억의 주크박스 뮤지컬

달고나

2008년 10월 18일~19일
오후 3:00, 7: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달콤한 추억의 7080주크박스 뮤지컬
추억의 가요들이 가득한 종합선물세트 같은 뮤지컬.
서양에 <맘마미아>가 있다면 한국에는 <달고나>가 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대중가요가 공연 무대 위에서
세우, 지희의 이야기와 함께 녹아들 때, 관객들은 노래에 취해,
이야기에 취해 젊은 날의 꿈과 사랑, 삶을 나누어온 인연들,
함께 숨쉬었던 공기와 시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신나는 뮤지컬.

뮤지컬 넘버로 보는 달고나
나의 작은 꿈, 은하철도 999, 담배가게 아가씨, 꽃과 어린왕자,
너 나 좋아해, 불티, 여행을 떠나요, 행복을 주는 사람 등



부산 명예시민 조수미 초청공연

2008년 12월 7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가 들려주는 아름다운 12월의 세레나데

1993년 이탈리아에서 당해 최고의 소프라노에게 주는 황금기러기상 (La Siola d'Oro)을 비롯하여 대한민국문화훈장(1995년), 해외동포상 (1997년), 프랑스 문화계 비평가들이 선정한 Grand Palmier상(프랑스 1997년) 수상. 1993년에 게오르그 솔티경의 지휘로 데카(Decca)에서 발매된 오페라 '그림자 없는 여인' 그라미상 클래식 부분의 오페라 부문 최고 음반으로 선정.

- 명 지휘자 카라얀은 "100년에 한두 명 나올까 한 목소리의 주인공이다", 주빈 메타 "신이 주신 목소리"라는 극찬
- 세계 5대 오페라극장을 섭렵하면서 게오르그 솔티, 주빈 메타, 알프레드 크라우스, 로린 마젤 등의 명 지휘자와 여러 오페라에 출연

여름이 아름다운 역사의 고장 **청도**

7월 태양이 뜨겁게 내리 쬐는 한여름 정기회원 가족들이 찾은 곳은 경북 청도. 테마여행에서는 세 번째 찾는 청도이지만 청도는 매년 다양한 모습으로 정기회원 가족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준다.

7월 11일 오전 8:40 부산시립무용단 수석 김주령, 부수석 이정인 씨와 함께 부산문화회관을 출발한 정기회원 가족들은 한 시간 남짓 달려 목적지인 청도에 도착했다. 청도에 접어들면서 버스 여행에 지루해진 정기회원 가족들을 위해 두 무용수가 경쾌한 리듬에 맞춰 몸을 풀 수 있는 간단한 율동을 직접 선보이며 오늘 여행의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청도는 선사시대 유적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사를 간직한 곳이다. 처음 찾은 곳은 오늘 여행의 하이라이트 '자두따기 체험'. 시장에서나 보던 자두가 매달린 나무를 보며 신기해하는 정기회원 가족들, 바쁜 여름 농사철에 반갑게 우리 일행을 맞아주는 청도 사람들과 정감 넘치는 인사를 나누고 자두따기 체험을 시작했다.

"돈보고는 정말 못할 일이지요" 고향 청도를 알리기 위해 '농부와 닷کم'을 운영하며 농촌 문화 체험의 장을 열고 있는 강동호 씨. 오랜 가뭄과 더위로 작황이 나쁜 자두 농사를 한탄하면서도 멀리서 청도를 찾아준 부산의 손님들에게 미소를 잃지 않는다. 강동호 대표는 자두 따기에 이어 풍각장을 찾아나서는 우리 일행들을 위해 안내를 자처하며 시골 장터의 후한 인심까지 보여주었다.

시골장이 아침 일찍 서는 터라 11시경 찾은 풍각장은 어느새 파장이 가까워 마음이 바빴다. 1일과 6일에 서는 풍각장은 1925년 세워져 일제시대부터 정보의 장으로 번성하였다. 1970~1980년대 가장 번성했던 풍각장은 1994년 현대적으로 정비가 되어 예전과 같은 시골장의 재미는 느낄 수 없지만 아직 인심은 후하다. 아침에 준비해 온 농산물을 빨리 팔고 일찌감치 장을 나서기 위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파는 시골아낙의 후한 인심덕에 부산보다 저렴하게 한아름 야채를 산 회원들은

시골장터에서 시원한 콩국까지 맛보며 시골장터의 재미를 한껏 즐겼다.

청도의 명물 추어탕으로 맛있는 점심을 먹은 뒤 지난 2월 청도여행에서 재미있는 해설을 들려준 청도향토사학회 박윤제 회장과 고택으로 떠나는 청도 역사기행을 시작했다.

중요민속자료 106호인 운강고택은 소요당 박하담(逍遙堂 朴河淡, 1479-1560)이 벼슬을 사양하고 이곳에 서당을 지어 후학을 양성했던 옛터에 1809년(순조 9년) 박정주(朴廷周, 1789-1850)가 분가하면서 살림집으로 건립했고 1824년(순조 24년) 박시묵(雲岡 朴時默)이 증건하고 1905년 박순병(朴淳炳)이 다시 중수하였다.

운강고택 안채 처마에 걸터앉은 회원들은 박윤제 선생의 설명을 들으며 가옥구조와 당시의 교육제도, 생활풍습을 배울 수 있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무더운 날씨, 고택 여행은 많은 인내가 필요했다. 그 옛날 대문을 들어선 부녀자들은 사랑채 앞을 지나지 않고 옆으로 난 쪽문을 통해서 후원을 지나 안마당으로 들어갔다는 설명을 들으며 옛 여인들의 삶을 되새겨 보는 회원들의 상기된 모습도 잠시, 이번에는 고자대감집으로 불린 임당고택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임당고택은 조선시대 정3품 벼슬까지 올랐던 내시 김일준의 고택으로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 곳이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16대에 걸쳐 내시 가계를 이어온 집이고 외부와 단절되어 있는 가옥 배치가 다른 가옥과 많이 달랐다. 집은 궁궐을 바라보는 서북향이고 중사랑채를 끼고 있는 안채는 빼곡하게 둘러싼 담으로 사방이 막혀있다.

더운 날씨에 청도 사랑을 몸으로 실천해 주신 박윤제 회장과 고택답사를 마친 후 부산으로 바쁜 걸음을 재촉했다. 더위 때문에 미루었던 부산시립무용단의 강강술래 시간을 기다리던 초등학생들이 많이 아쉬워해 청도 휴게소에서 뒤늦게 '강강술래'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강강술래를 직접 배우며 몸과 마음이 즐거웠던 7월 여행을 알차게 마무리 했다.



시골여행에서 장터기행은 또 다른 재미

청도의 5일장

- 1일, 6일 : 풍각장, 동곡장, 금천장
- 3일, 8일 : 이서장, 유천장
- 4일, 9일 : 청도장, 관하장
- 5일, 10일 : 화양장

※ 9월은 **진주**로 여행을 떠납니다. 테마 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테마여행 신청엽서를 부산문화회관 홍보부로 보내주시시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감 8월 15일)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테마여행 당첨자

신규가입자

남효숙(동래구 명륜동)
 박미정(남구 대연동)
 박서영(연제구 연산9동)
 손미정(동래구 온천3동)
 이규(남구 용호1동)
 정창숙(연제구 연산9동)
 채지원(해운대구 반여4동)
 최미경(동래구 사직동)
 최수영(동래구 명륜동)
 최현규(남구 용호3동)

엽서 당첨자

김민재(수영구 망미2동)
 김선희(금정구 장전2동)
 김 산(남구 용호3동)
 오윤지(남구 감만동)
 이서영(남구 감만동)
 이영주(영도구 영선동)
 이미정(남구 대연4동)
 박지영(남구 감만동)
 정승겸(금정구 장전2동)
 조은숙(사하구 구평동)

100자 토크

시카고 칠드런스 라이어내한공연

라틴, 팝, 재즈, 민요 등 장르를 넘나드는 환상적인 목소리와 경쾌한 율동으로 하여금 한편의 뮤지컬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단원 한명 한명의 열정과 숨결이 그대로 전해와서 가슴이 벅차도록 감동적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악기는 바로 인간의 목소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공연을 가까이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강수진(동래구 명장1동)

뮤지컬 '화성에서 꿈꾸다'

민영기, 예전에 '로미오와 줄리엣'에 출연한 그의 모습을 본 적이 있지만 나이 때문이었을까, '화성에서 꿈꾸다'의 민정조만큼 강렬한 인상으로 와 닿지 않았다.

개혁을 주도하는 정조의 고뇌가 절절하게 배어있는 민영기의 열창 때문에 더 오래도록 화성을 꿈꿀 것 같다.

박미정(연제구 연산5동)

예술에의 초대 200호 발행 기념 '아름다운 시 아름다운 음악'

여러 장르의 음악과 다양한 구성으로 약 2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진 공연이었습니다. 첫 무대를 열어준 시낭송은 평소 내가 좋아하던 시와 함께 아름다운 음악을 배경으로 직접 시인께서 낭송을 하시니 그 감동이 좀더 긴 여운을 남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어서 여러 곡의 클래식 소품들 또한 무더운 더위에 받은 지친 몸을 녹이기에 멋진 공연이었습니다.

박주연(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게시글)

연극 '서툰 사람들'

순진한 도둑과 말많고, 겁없는 여선생, '서툰사람들' 몇 년 전 5번 이상 봤던 작품이라, 머리속에 대사와 장면 장면이 다 들어있지만, 마치 처음인 것처럼 또 다시 빠져들어 마음껏 웃고 놀라며 감상하였다.

공연을 관람하는 내가 행복해지니, 그 행복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 사람들에게도 추천하게 된다.

강숙희(영도구 봉래동3가)

년배별 퍼포먼스 '절프'

공연전부터 설레임과 기대로 가득찼던 공연이라서 한눈 한번 팔지않고 공연에 흠뻑 빠져들었다. 단 한 장면도 놓칠 수 없고, 놓쳐서도 안되는 공연이라서, 연신 탄성을 자아내며 공연시간은 지나갔다. 나도 모르게 흥이 나서 몸이 들썩거리고, 기분 또한 업되어서 공연관람 후 나오는 내 발걸음이 한껏 신이 나있었다. 정말, 최고의 공연이라 말하고 싶다.

김현주(부산진구 부암1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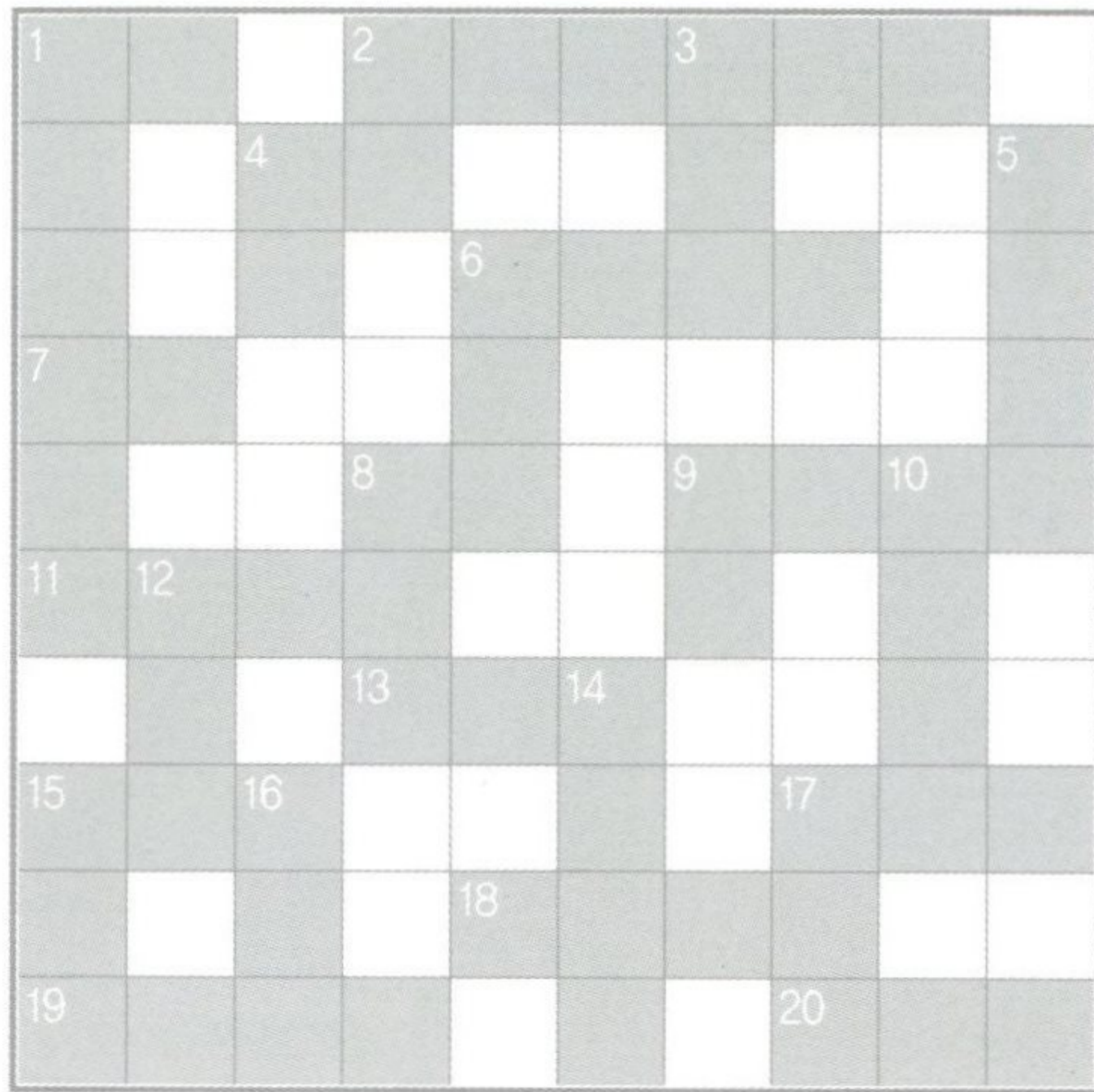
방 법 bsculture@naver.com으로 공연후기 '100자 토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100자 토크'는 예술에의 초대 지면을 통해 소개합니다.

'100자 토크' 공연후기를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선정하여 놀부집 향아리갈비 식사권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마 감 수시모집(원고를 보내실때는 주소와 연락처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7~8)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가로

1. 하이네의 '독일이야기'에서 소재를 얻은 로맨틱 발레의 대표작. 8월 23일과 24일 국립발레단 초청공연으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2. 남녀간의 신뢰와 사랑을 주제로 애정의 일면을 재치있게 묘사한 모차르트의 오페라. 로맨틱 코믹 뮤지컬로도 제작되어 8월 22일부터 가마골소극장에서 공연된다.
4. 산간 지대에서 눈에 빠지지 않도록 신 바닥에 대는 넓은 덧신. 찢, 노, 새끼 따위로 엮어서 만든다.
6. 말레이 반도의 남쪽 끝에 있는 공화국. 국민의 대부분은 화교(華僑)이며, 공용어는 말레이어, 중국어, 타밀어, 영어이다. 국가명과 수도명이 같다.
7. 세모꼴의 틀에 47개의 현을 세로로 평행하게 걸고, 두 손으로 줄을 튕겨 연주하는 현악기. 음식의 우아함과 부드러운 느낌의 여운이 특색이다.

8. 주인공 도로시가 회오리바람에 휩쓸려 가게 된 환상과 모험의 나라.
9. 월남전 당시 프랑스군 병사 650명과 한국맹호부대 병사 8명, 그리고 그 8명을 구하려 갔던 10명이 실종된, 사이공 남부에 위치한 로미오 포인트를 배경으로 한 공수창 감독의 공포영화.
11. 체코 민족의 애환을 담은 독자적인 작풍을 이룬 체코의 작곡가. 대표곡으로 교향곡 '신세계로부터', 오페라 '루살카' 등이 있다.
13. 관현악을 위하여 작곡한 소나타 형식의 규모가 큰 곡. 보통 4악장으로 이루어지며, 하이든이 시작하여 모차르트와 베토벤에 의하여 확립되었다.
15. 오페라, 오라토리오 등에서 기악 반주가 있는 서정적인 가락의 독창곡.
17. 자라의 한자어와 조선시대 벼슬이름을 붙여 자라를 의인화시킨 이름.
18. 동화작가 권정생의 아름다운 창작동화. 아동극,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되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19. 무굴 제국의 황제 샤자한이 사랑하는 왕비를 위하여 세운, 인도 이슬람 건축을 대표하는 걸작이자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건물로 꼽히는 이슬람교 묘당(墓堂).
20. 대한제국 때에 경무청이나 경위원에 속하여 제복을 입지 아니하고 비밀 정탐에 종사하던 순검. 별짜(別-).

세로

1. 지난 2006년 영화배우 조승우가 출연해 엄청난 인기몰이를 했던, 스티븐슨의 동명소설을 뮤지컬로 제작한 브로드웨이 뮤지컬.
2. 고등교육을 받고, 도시 근교에 살며, 전문직에 종사하여 고소득을 올리는 일군(一群)의 젊은이들로, 젊은

(young), 도시화(urban), 전문직(professional)의 세 머리글자를 따서 부쳐진 이름이다.

3. 낙동강 하구 최남단에 있는 명승지. 약 3km 떨어진 곳에 있는 물운대와 함께 주변 바다와 산의 경치가 아름다운데다가 곱고 부드러운 흰 모래사장이 전개되어 좋은 해수욕장을 이루고 있다.
4. 일본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소설.
5. 초기 독일 낭만파의 대표적 작곡가의 한 사람이며 근대 독일 가곡의 창시자로, 600여 곡의 독일 가곡과 실내악곡, 교향곡 따위를 남긴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6. 30대를 맞는 주인공과 그 친구들의 일과 사랑 이야기를 담은 엄정화, 장진영 주연의 영화. 최근 뮤지컬로도 제작되어, 8월 2일부터 부산 롯데아트홀에서 공연된다.
8. 칠월 칠석날 저녁에, 견우와 직녀를 만나게 하기 위해 까마귀와 까치가 은하수에 놓는 다리.
9. 여성의 가장 낮은 음역. 또는 그 음역의 가수.
10. '눈의 여왕'과 더불어 지고지순한 사랑을 그린 안데르센의 동화.
12. 1996년 팝페라 가수 사라 브라이트만과 부른 'Time to say goodbye'가 전세계적으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면서 국제적인 스타로 발돋움한 이탈리아 출신의 테너가수.
14. 바른 길에서 벗어난 학문으로 세상 사람에게 아첨함.
15. 분신(分身), 화신(化身)을 뜻하는 말로, 사이버공간에서 사용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이다.
16. 천연향을 이용한 자연 치료요법 향기.
17. 유성(流星).

지난호 정답

화	성	에	서	꿈	꾸	다		하
		스				보	헤	미
하	루	키	카	타				거
모		모	차	르	트		치	자
니			멘			호	외	불
카	이	스트		렌		법		쇼
병		로	보	트	태	권	브	이
파	우	스트				중		발
랑				망	망	대	해	레
새	옹	지	마		고		참	성

퍼즐 당첨자 명단

■ 큰집 식사권

김양근(영도구 남항2가)
김희진(남구 용호동)
이진숙(사상구 학장동)
성용호(기장군 기장읍)
허경연(서구 동대신동)

■ 놀부집 향아리갈비

김현숙(해운대구 우1동)
노경애(남구 대연3동)
박찬현(해운대구 우2동)
서복주(남구 용호동)
조화정(남구 문현3동)

■ 가마골 소극장 초대권

박선하(해운대구 우2동)
성외순(남구 대연1동)
이민정(사하구 당리동)
임옥선(부산진구 전포2동)
주민주(해운대구 재송동)

■ 동보서적 도서상품권

김현주(부산진구 부암1동)
박미선(사상구 학장동)
신순선(부산진구 초읍동)
백지현(사상구 주례2동)
진정권(부산진구 초읍동)

그리움이 있는 곳에
늘 고향이 있습니다

韓國傳統飲食店

큰 집

예약. 051-245-3320
업무. 051-255-4547

◆ 예약을 하시면 특별찬(샐러드, 죽)을 제공해 드립니다.
◆ 큰집은 광복로 국제시장에 있습니다.

날마다 연극축제가 열리는 곳
부산에는 가마골소극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연극의 산실

가마골소극장

(051) 245-0042 www.kamagol.co.kr

놀부집 향아리갈비 대연시티원점

TEL. 051-628-8814
대연동 시티원골프연습장 입구

부산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동보서적 1층 안내에서
각종 공연 티켓을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동보서적

• 도서안내 : 803-8000 • 단체납품 : 804-6391
• www.dongbbooks.com

- 보내실 곳/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2008년 8월 15일까지 보내주시시오.)
- 문의/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문화회관 20주년 기념 정기회원 특별혜택

해외여행비 3%할인 받자!!



* 특별할인 혜택은 하나투어 예약센터 <Hi!하나>로 예약확정 하실 때 적용됩니다.

* 전국 대표전화 1544-1759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부산문화회관 테마여행 협찬사 Hi!하나 www.hihana.co.kr

NA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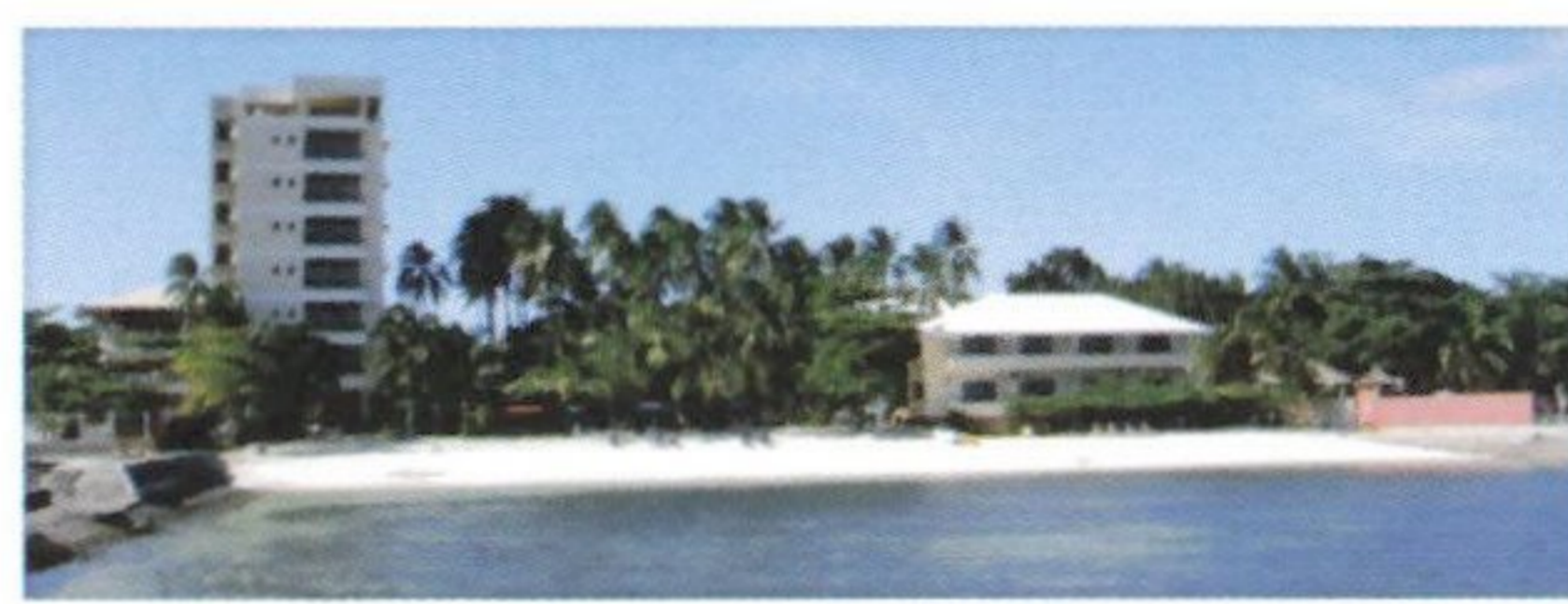
하이하나

Best of Best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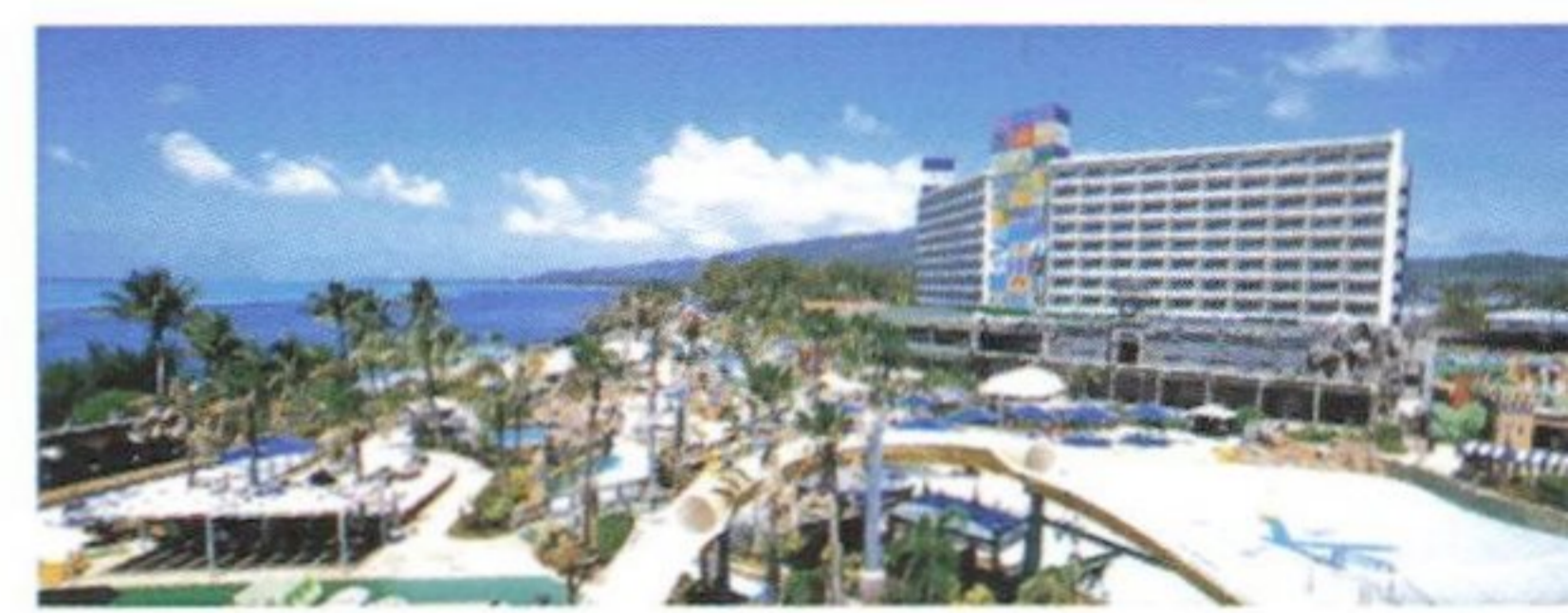
상반기 인기상품
베스트 3 추천여행



동남아 대표적인 해변 휴양지 푸켓
푸켓/피피섬 5일 보트라군 리조트
ABP701 659,000원~



에메랄드 빛 바다와 남국의 아자수
세부 코스타벨라 리조트 4일/5일
APP754 679,000원~



남태평양 유일의 한국계 최고의 특급리조트
사이판 월드리조트+디너쇼 5일/6일
PSP703 1,399,000원~

북경올림픽 중국여행

대한민국 금메달을
기원하는 중국여행



[무릉도원 일주]
장가계/원가계 4일/5일
CCP777 649,000원~



[대륙 + 홍콩야경]
광저우/심천/홍콩 5일
CSP743 929,000원~



[서울출발]
하이난 호라이즌 리조트 5일/6일
CSP832 999,000원~

문화예술 유럽여행

전세계 예술과 문화를
만나는 예술여행



[고흐의 그림 이야기]
불멸의 화가 반고흐展 9일
EWP362 5,390,000원~



[모딜리아니의 그림이야기]
모딜리아니와 잔느展 9일
EWP363 5,09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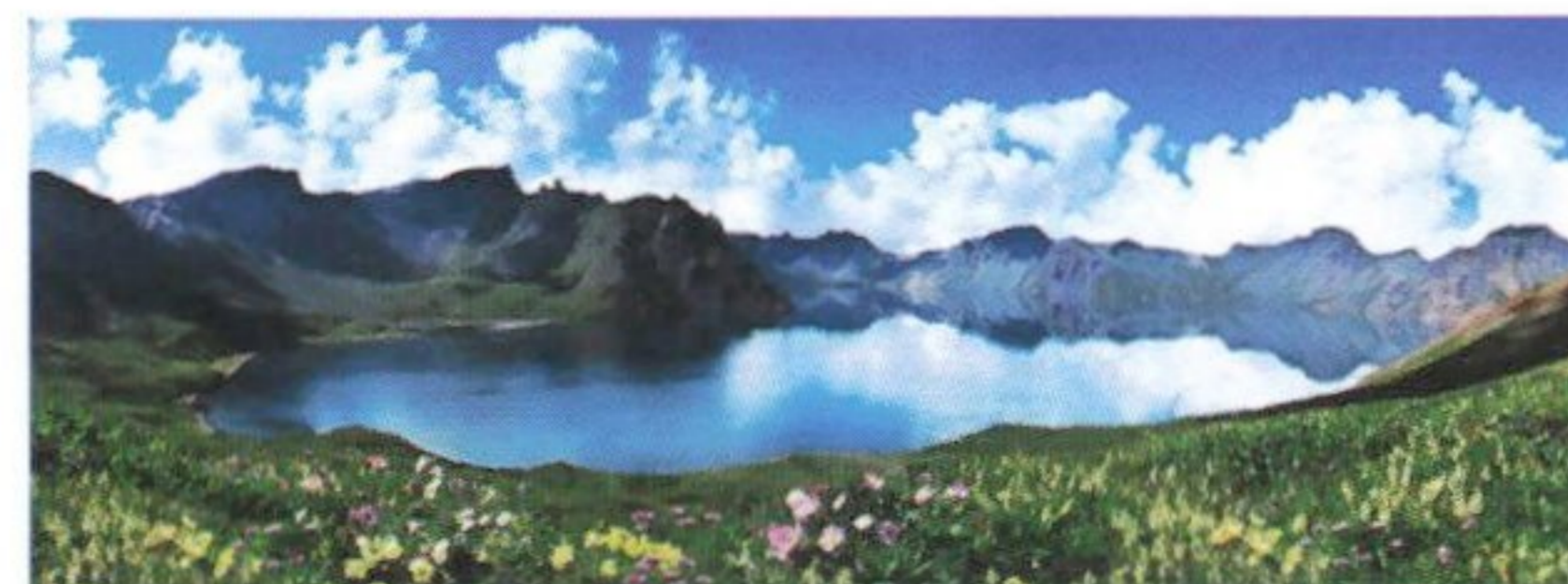
[괴테의 문학이야기]
독일 괴테가도 7일
EWP364 3,790,000원~

베스트 트레킹여행

여행의 새로운 시작인
트레킹 여행상품



[일본의 지붕] 북알프스/야리카다케/
호다카다케 트레킹 4일/5일
JHK513 1,290,000원~



꼭 가봐야 할 우리땅! 백두산!!
장춘/백두산 북파 트레킹 4일
CNK812 1,050,000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황산 서해대협곡 트레킹 4일
CCK812 799,000원~

Hi!HANA

하나투어 예약센터 Hi!하나

하나투어 HANATOUR

부산본점) 051-442-1271 서울점) 1544-1759 대구점) 053-423-1271
마산점) 055-253-1271 울산점) 052-222-1271

전화 상담시 [상품코드]를 알려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문화회관 회원님들은 상담시 정기회원임을 밝혀 주시면 3% 할인혜택이 주어집니다.
문화회관 담당자 : 이상준팀장 직통 051-442-1271 / 이순남 직통 051-442-1272

전국 대표전화 (국번없이)

1544-1759

토요 상설무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문화회관 중·소극장

8월 16일 토요일 오후 4:00 소극장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 연주회

김해시립 가야금연주단은 가야의 역사를 배경으로 1998년 4월 16일에 창단된 전국 유일의 시립 가야금 연주단으로, 가얏고를 향한 사랑과 열정을 지닌 단원들이 모여 전통 가락으로 세계인을 감동시키겠다는 아무진 꿈을 향해 도약하고 있다.

■ 프로그램

- 송죽전승 민간풍류 중 타령, 군악(미디어음악/심진접, 가야금/가야금 연주단)
- 산조병창(가야금/황정숙 외, 장구/이진희)
- 남도아리랑(작곡/백대웅, 편곡/강봉천, 가야금/가야금연주단, 타악/이진희, 신재현)
- La Comparsita(편곡/곽재영, 가야금/가야금연주단, 드럼/김진훈, 타악/이진희)
- 꽃섬(제19회 정기연주회 위촉곡)
(작곡/신창렬, 가야금/가야금연주단, 타악/이진희)
- 休&樂(편곡/박선영, 가야금/가야금연주단, 드럼/김진훈, 타악/이진희)
- Happiness(작곡/강상구, 가야금/가야금연주단, 타악/이진희)
- 음악감독/문재숙(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 음악부감독/황정숙
- 해설/백규진(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 타악/이진희, 신재현
- 드럼/김진훈(JH Drum & Percussion School 원장)

8월 23일 토요일 오후 4:00 소극장

부산새울전통타악진흥회 & 가·무·악의 공유

(사)부산새울전통타악진흥회는 2004년 4월 7일 창단공연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4회 정기연주회와 APEC 문화축전 선정 작품공연, 국제신문 주최 유콘서트, 제 1회 부산국제매직 페스티벌 개막식공연, 진주시립전통예술단 초청연주,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 초청연주 등 주요 연주 단체들과 공연을 가져왔다.

프로그램

- 장구합주 '다드리'(이봉우 외 5명)
- 대금산조 '이생강류'(대금/이중희, 장구/신문범)
- 소리북산조 '고성(鼓聲)'(이봉우 외 5명)
- 판소리/수궁가 중(소리/박성희, 고수/신문범)
- 사물놀이/삼도농악(이봉우 외 5명)
- 출연/신문범, 박성희, 이중희, 이봉우, 이경희, 권보름, 최정욱, 권두솔, 박민지, 박소희
- 해설/박성희

8월 30일 토요일 오후 4:00 중극장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위자료'

차범석의 리얼리즘 희곡 '위자료'는 인간본연의 욕망 중 하나인 화폐에 대한 물질적 숭배 등을 그 주제로 해서 삶의 편린들을 충실하게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 원작/차범석
- 연출/채운일(부산시립극단 수석연출)
- 등장인물/정행심(어머니), 박찬영(큰아들), 임해련(큰며느리), 이혁우(작은 아들), 이돈희(외삼촌), 황창기(버스회사 총무과장)

· 관람료 : 무료(7세 이하 어린이는 공연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 문의 : 부산문화회관 (625-8130)

온가족 신나는
바다속 여행!
대한민국 대표 해양테마파크
Busan Aquarium

전시 생물 수 400여종 35,000여 개체, 세계 각지의 열대 담수어와 해수어 등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부산아쿠아리움에서 신비로운 해저세계를 경험하세요

부산아쿠아리움 www.busanaquarium.com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행사 및 예약 문의 : 051-740-1700

2008년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 놓치지 마세요.



▶ 9월 5일(금) **충절의 고장 진주, 경남 수목원 여행**

진주성대첩의 영웅 김시민 장군과 왜장을 안고 남강에 몸을 던진 논개의 구국혼이 서려있는 충절의 고장 진주로 떠나는 9월 여행.

- ▷ 08:30 부산문화회관 출발
- ▷ 10:00 진주 도착
- ▷ 10:30 진주성, 진주국립박물관, 촉석루 탐방
- ▷ 12:30 중식 후 경남 수목원으로 출발
- ▷ 14:00 경남 수목원 도착 후 관람(민속식물원-산림박물관-열대식물원-화목원 등)
- ▷ 17:00 부산으로 출발



▶ 10월 10일(금) **암각화와 함께 떠나는 선사시대 여행**

선사인들의 고래잡이 등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국내 유일 암각화 전시관인 울산 암각화전시관으로 떠나는 가을 여행.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각석 등 국보급 선사문화재와 함께 선사시대로 떠나는 특별한 여행이다.

- ▷ 8:30 부산문화회관 출발
- ▷ 10:00 울산 반구대 암각화 전시관 도착, 전시관람
- ▷ 13:00 반구대 팜스테이마을 도착, 가을 체험
- ▷ 17:00 부산으로 출발

※ 체험비는 참가자 부담입니다.

- 테마여행 응모방법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습니다.
〈예술에의 초대〉에 있는 응모엽서를 작성하여 8월 15일까지 보내주십시오.
※ 한달동안 신규가입한 회원 중에서도 10명을 추첨, 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주)레임 투어편(1544-2579)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가입안내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 가입하시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공연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VIP 회원 1년제 10회 관람 100,000원
- 일반회원 1년제 5회 관람 25,000원 10회 관람 45,000원
- (청소년 푸른회원 20% 할인, 장애인·경로, 국가유공자 사랑회원 50% 할인)

- 가입비 납입 은행계좌번호 : 부산은행 036-01-034846-1(예금주 : 부산문화회관)
- 가입 및 공연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ulture.busan.kr)에서도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 □ - □ □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예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 □ - □ □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예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Since 1981 **philharmony**

식사 · Wine · Beer · 차를 함께 즐기는 편안한 문화 사랑방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림빌딩 2층 ☎ 628-2592

울고 있는 저 여자 **10%** 할인



▶ 날짜 : 2008. 8. 2(토)~8. 17(일)
▶ 시간 : 평 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요일 오후 3:00, 6:00
(15일 오후 3:00 월요일 공연없음)

· 작/김현영 · 각색, 연출/이재경

▶ 입장권 : 균일 25,000원

▶ 장소 : 가마골 소극장

▶ 문의 및 예매 : 051-245-0042

※ 쿠폰소지회원에게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세계문화체험 중심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통합입장권 특별할인**

(전망대+세계민속악기 박물관

: 대인 5,500원, 소인 4,500원)

▶ 날짜 : 2008. 7. 1(화)~9. 30(화)

▶ 시간 : 오전 10시~오후 6시
(마지막 입장 오후 5시 30분)

혜택 쿠폰제시시 통합입장권에 한해 1매 2인 까지 20% 할인

부산타워 상담전화 ☎ 245-1066

대한민국 대표 해양테마파크-

신비로운 해저세계-

부산아쿠아리움



• 날짜 : 2007년 12월 1일 ~ 2008년 11월 30일

• 시간 : 평일 - 오전 10시 ~ 오후 8시
(마지막 입장 오후 7시)

주말·공휴일 - 오전 9시 ~ 오후 10시
(마지막 입장 오후 9시)

• 타 할인혜택과 중복할인 불가

• 쿠폰제시시 1매 4인까지 10% 할인

공연의 준비에서 감동까지
그 시작은 박스어드림과 함께...

☎ 633-2655



다 · 예술 공연의 홍보 도우미
지하철 포스터 광고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특별한 혜택

"당신의 피부속을 진단해 드립니다"

맛사지 무료체험권

DR▲QU

* MBC / SBS / KBS 방송사에서 방영된 놀라운 피부혁명*
여드름 / 기미 / 아토피 / 잔주름 / 검버섯

닥터▲큐 남천점 Tel. 622-6901

지하철 남천역 4번출구 동해빌딩 4층 * 방문시간 사전 예약제 실시*

2006
최우수
공기업 선정

2007
우수
공기업 선정

2007
지방공기업
경영대상 수상

미래를 아는 부산도시공사... 우리의 미래는 바로 고객 여러분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고객, 인재 그리고 기술을 바탕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는 **BMC**가 되겠습니다.


BMC
부산도시공사

주요추진사업 부산신항배후부지 조성, 동부산관광단지 조성, 화전산업단지 조성, 미음산업단지 조성, 장안산업단지 조성, 정관택지조성, 추모공원조성, 테크노파크 건립, 주거환경개선(4개지구)

 **BMC** 부산도시공사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로 138 (614-707) |
| Tel. 051)808-2662 | Fax. 051)810-1400 | <http://www.bmc.busan.kr> |

지젤 Giselle

고귀한 사랑
로맨틱 발레

죽음조차 막을수 없는
슬프도록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낭만 발레의 대표작 '지젤'
클래식 발레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작품




국립발레단 초청 공연



발레리나 김주원

특별게스트
발레리노 김용걸

2008. 8. 23(토)오후7시30분 / 24(일)오후4시  부산문화회관대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국제신문 주관  부산문화회관 예술기획

문의 : 부산문화회관(051-607-6058), 국제신문(051-500-5222)

티켓예약 : 예술기획 (0505-700-9798)

입장료 : VIP석(10만원), R석(7만원), S석(5만원), A석(4만원), B석(3만원)